

서유기

西遊記 · 오승은 100회본

제5권 (제41회 ~ 제50회)

오승은 (吳承恩, 약 1500-158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6

책 정보

원전

오승은 『서유기(西遊記)』 世德堂本(1592년 명대), 10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西遊記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
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孫悟空 → 손오공, 玄奘 → 현장)
- 별칭·법명·도호는 본명으로 통일(美猴王 → 손오공, 八戒 → 저팔계, 三藏 → 당승)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偈曰 → 시·계송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41회 — 마음의 원숭이가 불에 타 패하고, 목모가 마귀에게 붙잡히다.....	5
제42회 — 대성께서 남해를 정중히 배알하고, 관음보살이 자비로써 홍해아를 결박하다	36
제43회 — 흑하의 요괴가 당승을 사로잡아가고, 서양의 용자가 악어를 잡아 돌아오다	66
제44회 — 법신이 원운하여 수레의 힘을 만나고, 마음이 바르니 묘사스러운 것들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다.....	92
제45회 — 삼청관에서 대성(손오공)이 이름을 남기고, 차치국에서 원숭이 왕이 법술을 드러내다	123
제46회 — 사악한 무리가 강압적으로 정법을 속이고, 마음의 원숭이가 성스러운 위력을 나타내어 모든 사악함을 멸하다.....	152
제47회 — 성스러운 승려가 밤중에 통천수를 막아내고, 금목신이 자비를 베풀어 어린아이를 구하다	178
제48회 — 마귀가 찬 바람을 일으켜 눈이 흩날리고, 스님은 부처님께 절하고자 층층이 쌓인 얼음 위를 걷다.....	207
제49회 — 삼장이 재앙을 만나 물속 저택에 가라앉고, 관음이 난을 구하기 위해 어망을 나타내다	231
제50회 — 정욕으로 인해 정이 어지러워지고 성품을 따르며,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흔들려 마두를 만나다.....	259

제41회 — 마음의 원숭이가 불에 타 패하 고, 목모가 마귀에게 붙잡히다

心猿遭火敗 木母被魔擒

제41회

제천대성이 정성껏 남해를 찾아가 빌고 관세음보살이 자비로운 손
길로 홍해아를 묶다

선악의 찰나적 생각조차 잊고, 부귀영화의 성쇠에도 마음 두지 않네.

밝고 어두움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흐름에 몸을 맡기네.

그저 주어진 대로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실 뿐.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아 늘 적막하나, 어둠이 찾아오면 마귀가 침범하
네.

세상 만물의 움직임이 고요한 선의 숲을 깨뜨리고,

바람이 일면 반드시 찬 기운이 몰려오네.

한편, 손오공은 저팔계를 데리고 사오정과 작별한 뒤, 고송간을 훌쩍 뛰어넘어 곧장 요괴가 사는 기암괴석 절벽 앞으로 달려갔다. 과연 그곳에는 동굴 하나가 있었는데, 풍경이 참으로 비범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비단길 같은 옛길은 그윽하고 고요한데, 바람과 달빛 사이로 신비로운 학이 노니는 소리가 들려오네. 흰 구름은 맑은 시냇물에 빗을 뿌리고, 흐르는 물은 다리 아래를 지나니 신선의 흥취가 넘치는구나. 원숭이 울음과 새들의 지저귀에 꽃과 나무는 기이하고, 덩굴과 바위 사이로 지란의 향기가 가득하네. 푸른 절벽과 골짜기에는 안개와 노을이 훑날리고, 초록빛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로 채색 봉황이 찾아드네. 멀리 늘어선 봉우리들은 병풍을 꽂아놓은 듯하고, 산은 계곡을 향해 굽어 도는데 진정한 신선의 동굴이로다. 곤륜산의 지맥에서 용의 기운이 뻗어 나왔으니, 인연이 닿는 자만이 이곳의 기운을 누리리라.

동굴 문 앞까지 가까이 다가가니, 그곳에는 '호산고송간 화운동'이라는 여덟 글자가 새겨진 커다란 돌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동굴 입구 쪽에서는 소요괴 무리가 모여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저으며 신나게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다.

손오공이 호통을 치며 크게 외쳤다.

“이놈들아! 어서 가서 동굴 주인에게 알려라. 내 스승님을 당장 내놓으라고 말이야! 그러면 너희 동굴의 요괴들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싫다’는 말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내가 이 산을 뒤엎고 너희 동굴을 아주 짓밟아 버리겠다!”

그 말을 들은 소요괴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둘러 몸을 돌려 동굴 안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돌문을 짝 닫고 안으로 들어가 다급히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한편, 그 요괴는 당승을 동굴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긴 뒤, 사지를 한데 묶어(네 굵을 한데 모으듯) 뒷마당에 동여매 두었다. 그러고는 소요들에게 깨끗한 물을 길어다 말끔히 씻겨 놓으라고 명령했다. 찜통에 넣어 찌 먹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닥쳤다는 보고가 들려왔다. 요괴는 씻기는 일도 미룬 채 앞뜰로 달려 나와 물었다.

"무슨 재앙이냐?"

소요가 대답했다.

"털이 덩수룩하고 벼락신처럼 입이 툭 튀어나온 스님과, 입이 길고 귀가 커다란 스님이 문앞에서 당승 스님을 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만약 '안 된다'는 말 반 마디라도 나오면 산을 뒤엎고 동굴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요괴는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그건 손오공과 저팔계로구나. 결국 나를 찾아냈단 말이지. 내가 스승을 잡아 이곳까지 온 거리가 산 중턱에서 여기까지 백오십 리나 되는데,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냐?"

요괴는 부하들에게 수레를 끌고 나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소요 몇 명이 수레 다섯 대를 밀고 앞문을 열고 나왔다.

저팔계가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저 요괴가 우리를 겁먹었나 봐요. 수레를 밀어서 저쪽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손오공이 말했다. "아니야, 저게 무엇을 하는지 잘 봐."

가만히 살펴보니, 소요괴들이 수레를 금, 나무, 물, 불, 흙의 다섯 가지 기운에 맞춰 차례로 내려놓고 있었다. 다섯 요괴는 수레를 지키고, 나머지 다섯 요괴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고를 했다. 그러자 요괴 왕이 물었다. "다 준비되었느냐?" 요괴들이 대답했다. "다 되었습니다!" 요왕이 창을 가져오라고 명하자, 무기를 관리하던 소요괴 두 마리가 길이가 한 길(약 3m)이나 되는 긴 화침창을 메고 나와 요왕에게 건넸다. 요왕은 창을 휘두르며 발을 옮겨 움직였다. 딱히 갑옷을 입지는 않았고, 허리에 화려하게 수놓은 전투용 치마를 두른 채 맨발로 문밖을 걸어 나왔다. 손오공과 저팔계가 고개를 들어 그 괴물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시로 이르되,

얼굴은 분을 바른 듯 눈부시게 하얗고 입술은 붉은 연지를 바른 듯 고우며 귀밑머리는 푸른 구름처럼 넘겨져 검은 빛을 압도하고 눈썹은 초승달처럼 날카롭게 깎아 놓았네. 전투용 치마에는 용과 봉황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그 모습은 마치 나타나 같구나. 두 손으로 창을 움켜쥐니 위엄이 서슬 퍼렇고 몸 주위에는 상서로운 빛이 감돌며 문을 나서는 데 목소리는 봄날의 천둥소리처럼 우렁차고 눈빛은 번개처럼 번뜩이며 매섭도다. 이 요괴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천 년 동안 이름이 떨칠 홍해아라 하리라.

홍해아가 동굴 밖으로 뛰어나오며 크게 외쳤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앞에서 떠들어 대느냐!”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조카님, 허튼수작 부리지 마라. 오늘 아침 산길 소나무 끝에 매달려 있던 그 비쩍 마른 노란 병아리 같은 꼬마 녀석이 내 스승님을 속인 놈이었구나. 나는 네가 가여워 등에 업어주기까지 하려 했는데, 너는 바람을 일으켜 스승님을 낚아채 가다니. 이제 와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 내가 어찌 못 알아보겠느냐? 어서 우리 스승님을 돌려보내거라. 괜히 얼굴 붉히고 정까지 끊기게 하지 말고 말이다. 네 아버님이 아시면, 이 손오공이 어른으로서 어린애를 괴롭힌다고 나를 아주 몰상식한 놈으로 여기실 게 아니냐.”

그 말을 들은 홍해아는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라 벼락같이 소리쳤다. “이 망할 원숭이 놈아! 내가 너랑 무슨 친척 관계라는 말이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큰소리를 쳐? 네 조카는 또 누구란 말이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형님, 형님도 모르시는구나. 예전에 내가 형님 아버님과 의형제를 맺었을 때, 형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네.”

홍해아가 말했다. “이 원숭이가 미쳤나!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형제를 맺는단 말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모르시는 말씀! 나는 오백 년 전 천계에서 난동을 부렸던 제천대성 손오공이다. 내가 천계를 뒤집어놓기 전에는 세상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대부주를 돌아다녔는데,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지. 그때 나는 영웅호걸들을 무척이나 흠모했단다. 네 아버님인 우

마왕은 평천대성이라 불리며 나와 일곱 형제 의를 맺으셨고, 그중 만형이 되셨지. 그다음 둘째 형님은 복해대성이라 불리는 교마왕이고, 셋째 형님은 혼천대성이라 불리는 봉마왕이다. 넷째 형님은 이산대성이라 불리는 사언왕, 다섯째 형님은 통풍대성이라 불리는 미후왕, 여섯째 형님은 구신대성이라 불리는 유용왕이지. 오직 나만 몸집이 작아 제천대성이라 불리며 일곱째가 되었단다. 우리 형제들이 한창 놀던 시절에는 너 같은 녀석은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다!”

요괴가 그 말을 듣고 어찌 믿겠는가. 곧바로 화침창을 치켜들고 찔러 들어왔다. 손오공은 재빨리 몸을 돌려 창끝을 피하더니, 여의봉을 휘두르며 꾸짖었다.

"이 어린 짐승 같은 놈이 감히 위아래도 모르고 덤비느냐, 매를 벌이라!"

요괴 역시 몸을 움직여 철봉을 피하며 대꾸했다.

"이 버릇없는 원숭이 녀석, 눈치도 없이 까부는구나. 창맛 좀 보라!"

두 사람은 의형제라는 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순식간에 안색을 바꾸고는, 각자 신통력을 발휘하며 구름 위로 뛰어올라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시로 이르되,

손오공의 명성은 드높고 요괴의 수단은 강하구나. 한 명은 여의봉을 가로로 휘두르고, 한 명은 화침창을 곧게 내찌르네. 안개는 뿔어 나와

삼계를 가리고, 구름은 솟구쳐 사방을 뒤덮으니, 하루 종일 살기를 뿜으며 포효하니 해와 달과 별조차 빛을 잃는구나. 말싸움도 어느 하나 지지 않고, 서로의 정은 갈기갈기 찢겼네. 한 명은 무례하게 마음을 버렸고, 한 명은 도리를 저버리고 안색을 바꾸니, 철봉은 위풍당당하게 휘둘러지고, 창끝은 거칠고 사납게 몰아치네. 한 명은 혼원의 진정한 대성이고, 한 명은 정과를 얻은 선재량이라. 두 사람이 승부를 내려고 힘을 다하는 것은, 오로지 당승을 구하기 위함이다.

요괴와 손오공이 스무 합을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저팔계는 상황을 명확히 꿰뚫어 보았다. 요괴가 비록 밀리지는 않았으나, 그저 막아내고 버틸 뿐 제대로 된 살상 능력은 전혀 없었다. 손오공 역시 요괴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지만, 봉술이 워낙 정교하고 강력하여 요괴의 머리 위를 쉴 새 없이 몰아치며 좌우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저팔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손오공이 워낙 날쌔니, 한순간 일부러 빈틈을 내보여 요괴를 찌어 들이고는 철봉으로 단번에 때려눕히면, 내 공은 하나도 없게 되겠지.'

그러고는 저팔계가 기운을 떨쳐 일으켜 구치파(九齒耙, 아홉 이빨 달린 쇠스랑)를 허공에 치켜들고 요괴의 머리를 향해 거세게 내리쳤다. 요괴는 그 기세에 깜짝 놀라 급히 창을 끌며 뒤로 물러났다. 손오공이 크게 외쳤다.

"팔계야, 어서 쫓아가 쳐라! 어서!"

두 사람이 흥해아의 동굴 앞에 도착하니, 요괴가 한 손에는 화침창을 들고 가운데 있는 작은 수레 위에 올라서 있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을 꼭 쥐더니 제 코를 향해 두 번이나 퍽퍽 내리쳤다.

저팔계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놈 보게, 때를 쓰며 정말 염치도 없구나! 제 코를 때려 부숴 피를 철철 흘려 얼굴을 빨갱게 물들인들, 대체 어디 가서 우리를 고발하겠다는 거냐?"

그러자 요괴가 코를 두 번 내리친 뒤 주문을 외우더니, 입으로는 불을 뿜고 코에서는 진한 연기를 뿜어냈다. 눈을 깜빡이자 불길의 일제히 일어났고, 다섯 대의 수레에서도 불빛이 솟구쳐 올랐다. 불을 몇 번이나 내뿜자 붉은 불길이 하늘을 태우며 화운동 전체가 연기와 불길에 휩싸였으니,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는 형세였다.

겁에 질린 저팔계가 소리쳤다.

"형님, 안 되겠어요!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는 살아남을 생각은 말아야 해요. 이 몸을 잘 구워 익혀서 양념까지 쳐 저놈들 실컷 먹게 생겼다고요. 어서 도망쳐요, 어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팔계는 손오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계곡 너머로 허겁지겁 도망쳐 버렸다.

손오공은神通력이 광대하여 피화결(불을 피하는 주문)을 외우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요괴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요괴는 손오공이 들이

닥치는 것을 보고는 불을 몇 번 더 내뿜었는데, 그 불길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졌다. 그 불길의 기세는 이러했다.

시로 이르되, 불길은 활활 타올라 허공을 가득 채우고 위엄 서린 붉은 빛은 온 땅에 가득하구나. 마치 불타는 수레바퀴가 위아래로 날아다니는 듯하고 마치 타오르는 숯가루가 동서로 흩날리는 것 같네.

이 불은 수인씨가 나무를 비벼 만든 불도 아니요, 태상노군이 금단을 구울 때 쓰는 불도 아니다. 천계의 신성한 불도 아니고 들판의 산불도 아니니, 바로 요괴가 수련하여 완성한 진정한 삼매화(신령한 불)였다.

다섯 수레의 차가 오행을 이루니, 오행이 서로 생하고 변화하여 불로 화하였다. 간목(肝木)이 생하면 심화(心火)가 왕성해지고, 심화가 치솟으면 비토(脾土)가 평온해진다. 비토가 금(金)을 생하면 금은 다시 수(水)로 변하고, 수는 다시 목(木)을 생하여 영험함이 통하게 된다. 만물이 끊임없이 생하고 변화하는 것은 모두 불 덕분이며, 불이 온 하늘에 가득해야 만물이 번성한다. 요괴가 오랫동안 수련하여 삼매화를 깨달았으니, 서방에서 으뜸가는 이름이로다.

손오공은 요괴가 내뿜는 자욱한 불길 때문에 요괴를 찾을 수도 없었고, 동굴 문 앞의 길조차 보이지 않자, 겨우 몸을 빼내어 불길 밖으로 뛰어 나갔다. 동굴 입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홍해아는 손오공이 도망친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불길을 거두었다. 그러고는 요괴들을 거느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돌문을 굳게 닫아걸었다. 승리했다고 생

각한 흥해아는 작은 요괴들에게 잔치를 차리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며, 웃음꽃을 피우며 기쁨을 나누었다.

한편, 손오공이 고송간을 뛰어넘어 구름을 낮게 내려놓으니, 소나무 사이에서 저팔계와 사오정이 또랑또랑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오공이 다가가 저팔계에게 호통을 쳤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너는 정말 인정머리라곤 없구나! 요괴의 불이 무섭다고 저 살자고 도망쳐 달아나면서 이 몸을 버려두고 가다니. 그나마 내가 좀 분별(수완)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형님은 저 요괴의 말에 홀려서 정말 시세를 모르시는군요. 옛말에 '시세를 잘 아는 사람을 준걸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저 요괴가 형님과 친척도 아닌데 억지로 친척이라 우기시더니, 결국 싸움이 붙어서 저렇게 무정한 불을 내뿜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계속 싸우려 하시다니요."

손오공이 물었다.

"그 요괴의 수단이 나와 비교하면 어떻더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별로입니다."

"창술은 나와 비교하면 어떻더냐?"

저팔계가 다시 말했다.

"그것도 별로입니다. 이 몸이 보기에 그놈이 버티기 힘들어 보이기에 갈퀴로 한 번 거들어 주려 했는데, 웬걸, 그놈이 장난도 알아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패해 달아나더니, 도리도 없이 불을 질러버리더군요."

손오공이 말했다.

"바로 네가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다시 몇 합 더 싸우면서 재치 있게 한 방 먹였다면 좋지 않았겠느냐?"

두 사람은 그 요괴의 수단이 어떠한지, 그 불길이 얼마나 독한지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었다. 사오정은 소나무 뿌리에 기대어 앉아 배를 잡고 웃어댔다.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이보게, 왜 그렇게 웃는 거야? 자네는 무슨 대단한 수단이라도 있어서 저 요괴를 잡고 불길을 뚫을 수 있다는 건가?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란 말일세. 옛말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공을 세운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만약 자네가 요괴를 잡아서 스승님을 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네의 큰 업적이 될 걸세."

사오정이 대답했다.

"저도 딱히 수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요괴를 물리칠 능력도 없고요. 그저 두 분이 너무 서두르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웃겨서 그랬습니다."

손오공이 되물었다.

"내가 왜 당황했다는 거야?"

사오정이 말했다.

"저 요괴의 수단이 형님만 못하고 창술도 형님보다 못합니다. 그저 불길이 좀 더 셀 뿐이지요. 그래서 이기지 못한 것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물의 상생상극(相生相剋, 서로 돕거나 제압하는 이치)의 원리를 이용해 저놈을 잡으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자네 말이 맞네! 우리가 정말 너무 서두르느라 이 당연한 이치를 잊고 있었구먼. 상생상극의 원리로 따지자면 모름지기 물로 불을 제압해야 하는 법이지. 어디서 물을 좀 구해다가 저 요괴의 불길을 꺼버린다면, 스승님을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사오정이 거들었다.

"그렇고말고요.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손오공이 명령했다.

"자네들은 여기 머물며 저놈과 선불리 싸우려 들지 말게. 내가 동양 대해로 가서 용왕의 군사를 빌려 물을 가져올 테니, 그 물로 요괴의 불길을 끄고 저 고약한 놈을 잡아버리겠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저희가 여기서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홀룡하도다 대성이여!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이곳을 떠나 순식간에 동양대해에 이르렀다. 그러나 바다 경치를 구경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기에, 곧바로 물을 가르느 법술(逼水法)을 써서 파도를 갈라 길을 만들었다. 한창 나아가던 중 바다를 순찰하던 야차 하나와 마주쳤는데, 그 야차가 손오공임을 알아보고는 급히 수정궁으로 돌아가 늙은 용왕에게 보고했다.

오광은 즉시 용자들과 용손들, 그리고 새우 병사와 게 졸들을 거느리고 나와 손오공을 맞이하며 안으로 모셔 앉혔다. 자리에 앉아 예를 마치고 차를 권하자 손오공이 입을 열었다.

"차는 됐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서 왔소. 내 스승인 당승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던 중, 호산의 고송간 화운동에 사는 홍해아라는 요괴를 만났소. 성영대왕이라 불리는 그놈이 내 스승을 잡아갔단 말이오. 내가 동굴 근처까지 찾아가 맞서 싸워보려 했으나, 그놈이 불을 내 뿜는 바람에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소. 물이 불을 이길 수 있을 듯하여, 그곳에 큰비를 내려 불을 꺼뜨리고 당승의 이 재난을 구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러 왔소."

그러자 용왕이 말했다. "대성, 착각하셨소. 빗물을 구하려면 나에게 물을 게 아니오."

손오공이 대꾸했다. "당신은 사해의 용왕으로서 비와 이슬을 다스리는 분인데, 당신에게 묻지 않으면 누구에게 물으란 말이오?"

용왕이 답했다. "내가 비를 다스리기는 하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소. 반드시 옥황상제의 뜻이 있어야 하오. 어느 곳에 몇 자 몇 치의 비를 내릴지, 몇 시부터 그칠지를 정해야 하고, 삼관(三官)이 붓을 들어 기록하고 태을(太乙)이 문서를 옮겨야 하며, 뇌공과 전모, 풍백과 운동에게도 명령을 내려야 하오. 속담에 이르기를 '용이라도 구름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소."

손오공이 말했다. "나는 바람이나 구름, 번개나 천둥 따위는 필요 없소. 그저 불을 끌 빗물만 있으면 되오."

용왕이 말했다. "대성께서 바람과 구름이 필요 없다 하셔도, 나 혼자서는 힘을 보탤 수가 없소. 대신 내 동생들을 불러 대성을 도와 공을 세우게 하면 어떻겠소?"

손오공이 물었다. "그 동생들이 어디 있소?"

"남해 용왕 오흠, 북해 용왕 오윤, 서해 용왕 오순이 있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세 바다를 다 돌아다닐 바에는 차라리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의 뜻을 구하는 게 빠르겠구려."

용왕이 말했다. "대성께서 직접 가실 필요 없소. 내 여기서 철북과 금종을 울리면 그들이 순식간에 달려올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외쳤다. "좋소, 용왕 어른! 어서 종과 북을 울려 주시오!"

순식간에 사해의 용왕들이 모두 물려와 물었다. “형님, 저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시려 합니까?” 오광이 대답했다. “손오공 대성이 요괴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비를 빌리러 왔네.” 세 용왕이 손오공을 안으로 안내했고, 손오공은 물을 빌려야 하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신선들은 모두 기쁘게 따르겠다며 즉시 병사들을 소집했다.

상어는 용맹하게 앞장서고, 잉어는 입이 커서 선봉으로 나선다. 잉어 원수는 파도를 일으키며 뛰어오르고, 붕어 제독은 안개와 바람을 내뿜는다. 고등어 태위는 동쪽에서 신호를 보내고, 송어 도사는 서쪽 길에서 진군을 재촉한다. 붉은 눈의 말상어는 남쪽에서 춤을 추고, 검은 갑옷의 장군은 북쪽으로 돌격한다. 넙치 방통은 중군을 지휘하고, 다섯 방위의 병사들은 곳곳에서 영웅들이다. 기교를 부리며 종횡무진하는 자는 기밀을 다루는 자요, 오묘한 계산으로 신비로움을 더하는 자는 거북 대감이다. 지략이 뛰어난 악어 승상과 변화무쌍하고 능력이 출중한 자는 자라 총융이다. 게 병사들은 장검을 휘두르며 횡행하고, 새우 여사들은 강궁을 잡아당기며 힘차게 뛰어오른다. 은어 외랑은 명부를 조사하며, 용병들을 점검하여 파도 너머로 출정시킨다.

이를 증명하는 시로 이르되,

사해의 용왕들이 공을 세우길 기뻐하며 제천대성의 청을 기쁘게 따르도다. 오직 당승의 여정이 험난하니 물을 빌려 와서 붉은 불길을 멸하려 하도다.

손오공이 용병들을 거느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송간에 도착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오씨 성을 가진 용왕님들, 번거로운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이곳은 요괴가 사는 곳이니, 여러분은 공중에 머물며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저와 저 요괴가 직접 맞붙어 승부를 겨룰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기면 여러분이 나서서 잡을 필요가 없고, 제가 지더라도 여러분이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놈이 불을 뿜을 때 제가 부르면 그때 한꺼번에 비를 뿌려 주십시오."

용왕들은 모두 그 명령을 받들었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 저팔계와 사오정을 발견하고는 "형제들!" 하고 외치며 불렀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정말 빨리 오셨네요. 용왕님들은 모셔 왔나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모두 왔어. 너희 둘은 조심하고 있어라. 비가 많이 와서 짐이 젖을까 걱정이구나. 나는 저놈과 한판 붙고 오마."

사오정이 말했다. "사형,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저희가 잘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손오공이 계곡을 뛰어넘어 동굴 문 앞에 도착해 외쳤다. "문 열라!"

그러자 소요괴들이 달려가 보고했다. "손오공이 또 왔습니다!"

홍해아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그 원숭이 놈은 아까 불길 속에서도 타 죽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또 찾아온 게로

다. 이번에는 절대로 봐주지 말고, 아주 가족이 타고 살점이 문드러질 때까지 태워버려야겠다!"

말을 마친 홍해아는 몸을 날려 긴 창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얘들아, 불수레를 끌고 나와라!"

홍해아는 문을 나서며 손오공에게 물었다. "너는 또 무슨 일로 왔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내 스승님을 돌려줘라!"

요괴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 참으로 융통성이 없구나. 그 당승은 너에게는 스승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술안주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도 아직 그를 되찾을 생각을 하다니,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몹시 화가 치밀어 올라, 금고봉을 뽑아 들고 곧장 머리부터 내리쳤다. 요괴 역시 불타는 창을 휘두르며 급히 맞서 싸웠다. 이번 싸움은 지난번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야말로 격렬한 싸움이었다!

시로 이르되,

성난 기세로 날뛰는 요괴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원숭이 왕이 맞붙었네. 한쪽은 오로지 경전을 구하려는 승려를 구하려 하고, 한쪽은 당삼장을 잡아먹으려 달려드네. 마음이 변하니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정마저 멀어지니 의리도 없구나. 이쪽은 당장이라도 생포해 가족을 벗

기려 하고, 저쪽은 당장이라도 잡아다가 간장에 찍어 먹으려 하네. 참으로 대단한 영웅들이요, 과연 용맹하기 짝이 없구나. 몽둥이와 창이 오가며 승부를 겨루고, 창이 나가면 몽둥이가 맞서며 위아래를 다투네. 손을 들어 스무 번을 휘두르니, 두 사람의 실력이 막상막하로구나.

요괴 왕과 손오공이 스무 합을 넘게 싸웠으나,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홍해아는 짐짓 창을 휘두르는 척하며 급히 몸을 뺐다. 그러고는 주먹을 쥐고 코를 두어 번 툭툭 치더니, 갑자기 불길을 뿜어냈다. 그러자 동굴 문 앞의 수레에서 연기와 불꽃이 튀어 올랐고, 홍해아의 입과 코에서는 붉은 불꽃이 치솟았다.

손오공이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용왕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용왕 형제들이 물속의 수족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요괴가 뿜어내는 불길 속으로 비를 뿌려 내렸다. 참으로 반가운 비였다! 시로 이르되,

소슬소슬 내리는 빗줄기, 뽀뽀하게 쏟아지네. 소슬소슬 내리는 빗줄기, 하늘 끝에서 별이 떨어지는 듯하고, 뽀뽀하게 쏟아지는 빗줄기, 바다 끝에서 파도가 뒤집혀 구르는 듯하구나. 처음에는 주먹만 하더니, 나중에는 항아리를 엮은 듯, 대야를 쏟은 듯 쏟아지네. 땅 위에는 물이 흘러 오리 머리까지 푸르스름하고, 높은 산은 씻겨 내려와 부처의 머리처럼 푸르구나. 골짜기에는 물이 날아올라 천 길 옥빛을 띠고, 시냇물은 넘실거리며 만 갈래 은빛 물결이로다. 삼거리 길목은 물로 가득 차고, 굽이치는 시냇물은 점차 잔잔해지네. 이것은 당승이 위기에 처하자 신

령한 용이 도와준 것이니, 천하의 강물을 뒤엎어 아래로 쏟아부었다고.

쏟아지는 빗줄기가 아무리 굵고 거세다 한들, 요괴가 내뿜는 불길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원래 용왕이 내리는 비는 사적인 비라, 그저 속세의 불을 끄는 정도에 불과하니, 요괴의 삼매진화를 어찌 끝낼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 비를 뿌릴수록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주문을 외워 불 속으로 뛰어들 테니, 이 몽둥이로 요괴를 찾아내어 때려주마!" 그러고는 철봉을 휘두르며 요괴를 찾아 나서려 했다. 그런데 요괴가 손오공이 오는 것을 보고는 연기를 한 입 가득 머금어 얼굴을 향해 뿜어냈다. 손오공이 급히 고개를 돌렸으나, 눈앞이 어지럽고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사실 손오공은 불은 무서워하지 않았으나 연기는 무서워했다. 옛날 천계에서 난동을 부릴 때, 태상노군이 그를 팔괘로 안에 넣어 달구었던 적이 있었다. 다행히 바람이 부는 방향인 손(巽) 자리에 몸을 숨긴 덕분에 몸이 타지는 않았으나, 바람이 연기를 몰아오는 바람에 눈이 타버려 지금의 '화안금정(불꽃처럼 빛나는 금빛 눈)'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기만 보면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었다. 요괴가 다시 한번 연기를 뿜어내자, 손오공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구름을 타고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요괴왕은 불을 뿜는 도구를 거두고 다시 동굴로 돌아갔다.

제천대성은 온몸에 불기운이 일어 타는 듯한 열기를 견딜 수 없어, 불을 끄려고 곤장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어찌 알았으랴, 차가운 물이 닿는 순간 화기가 심장을 치받아 삼혼(三魂)이 몸을 빠져 나갈 지경이 될 줄을.

가련하도다, 기운이 가슴을 막아 혀와 목구멍이 차갑게 식고, 혼백이 흩어져 남은 목숨마저 잃을 판이었다.

그 광경을 본 사해 용왕들은 허겁지겁 공중에서 내리던 비를 거두며 큰 소리로 외쳤다. "천봉원수와 권렴장군은 숲속에 숨어 있지 말고, 어서 나와 그대들의 사형을 찾으시오!"

저팔계와 사오정은 누군가 성스러운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급히 말에서 내려 짐을 짊어진 채 숲을 달려 나왔다. 진흙탕 길인 줄도 모르고 계곡을 따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던 중, 물결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급류 속에서 한 사람이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했다. 사오정이 이를 보고 옷도 채 갈아입지 못한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람을 안고 육지로 올라왔는데, 바로 손오공이었다. 아! 보라, 손오공은 사지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오정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사형,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장생할 줄 알았던 분이, 어찌하여 이리도 허망하게 목숨을 잃으려 하십니까."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이보게, 너무 울지 말게나. 이 원숭이가 죽은 척하면서 우리를 놀래키는 걸세. 자, 한번 만져보게. 가슴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지 말이야."

사오정이 대답했다. "온몸이 다 차갑네. 아주 미세한 온기만 느껴질 뿐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나?"

저팔계가 말했다. "이 친구는 일흔두 가지 변화술을 부리니, 목숨도 일흔두 개나 되는 법이라네. 자네는 다리를 붙잡게, 내가 어떻게 좀 해 볼 테니."

정말로 사오정이 다리를 붙잡고, 저팔계가 머리를 받쳐 들며 손오공의 몸을 똑바로 펴서 발을 올린 뒤 가부좌를 틀고 앉혔다. 저팔계는 양손을 세게 비벼 열을 낸 뒤, 손오공의 일곱 구멍을 막고 안마하는 법을 쓰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손오공은 차가운 물에 휩쓸려 기운이 단전(丹田)에 막히는 바람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저팔계가 정성껏 문지르고 주무르자, 잠시 후 기운이 삼관(三關)을 통과해 명당(明堂)으로 흐르고 막혔던 구멍들이 뚫리며 손오공이 비명을 질렀다.

"스승님!"

사오정이 말했다. "사형, 살아나셨군요!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실 때나 입만 열면 스승님이라니요. 어서 정신 차리세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손오공이 눈을 뜨며 말했다. "형제들이 여기 있느냐? 이 몸이 큰 손해를 보았구나."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잠시 정신이 나갔던 모양이구려. 이 몸이 구해내지 않았더라면 벌써 끝장날 뻔했으니, 어서 고맙다고 말하게 나."

손오공이 몸을 일으켜 하늘을 우리러보며 말했다. "오씨 형제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사해의 용왕들이 공중에서 대답했다. "소룡들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먼 길 오느라 고생만 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구나. 일단 돌아가 있거라. 다음에 다시 사례하마." 용왕들은 수중 생물들을 거느리고 끝없이 넓은 물결을 일으키며 돌아갔고, 이야기는 일단락되었다.

사오정이 손오공을 부축하여 함께 소나무 숲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오공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호흡을 가다듬었으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러다 손오공이 울먹이며 외쳤다.

"스승님!

옛날 대당 땅을 떠나올 때를 떠올려 봅니다. 바위 앞에서 저를 구해주시던 그 은혜를 말입니다. 세 곳의 산과 여섯 곳의 물을 지나며 마귀의 방해를 받았고, 온갖 고통과 시련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바루를 들고 얻은 음식의 양에 따라 아침을 해결하고, 선법을 닦으며 저녁에는 숲이나 마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로지 깨달음의 열매

를 맺기만을 한마음으로 바랐거늘, 오늘 이토록 모진 고통을 겪게 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른 계책을 세워서, 어디 가서 병력을 좀 빌려와 스승님을 구해야 합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어디서 도움을 빌려온단 말이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예전에 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당승을 보호하라고 명하시면서, 하늘에 부르짖으면 하늘이 응답하고 땅에 부르짖으면 땅이 응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디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예전에 천계에서 난동을 부릴 때만 해도 신병들이 나를 전혀 막지 못했지. 그런데 이 요괴는 신통력이 예사롭지 않구나. 분명 나보다 수단이 더 좋은 녀석이라야 저놈을 잡을 수 있을 게다. 천신들도 안 되고 지살(地煞)들도 안 된다면, 저 요괴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음보살을 모셔와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내 몸이 온통 저리고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근두운을 타고 날아갈 수가 없으니, 대체 어떻게 가서 모셔오겠느냐?"

그러자 저팔계가 나섰다. "뭐라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라면 갈 수 있겠구나. 보살님을 뵈거든 절대로 우러러보지 말고, 그저 고개를 숙여 예불을 드려라. 보살님이 물으시면 지명과 요괴의 이름을 말씀드리고, 스승님을 구해달

라고 청하거라. 보살님이 오시겠다고 하면 분명 저 괴물을 잡아주실 게다."

저팔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구름을 타고 남쪽을 향해 떠났다.

한편, 요괴 왕은 동굴 안에서 기뻐하며 말했다. "얘들아, 손오공 녀석이 당하고 도망갔다! 이번에는 죽이지는 못했어도 정신을 아주 쏙 빼놓았으니 잘된 일이다. 어라? 혹시 또 구원병이라도 불러오는 건 아니겠지? 어서 문을 열어라. 그놈이 누구를 불러오는지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

요괴들이 문을 열자, 요괴(홍해아)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살펴보았다. 그가 보니 저팔계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요괴는 남쪽에는 달리 갈 곳이 없으니 틀림없이 관세음보살을 모시러 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급히 구름을 내리며 외쳤다. "얘들아, 내 가족 주머니를 찾아오너라! 오랫동안 쓰지 않아 입구 끈이 헐거워졌을지 모르니, 새 끈으로 갈아 끼워서 둘째 문 아래에 두어라. 내가 가서 저팔계를 속여 데려온 다음, 주머니에 넣어 아주 흐물흐물하게 찌서 너희에게 상으로 주마!"

알고 보니 그 요괴에게는 뜻대로 다루는 여의(如意) 가족 주머니가 하나 있었다. 소요괴들이 주머니를 가져와 끈을 새로 갈아 끼운 뒤, 동굴 문 안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한편, 그 요괴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지리에 매우 밝았다. 어느 길로 가야 남해에 가까운지, 어느 길로 가야 멀어지는지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지름길을 택해 구름을 타고 저팔계를 앞질러 간 뒤, 바위 위에 단정히 앉아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저팔계를 기다렸다.

저팔계가 구름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보살의 모습을 발견했다. 하지만 저팔계가 어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저 보살의 형상을 보고 부처님인 줄로만 알았다. 어리숙한 저팔계는 구름을 멈추고 절을 올리며 말했다.

"보살님, 제자 저팔계가 머리를 조아려 문안드립니다."

요괴가 말했다.

"너는 당승을 모시고 불경을 구하러 가야 할 놈이, 나를 보고 무슨 볼일이 있어 찾아왔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제자가 스승님을 모시고 길을 가던 중, 호산(號山) 고송간 화운동에 홍해아라는 요괴가 있어 저희 스승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형님 일행이 그곳으로 찾아가 싸웠지요. 그런데 그놈이 원래 불을 잘 다루는 놈이라,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는 용왕님께 부탁해 비를 내리게 했지만, 그 불길을 꺼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형님은 그 불에 데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기에,

제자가 보살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스승님을 구해 주시옵소서."

요괴가 말했다.

"그 화운동의 주인은 생명을 해치는 놈이 아니니, 분명 너희가 그를 건드린 것이겠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저는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손오공 형님이 건드린 것이지요. 그놈이 어린아이로 변해 나무에 매달려 저희 스승님을 시험했습니다. 스승님은 마음이 워낙 착하셔서 저더러 아이를 내려달라 하시고, 형님더러 잠시 엎어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아이를 덥석 내려놓자마자, 그놈이 바람을 일으켜 스승님을 낚아채 갔습니다."

요괴가 말했다.

"일어나거라. 나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가 동굴 주인을 만나보자꾸나. 내가 그에게 사정을 잘 말해줄 테니, 네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드리고 스승님을 데려오도록 해라."

저팔계가 말했다.

"보살님, 만약 저희 스승님을 돌려주시기만 한다면 절이라도 올리겠습니다."

요괴가 말했다.

"따라오너라."

어리숙한 저팔계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그를 따라 예전 길로 되돌아갔다. 남해로 향하는 대신 곧장 화운동 입구로 향하니, 순식간에 문앞에 다다랐다. 요괴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의심할 것 없다. 이놈은 내 오랜 친구니 너희도 어서 들어오너라."

저팔계는 하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괴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저팔계를 덮쳐 쓰러뜨리더니, 그를 자루 속에 집어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어 짐 등에 높이 매달아 버렸다. 요괴가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 가운데 앉으며 말했다.

"저팔계, 네놈이 무슨 수로 당승의 불경 수행을 지키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감히 보살님을 불러 나를 굴복시키려 하느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아라, 내가 바로 성영대왕이다! 너를 잡아다가 서너 날 동안 매달아 놓은 뒤, 폭 삶아서 내 소요괴들에게 안주로 상을 내리겠다."

그 말을 들은 저팔계가 자루 속에서 욕을 퍼부었다.

"이 못된 요괴 놈아! 정말 예의라곤 눈곱만큼도 없구나! 네가 아무리 온갖 꾀를 써서 나를 속였다 한들, 너희 모두 머리가 통통 부어 터지는 천벌을 받게 될 줄 알아라!"

저팔계는 안에서 끊임없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댔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한편, 손오공과 사오정이 마주 앉아 있는데, 갑자기 비릿한 바람 한 줄기가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손오공은 재채기를 크게 한 번 하더니 말했다.

"아차, 큰일 났네! 이 바람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은 걸 보니, 분명 저 팔계가 길을 잘못 들었나 보군."

사오정이 물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텐데 왜 이럴까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보아하니 요괴를 만난 모양이야."

사오정이 다시 말했다.

"요괴를 만났으면 얼른 도망쳐 돌아와야지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나. 너는 여기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거라. 내가 저 계곡 너머로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마."

사오정이 투덜거렸다.

"형님은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또 요괴에게 당하실까 봐 걱정되니, 차라리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편잔을 주었다.

"너는 하는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나더러 가라니!"

손오공은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아가며 여의봉을 짚은 채 계곡을 지나 화운동 앞에 이르렀다. 그는 입을 크게 벌려 "이 고약한 요괴 놈아!" 하고 외쳤다. 그러자 문을 지키던 소요가 급히 안으로 달려 들어가 보고했다. "대왕님, 손오공이 또 문 앞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요괴 왕이 즉시 명령을 내려 잡아 가두라고 했다. 소요들이 창과 칼을 들고 떼로 몰려나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문을 열고는 "잡아라, 잡아라!" 하고 외쳤다. 손오공은 정말로 기운이 다 빠져 감히 맞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길가로 몸을 숨기더니 주문을 외우며 "변해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순식간에 금실로 장식된 보따리로 변했다. 소요들이 이를 보고 얼른 챙겨 안으로 들어갔다. 한 소요가 보고했다. "대왕님, 손오공이 겁을 먹었습니다. '잡아라' 소리가 들리자마자 당황해서 보따리를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요괴 왕이 웃으며 말했다. "그 보따리에 별 대단한 보물이 들어있겠느냐? 보나 마나 스님이 입던 해진 옷가지나 낡은 모자 같은 것들이겠지. 일단 안으로 들여와서 뜯어보고 옷을 기우는 데나 쓰자." 한 소요가 정말로 그 보따리를 등에 메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손오공이 변신한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손오공이 속으로 말했다. '좋아, 이제 이 금실 보따리를 등에 메고 들어오너라.' 요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보따리를 동굴 안으로 던져 버렸다.

손오공은 가짜 속에 또 가짜를 섞고, 허상 속에 또 허상을 만드는 기묘한 수를 냈다. 곧 털 한 가닥을 뽑아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

니 보따리 모양으로 변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본체를 파리 한 마리로 변신시켜 문지도리에 딱 붙여 놓았다.

한편, 저팔계가 어디선가 끙끙대며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분명치 않아 마치 병든 돼지가 내는 소리 같았다. 손오공이 웅하고 날아가 찾아보니, 저팔계는 정말로 가죽 주머니 속에 매달려 있었다.

손오공이 가죽 주머니에 딱 붙어 있는 사이, 저팔계가 요괴를 향해 이런저런 험한 욕을 퍼부으며 투덜거렸다.

"이 요괴 놈아! 어찌 감히 관세음보살로 변신해서 나를 속여 이곳으로 불러들인 뒤, 이 주머니에 가둬놓고 잡아먹겠다고 하느냐! 언젠가 내 사형이,

제천대성의 무량한 법술을 크게 펼쳐 온 산의 요괴들을 때맞춰 모조리 사로잡고, 이 가죽 주머니를 풀어 나를 내놓아 주기만 하면, 내 쇠스랑으로 너를 천 번은 내리쳐야 비로소 속이 시원하겠다!"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이 여기서 화를 삼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세가 꺾인 건 아니구나. 내가 반드시 저 요괴를 잡아내고 말겠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원통함을 풀겠느냐.'

손오공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저팔계를 구해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때 요괴 왕의 외침이 들려왔다.

"여섯 장수는 어디 있느냐?"

그의 측근이자 정령인 여섯 명의 소요괴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장수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다. 이름은 윤리무, 무리운, 급여화, 쾌여풍, 흥흥헌, 헌흥흥이었다. 여섯 장수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요괴 왕이 물었다. "너희는 큰 어르신을 아느냐?"

여섯 장수가 대답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괴 왕이 다시 명령했다. "너희는 밤낮을 가리지 말고 큰 어르신을 찾아가 모셔 오너라. 내가 여기서 당승을 잡아 찌서 함께 먹으면 천 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해라."

여섯 요괴는 명을 받들고는 서로 이끌고 끌며 서둘러 동굴 밖으로 나갔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은 "잉!" 하고 소리를 내며 보파리 속에서 튀어나와, 여섯 요괴를 뒤쫓아 동굴을 빠져나갔다.

결국 도대체 어떤 연유로 모셔 오게 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2회 — 대성께서 남해를 정중히 배알 하고, 관음보살이 자비로써 홍해아를 결 박하다

大聖殷懃拜南海 觀音慈善縛紅孩

이야기는 이러하다. 여섯 장수가 동굴 문을 나서서 곧장 서남쪽 길을 따라 내려갔다. 이를 지켜보던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이 큰왕을 모셔다가 우리 스승님을 잡아먹자고 하는 걸 보니, 그 큰왕은 분명 우마왕일 것이다. 내가 예전에 우마왕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주 잘 맞고 우정도 매우 두터웠다. 나는 이제 바른 길로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요괴로 살고 있구나. 비록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우선 내가 우마왕으로 변신해서 저놈을 한번 속여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자.'

손행자는 여섯 요괴를 따돌린 뒤, 날개를 펼쳐 앞으로 날아갔다. 요괴들과는 십여 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자, 그는 몸을 흔들며 우마왕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이어 자신의 털을 몇 가닥 뽑아 들고 "변해라!" 하

고 외치니, 곧 여러 명의 작은 요괴로 변했다. 그는 산골짜기 움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매를 받쳐 들고 사냥개를 끌며 쇠뇌를 메고 활을 당겨, 마치 물이사냥을 나온 듯한 모양새를 꾸미고 여섯 장수를 기다렸다.

그 무리가 서로 끌어당기며 길을 가던 중, 문득 우마왕이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흥흥흥(興烘掀)과 혼흥흥(掀烘興)이 혼비백산하여 털썩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아이고, 대왕님께서 여기 계셨군요!"

운리무(雲裡霧)·무리운(霧裡雲)·급여화(急如火)·쾌여풍(快如風) 역시 모두 평범한 육안의 범상한 무리인지라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지 못한 채, 다 함께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왕님, 저희는 화운동의 성영대왕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들입니다. 대왕님을 모시고 가서 당승의 고기를 먹으며 천 년의 수명을 누리시라고 명을 받았습시다."

손오공이 핑계를 대며 대답했다. "애들아, 그만 일어나거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옷부터 갈아입고 오자꾸나."

그러자 작은 요괴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다. "대왕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굳이 집까지 돌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길이 너무 멀어 저희 대왕님께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워니, 그냥 이대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착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좋다, 좋다. 앞장서거라. 내가 같이 가마."

여섯 요괴는 기운을 내어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손오공도 그 뒤를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소굴에 도착했다. 쾌여풍(快如風)과 급여화(急如火)가 동굴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외쳤다. "대왕님께 보고드립니다! 큰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요괴 왕인 홍해아가 기뻐하며 말했다. "너희가 제법 쓸모가 있구나, 정말 빨리도 왔구나." 홍해아는 즉시 각 부대 우두머리들에게 명령하여 대열을 갖추고 깃발과 북을 세워 큰 어르신을 맞이하게 했다. 동굴 안의 모든 요괴는 명을 받들어 질서 정연하게 밖으로 나와 줄을 섰다. 손행자는 위풍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몸을 한 번 흔들더니, 사냥개나 매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털들을 모두 본래의 몸으로 거두어들였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동굴 남쪽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홍해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아버님, 소자 홍해아, 문안 올립니다." 손행자가 말했다. "예법은 생략해도 좋다." 요괴 왕은 네 번 절을 올린 뒤 아랫자리에 섰다. 손행자가 물었다. "얘야,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야?" 요괴 왕이 몸을 굽히며 말했다. "소자가 재주가 부족하여 어제 사람 하나를 잡았습니다. 바로 동토 대당에서 온 스님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은 열 번의 생을 거쳐 수행한 분이라, 그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으면 봉래·영주의 신선처럼 영원히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련한 소자는 감히 혼자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해, 특별히 아버님을 모셔 당승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고 천 년의 수명을 누리고자 합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이야, 그 당승이라는 자가 누구냐?" 요괴 왕이 대답했다.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사

람입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아이야, 혹시 손오공의 스승이냐?” 요괴 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를 건드리지 마라, 절대 건드리지 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손오공은 보통내기가 아니란 말이다. 네가 아직 그를 꺾어보지 못해서 모르나 본데, 그 원숭이는 신통력이 엄청나고 변화무쌍하기 이를 데 없다. 예전에 천계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을 때, 옥황제가 십만 천병을 보내 그물을 촘촘히 짜고 뒤쫓았어도 끝내 잡지 못했던 말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 감히 그 스승을 잡아먹으려 하느냐? 어서 빨리 내보내서 돌려주거라. 그 원숭이를 건드리지 마라. 만약 네가 제 스승을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놈은 너와 싸우러 오는 게 아니라 금고봉을 휘둘러 산허리에 구멍을 뚫어버리고 산 전체를 통째로 들어서 치워버릴 게다. 아이야, 그러면 네가 대체 어디서 살겠느냐? 내가 늙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란 말이냐?”

요괴 왕이 말했다.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남의 기운만 북돋아 주고 제 위신만 깎아내리시는군요. 그 손오공에게는 형제가 세 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당승을 데리고 제 산 중턱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변신술을 써서 그 스승을 낚아챘지요. 그때 손오공과 저팔계가 제 문 앞까지 찾아와서 친한 척하며 아는 체를 하기에,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몇 차례 싸워주었더니 별거 아니더군요. 대단한 고수도 아니었습니다. 저팔계가 비겁하게 뒤에서 덤기에 제가 삼매진화(신령한 불)를 내뿜어 한바탕 혼쭐을 내주었지요. 저팔계는 당황해서 사해 용왕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청했지만, 제 삼매진화를 끄지는 못했고, 도리어 제

불에 살짝 그을려 정신이 혼미해진 채 황급히 저팔계를 시켜 남해 관음보살을 모셔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음보살로 변신해 저팔계를 속여 데려와 지금 여의주머니(如意袋)에 매달아 두었으니, 그놈도 줄개들과 함께 찌 먹을 걱정입니다. 그 손오공이 오늘 아침에 다시 제 문 앞까지 와서 떠들어 대기에, 요괴들에게 명령해 잡아 오라고 했더니 겁을 먹고는 짐 보따리까지 내팽개친 채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승이 멀쩡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 아버님과 함께 찌 먹으며 장수하고 불로장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보게, 자네는 저놈을 이길 수 있는 삼매화(신령한 불)만 믿고 있지, 저놈에게 일흔두 가지 변화술이 있다는 건 모르는 모양이군."

요괴 왕이 대답했다. "그놈이 아무리 변신을 잘한다 한들 내가 모를 리 있겠나? 감히 내 문턱을 넘을 엄두도 못 낼 걸세."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이보게, 자네가 저놈을 알아본다 해도 저놈은 몸집을 키우는 식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야. 늑대나 코끼리처럼 커지면 자네 문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겠지만, 만약 아주 작게 변한다면 자네가 어떻게 알아채겠나?"

요괴 왕이 호언장담했다. "그놈이 아무리 작게 변한들 소용없네. 내 동굴 문마다 요괴 넷이나 다섯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그놈이 어떻게 들어온단 말인가?"

손오공이 말했다. "자네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저놈은 파리나 모기, 벼룩은 물론이고 꿀벌이나 나비, 심지어는 메뚜기 같은 작은 벌

레로도 변할 수 있네. 게다가 내 모습으로 변신하기라도 하면 자네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나?"

요괴 왕이 말했다. "걱정 말게. 그놈이 아무리 강철 같은 심장을 가졌다고 한들, 감히 내 문 근처에도 오지 못할 테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말씀을 들어보니 참으로 대단한 재주를 가지셨구려. 그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그놈을 상대할 수 있겠소. 그래서 나에게 당승의 고기를 같이 먹자고 청하는 모양인데, 안타깝게도 나는 오늘 먹을 수가 없소."

성영대왕이 물었다. "어찌하여 못 먹는다는 말시오?"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가 요사이 나이가 들어서, 그대의 어머니께서 늘 선한 일을 하라고 권하시더군. 그래서 어떤 선행을 베풀까 고민하다가, 우선은 재계(齋戒,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음식을 삼가는 일)를 지키기로 했소."

성영대왕이 다시 물었다. "아버님께서서는 매일 재계를 지키시는 것이오, 아니면 달마다 지키시는 것이오?"

손오공이 말했다. "매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달마다 지키는 것도 아니오. '뇌재(雷齋)'라고 하는데, 한 달에 딱 나흘만 지키는 것이라오."

성영대왕이 궁금하여 물었다. "그 나흘이 언제란 말시오?"

손오공이 답했다. "신(辛)자가 들어가는 날의 초엿새라오. 마침 오늘이 신유(辛酉)일이니, 첫째로 재계를 지켜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 둘

째로는 유(酉)의 기운이 손님을 맞이하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이오. 그러니 내일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직접 가서 그놈을 깨끗이 씻고 찌서 그대들과 함께 나누어 먹겠소.”

그 요괴 왕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평소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아오셨고, 이제 천 살 넘게 사셨는데, 어찌 갑자기 채식을 하신단 말인가? 예전에 저지른 악행이 산더미 같은데, 고작 삼사일 금욕한다고 그 죄가 씻기겠는가? 분명 거짓말이다. 의심스럽구나, 의심스러워.'

홍해아는 즉시 이문 밖으로 걸어 나가 여섯 장수에게 물었다. "너희가 모셔온 저 우두머리 왕은 어디서 모셔온 것이냐?" 요괴가 대답했다. "오는 길에 모셔왔습니다." 홍해아가 다시 물었다. "너희가 참 빨리도 왔구나. 그럼 집에는 들르지 못한 것이냐?" 요괴가 말했다. "예, 집에는 들르지 못했습니다." 홍해아가 외쳤다. "큰일 났다! 우리가 저놈의 속임수에 넘어갔구나. 저자는 우마왕이 아니다!"

요괴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왕님, 친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겁니까?" 홍해아가 말했다. "겉모습이나 행동거지는 다 똑같지만, 말하는 게 영 수상쩍구나. 자칫 저놈의 속임수에 넘어가 우리가 큰코다칠까 두렵다. 너희는 모두 주의하라. 칼을 쓸 줄 아는 자는 칼을 뽑아 들고, 창을 쓸 줄 아는 자는 창을 날카롭게 갈아라. 몽둥이를 쓰는 자는 몽둥이를, 밧줄을 쓰는 자는 밧줄을 준비해라. 내가 다시 가서 말을 걸어보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다. 만약 정말 우마왕이 맞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이나 다음 달에 먹는다 해도 상관없다. 하지

만 만약 말이 맞지 않는다면, 내가 한 번 크게 소리 지를 것이니 그때 일제히 공격하라."

요괴들은 모두 명을 받들었다.

요괴 왕은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 손오공 앞에 다시 절을 올렸다.
손오공이 말했다.

“얘야, 우리 사이에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 할 말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하거라.”

요괴 왕은 바닥에 엎드려 말했다.

“우선 당승의 고기를 바치고자 청하옵고, 또 한 가지 여쭙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가로이 상서로운 빛을 타고 구만리 상공까지 날아갔을 때, 문득 조정의 도사 장 선생을 만났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게 천사가 되었다는 장도령을 말하는 것이냐?”

요괴 왕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더냐?”

요괴 왕이 말했다.

“그분이 제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생김새가 조화로운 것을 보시고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선생께서는 사주를 보는 데 아주 정통하시니 제 오행의 흐름을 살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쭙어보려 합니다. 혹시 다음에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제 사주를 좀 봐달라고 전해주십시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위에 앉아 속으로 비웃었다.

‘이놈 참 대단한 요괴로구나! 나 손오공이 불도를 닦으며 스승님을 모시고 길을 오며 요괴들을 여럿 잡아봤지만, 이놈처럼 영악한 놈은 처음 보네. 차라리 예의가 없다느니, 살림이 궁하다느니 하는 식의 뻔한 소리를 했다면 적당히 맞장구치며 넘겼을 텐데, 생년월일을 물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나?’

하지만 영리한 원숭이 왕답게 손오공은 겉으로는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위엄 있게 앉아, 오히려 반가운 기색을 띠며 웃으며 말했다.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내가 나이가 들어 요사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네 태어난 날을 잠시 잊었구나. 내일 집에 돌아가서 네 어머니께 여쭙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요괴 왕이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늘 제 사주팔자(八字)를 입에 달고 말씀하시며, 제가 하늘과 함께 늙지 않을 수명을 타고났다고 하셨는

데, 어찌 오늘 갑자기 그것을 잊으셨단 말인가?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분명 가짜임이 틀림없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요괴들이 창과 칼을 앞세워 손오공을 향해 무자비하게 달려들었다. 손오공은 여의금고봉(如意金箍棒)을 휘둘러 공격을 막아낸 뒤,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 요괴를 꾸짖었다. "이놈아, 도리도 모르는구나.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요괴 왕은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감히 손오공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손오공은 금빛 광채를 내뿜으며 요괴의 동굴을 빠져나왔다. 작은 요괴가 외쳤다. "대왕님, 손오공이 도망쳤습니다!"

요괴 왕이 말했다. "됐다, 됐다. 그냥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번에는 내가 한 번 당한 셈 치지 뭐냐. 어서 문을 닫아걸고 그놈과 더는 말도 섞지 마라. 그저 당승을 깨끗이 씻겨서 찌 먹을 준비나 하거라."

한편, 손오공은 철봉을 움켜쥔 채 허허허 크게 웃으며 계곡 저편에서 나타났다. 그 소리를 들은 사오정이 급히 숲에서 달려 나와 맞이하며 말했다.

"형님, 반나절이나 지나서야 돌아오시다니요. 어찌 그리 호탕하게 웃으십니까? 스승님을 구하러 가시는 길인가요?"

손오공이 말했다.

"아우야, 비록 스승님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 몸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했단다."

사오정이 물었다.

“유리한 고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알고 보니 저팔계가 그 요괴의 관음보살 변장술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은 가죽 주머니 속에 매달려 있더구나. 내가 어떻게든 구해내려는데, 뜻밖에도 그 요괴가 장수 여섯 명을 보내서 우두머리 왕을 모셔 오라며 스승님의 고기를 함께 먹자고 청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 우두머리 왕이 분명 우마왕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마왕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슬쩍 안으로 들어갔지.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놈이 아버님이라 부르면 내가 대답하고, 절을 하면 내가 그냥 받아주었다. 정말 신이 나서 아주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지.”

사오정이 걱정스레 말했다.

“형님, 겨우 그런 잔꾀를 부리시다니요. 그러다 스승님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두렵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가서 보살님을 모셔 오마.”

사오정이 말했다.

“아직 허리도 아프시다면서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제 안 아프다. 옛말에 ‘경사가 있으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짐이랑 말들을 잘 지키고 있거라, 내가 얼른 다녀오마.”

사오정이 말했다.

“원한을 사셨으니 요괴들이 스승님을 해칠까 걱정됩니다. 부디 빨리 다녀오셔야 해요.”

손오공이 말했다.

“금방 다녀올게. 밥 한 끼 먹을 시간 정도면 충분하단다.”

손오공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오정을 잠시 떠나, 곧장 근두운을 타고 남해로 향했다. 공중에서 반 시진쯤 날아가니 보타산의 풍경이 보였다. 잠시 후 구름을 낮추어 낙가야 절벽 위로 내려앉은 손오공이 엄숙한 태도로 예를 갖추자, 스물네 명의 제천신들이 그를 맞이하며 물었다.

"대성,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손오공이 예를 갖춘 뒤 대답했다.

"보살님을 뵙고자 합니다."

제천신들이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때 귀자모를 비롯한 여러 천신이 조음동 밖으로 나가 소식을 전했다.

"보살님, 손오공이 특별히 뵈기를 청합니다."

보고를 받은 보살이 즉시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했다. 손오공은 옷매 무새를 가다듬고 경건하게 예를 갖추며 안으로 들어가 보살 앞에 엎드려 절했다. 보살이 말했다.

"오공아, 네가 금선자를 따라 서방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지 않고,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보살님께 아뢰입니다. 제자가 당승을 보호하며 길을 가던 중, 고송간 화운동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성영대왕이라 불리는 홍해아라는 요괴가 있어 저희 스승님을 잡아갔습니다. 제자와 저팔계 등이 문 앞까지 쫓아가 싸워보았으나, 그놈이 삼매화(신령한 불)를 내뿜는 바람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스승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급히 동쪽 바다로 가서 사해 용왕들에게 비를 내려달라 청해보았지만, 그 불길을 이기지 못해 제자들까지 연기에 데어 죽을 뻔했습니다."

보살이 말했다.

"그 요괴가 삼매화를 다스릴 만큼 신통력이 대단하다면, 어찌 용왕들에게 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청하지 않았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본래 오려 했습니다만, 제자가 연기에 너무 심하게 데이는 바람에 구름을 타고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팔계를 보내 보살님을 모셔 오라고 했습니다."

보살이 물었다.

"저팔계가 오지 않았더냐?"

손오공이 답했다.

"그렇습니다. 저팔계가 보살님께 이르기도 전에, 그 요괴가 보살님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저팔계를 속여 동굴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지금은 가죽 주머니에 매달린 채 찌서 먹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말했다. "감히 저 요괴가 내 모습을 흉내 내다니!" 보살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보주와 정병을 바다 한가운데로 뱉다 던져버렸다.

그 기세에 손오공은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끼며, 얼른 일어나 보살 아래에서 곁을 지키며 말했다. "보살님, 화를 좀 가라앉히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이 마음에 안 들고 보살님의 덕을 해치는 것 같아 정병까지 던지시다니요. 참으로 아깝고 아쉽습니다. 차라리 저를 그냥 보내주셨다면 그게 훨씬 더 큰 덕을 쌓는 일이었을 텐데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바다 위로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더니, 정병 하나가 쭉 솟아올랐다. 알고 보니 괴물 하나가 정병을 등에 지고 나온

것이였다. 손오공이 정병을 지고 나온 괴물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리했다.

시로 이르되, 뿌리는 진흙에서 솟아나 빛을 발하니, 물밑에서 홀로 위엄을 드러내누나. 천지의 성품을 숨겨 알고, 귀신들의 기밀을 꿰뚫어 보네. 몸을 움츠리면 머리도 꼬리도 없으나, 다리를 퍼면 날아가는 듯 빠르구나. 문왕이 패를 그려 일찍이 점을 쳤고, 늘 궁정의 대 위에 놓여 복희와 짝하였네. 구름 속 용처럼 천 가지 자태를 뽐내며, 물결을 밀어 파도를 일으키네. 금빛 선들은 갑옷처럼 얹혀 있고, 무늬들은 화려한 거북등처럼 빛나네. 구궁팔괘의 법도를 두른 옷을 입고, 푸른 빛을 띠며 흩뿌려져 있구나. 살아서는 용맹하여 용왕의 총애를 받았고, 죽어서는 부처님의 비석을 등에 지는구나. 이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느냐? 바람을 일으키고 물결을 치는 악한 거북이라네.

그 거북은 정병을 등에 진 채 절벽 위로 기어 올라오더니, 관음보살을 향해 머리를 스물네 번 까딱이며 스물네 번 절을 올렸다. 이를 본 손오공은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알고 보니 정병을 지키는 놈이었군. 정병을 안 보여주면 달라고 졸라댈 작정이로구나.'

관음보살이 물었다. "오공아, 밑에서 무엇을 중얼거리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관음보살이 일렀다. "어서 저 정병을 가져오너라."

손오공은 즉시 정병을 가지러 갔다. 하지만 정병은 꿈에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잠자리가 거대한 돌기둥을 흔드는 격이

니, 어찌 눈곱만큼이라도 흔들 수 있겠는가? 손오공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보살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습니다."

관음보살이 꾸짖었다. "이 원숭이 녀석, 말만 번지르르하구나! 정병 하나 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요괴를 항복시키고 다스리겠다는 말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보살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라면 거뜬히 들었을 텐데, 오늘은 도무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요괴에게 당한 탓에 힘이 약해진 모양입니다."

관음보살이 설명했다. "평소에는 빈 병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병을 바다에 던져 놓았으니, 그동안 삼강오호와 팔해사독, 그리고 온갖 시냇물과 못, 동굴의 물을 다 빌려 담았느니라. 네가 어찌 바다를 통째로 짚어질 무게를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들지 못하는 것이다."

손오공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다. "예,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보살이 앞으로 걸어 나와 오른손으로 정병을 가볍게 들어 올린 뒤 왼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거북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손오공이 말했다. "알고 보니 정병을 지키고 집안살림이나 하는 녀석이었군요."

보살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오공아, 내 정병에 든 감로수는 용왕이 내리는 비와는 달라서 요괴의 삼매화를 꺼뜨릴 수 있단다. 네가 가져가려 해도 들 수가 없고, 용녀를 함께 보내려 하니 너는 마음씨도 곱지 않고 오로지 남을 속일 줄만 아는구나. 내 용녀가 아름답고 정병 또

한 보물인데, 네가 만약 이것을 속여서 가져가 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너를 다시 찾아오겠느냐? 그러니 네가 무엇인가 담보로 남겨두어야겠다."

손오공이 말했다. "가엾어라! 보살님께서 너무 의심이 많으십니다. 제자는 이미 승려의 도를 따르고 있으니 예전처럼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담보를 남기라 하시는데 무엇을 남길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면직물 장삼은 예전에 보살님께서 하사하신 것이고, 이 호랑이 가죽 치마는 동전 몇 푼이나 하겠습니까? 이 여의봉은 조만간 제 몸을 지켜야 할 물건이고요. 다만 머리에 있는 이 금고아는 금으로 된 것인데, 보살님께서 법술을 써서 제 머리에 붙여 놓으시는 바람에 벗을 수도 없습니다. 정 담보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송고주(松箍兒咒, 머리테를 풀어 주는 주문)를 외워 이것을 벗겨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담보로 하겠습니까?"

보살이 말했다. "너는 참으로 속 편하구나! 나는 네 옷도, 여의봉도, 금고아도 필요 없다. 그저 네 뒷머리에 있는, 네 목숨을 구해줄 머리카락 한 올만 뽑아서 담보로 주려무나."

손오공이 말했다. "이 머리카락 또한 보살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올이라도 뽑았다가는 머리카락 뭉치가 다 망가져 버릴 것이고, 그러면 제 목숨을 지킬 수도 없게 됩니다."

보살이 꾸짖었다. "이 원숭이 녀석! 네가 머리카락 한 올도 뽑지 않겠다면, 나 또한 이 선재를 그냥 내주기가 어렵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보살님, 너무 의심하지 마십시오. '스님의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얼굴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저희 스승님의 어려움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보살이 기쁜 마음으로 연화대에서 내려와 구름을 밟고 향기로운 발걸음으로 바위 절벽 위로 올라갔다.

시로 이르되, "기쁘게 연화대에서 내려와 향기로운 구름 타고 바위 위로 오르네. 성스러운 스님이 고난을 겪으니 요괴를 물리치고 구하러 가노라."

손오공은 매우 기뻐하며 관음보살을 모시고 조음선동을 나왔다. 여러 신선과 신들이 보타암에 줄지어 모여 있었다. 보살이 말했다. "오공아, 바다를 건너자." 손오공이 몸을 굽히며 말했다. "보살님께서 먼저 가십시오." 보살이 말했다. "네가 먼저 가거라." 손오공이 절을 하며 말했다. "제자가 감히 보살님 앞에서 재주를 부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근두운을 탄다면 제 몸이 드러나 보살님께서 불경하다 여기실까 두렵습니다."

보살이 그 말을 듣고 즉시 선재용녀를 시켜 연꽃 연못에서 연꽃잎 하나를 떼어 바위 아래 물 위에 놓게 했다. 그러고는 손오공에게 말했다. "저 연꽃잎 위에 올라타거라. 내가 너를 바다 건너로 데려다주마." 손오공이 보고는 말했다. "보살님, 이 꽃잎은 너무 가볍고 얇은데 어떻게 저를 태울 수 있겠습니까? 발을 헛디뎠다 물에 빠지거나라도 하면 이 호랑이 가죽 치마가 젖지 않겠습니까? 옷이 젖으면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보살이 꾸짖었다. "일단 올라가서 보거라." 손오공은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뛰어올랐다. 과연 처음에는 작고 가벼워 보였으나, 막상 올라가 보니 바다 위의 배보다 세 배는 더 컸다. 손오공이 기뻐하며 말했다. "보살님, 저를 태울 수 있겠습니까!"

보살이 말했다. "태울 수 있는데 어찌 건너지 않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노도 없고, 삿대도 없고, 돛과 돛대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보살이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러고는 단숨에 숨을 불어넣어 물길을 열고, 다시 숨을 크게 내쉬어 남양의 거친 바다를 가로질러 저편 기슭에 닿게 했다. 손오공은 마침내 땅을 밟고 서서 웃으며 말했다. "보살님께서神通력을 부리시며 저를 이리저리 부리시니, 정작 힘 하나 안 들이시는군요!"

관음보살은 여러 신선에게 각자의 선경을 지키라 명하고, 선재용녀에게는 동굴 문을 닫아두라고 일렀다. 그러고는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보타암을 벗어나 그곳으로 가서 외쳤다. "혜안은 어디 있느냐?"

혜안(이천왕의 둘째 아들로, 속명은 목차이다)은 관음보살이 직접 가르친 제자로, 늘 보살의 곁을 지키며 호법혜안행자라 불렸다. 혜안이 보살에게 합장하며 대기하자 관음보살이 말했다. "어서 천계로 올라가 네 아버지를 뵈고, 천강도를 좀 빌려달라고 청하거라." 혜안이 물었다. "스승님, 몇 자루나 필요하십니까?" 관음보살이 대답했다. "한 세트 전부 다 필요하다."

혜안행자는 명을 받들자마자 구름을 타고 곧장 남천문 안으로 들어가 운루궁 전각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부친인 이천왕을 뵈고 절을 올렸

다. 이천왕이 그를 보고 물었다. “네가 어디서 오는 길이야?” 해안행자가 대답했다. “스승님께서 요괴를 항복시키기 위해 손오공을 보내셨기에, 스승님의 명을 받들어 부친께 절을 올리고 천강도를 잠시 빌리러 왔습니다.” 이천왕은 즉시 나타를 불러 천강도 서른여섯 자루를 가져오게 한 뒤 해안행자에게 건네주었다. 해안행자는 나타에게 말했다. “형제여, 돌아가서 어머니께도 안부 인사를 잘 전해주게. 내가 지금 일이 매우 급하니, 칼을 가져다드린 후에 다시 정식으로 절을 올리겠네.” 그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나누고 상서로운 빛을 타고 내려가 곧장 남해로 달려가 보살에게 칼을 받들어 올렸다.

관음보살이 칼을 손으로 받아 쥐고는 멀리 던지며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그 칼이 순식간에 천 겹의 꽃잎이 겹쳐진 연꽃 받침대인 천엽연화대로 변했다. 보살은 그 위로 가볍게 몸을 날려 가운데에 단정히 앉았다. 곁에 있던 손오공이 이를 보고 속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보살님도 참 아끼기는. 저 연꽃 연못에 오색 보배 연꽃 받침대가 뻗어 있는데, 거기 앉기는 아까워서 남에게 빌리러 오셨나 보네."

그러자 보살이 말했다.

"손오공,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따라오너라."

말을 마친 보살은 구름을 타고 바다 위를 떠나갔고, 손오공도 그 뒤를 따랐다. 흰 앵무새가 날개를 펼쳐 앞장서 날아가니, 손오공과 해안행자가 그 뒤를 바짝 쫓아갔다.

순식간에 산봉우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손오공이 말했다. "저 산이 바로 호산입니다. 여기서 저 요괴의 소굴까지는 대략 사백 리 정도 되겠군요."

그 말을 들은 관음보살은 상서로운 구름 위에 멈춰 서서, 산봉우리를 향해 "옴" 자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산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수많은 신과 귀신들이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 산을 지키는 토지신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보살의 연꽃 좌대 아래로 모여들어 머리를 조아렸다.

보살이 말했다. "너희는 모두 놀라지 마라. 내가 이번에 저 마왕을 잡으러 왔으니, 너희는 나를 도와 이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거라. 삼백 리 안의 땅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 굴속에 있는 작은 짐승들과 구멍 안에 있는 어린 벌레들은 모두 산꼭대기로 옮겨 안전하게 해주어라."

신들이 명을 받들어 물러가자, 잠시 후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보살이 말했다. "정리가 다 되었으면 각자 사당으로 돌아가거라."

그러고는 정병을 기울여 물을 쏟아부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둥이 치는 듯했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산봉우리를 덮치고 바위벽을 가르니, 산 위를 덮은 물결은 바다와 같고 바위벽을 가르 기세는 대양과 같구나. 검은 안개는 수기(水氣)로 하늘을 뒤덮고, 푸른 파도는 햇빛을 받아 차가운 빛을 번뜩이네. 절벽마다 옥 같은 물결이 치고 바다에는 금빛 물결이 길게 이어지니, 보살이 위대한 행복의 법술을 펼치시니, 소매 속에서 정신을 멎게 하는 선

법을 꺼내어 낙가야의 신선 세계를 만드니, 마치 남해의 풍경과 다를 바 없구나. 아름다운 갈대는 구름 속 어린 꽃처럼 솟아나고, 향기로운 풀은 잎사귀를 싱싱하게 펼쳤네. 자줏빛 대나무 사이에는 앵무새가 쉬 어가고, 푸른 소나무 숲에는 꿩들이 시끌벅적하네. 겹겹이 밀려오는 파도와 사방에 핀 연꽃, 오직 바람 소리와 하늘을 덮은 물결 소리만 들릴 뿐이로다.

손오공은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과연 대자대비하신 보살님이시구나! 만약 나에게 이런 법력이 있다면, 정병을 산을 향해 엎어버리고 짐승이나 벌레 따위는 한꺼번에 쓸어버릴 텐데."

보살이 불렀다. "오공아, 손을 내밀어라."

손오공은 얼른 소매를 걷어붙이고 왼손을 내밀었다. 보살은 버드나무 가지를 뽑아 감로수를 적신 뒤, 손바닥에 '미(迷, 미혹할 미)' 자를 써 주며 가르쳤다.

"주먹을 꼭 쥐고 어서 가서 저 요괴와 싸우거라. 이기려 하지 말고 차라리 패하거라. 패해서 내 앞으로 돌아오면, 내가 법력으로 그를 거두어줄 것이다."

손오공은 명을 받들고 구름을 타고 곧장 동굴 입구로 달려갔다.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여의봉을 든 채, 크게 소리쳤다. "요괴 놈들아, 문 열어라!" 그러자 안에서 요괴들이 들어가 보고했다. "손오공이 또 왔습니다." 요괴 왕이 말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놈에게 대꾸도 하지 마라." 손오공이 다시 소리쳤다. "이놈들아! 감히 이 몸을 문밖에 세워두다니,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요괴가 다시 달려가

보고했다. “손오공이 저런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요괴 왕은 그저 “상대하지 마라”라고만 일렀다. 손오공이 두 번이나 더 소리쳤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크게 화가 난 그는 여의봉을 휘둘러 문을 한꺼번에 내리쳐 구멍을 뚫어버렸다. 겁에 질린 요괴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외쳤다. “손오공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괴 왕은 보고를 몇 번이나 받고, 심지어 앞문까지 부서졌다는 말에 급히 몸을 날려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는 긴 창을 겨누며 손오공에게 욕을 퍼부었다. “이 원숭이 놈, 눈치도 없이 까부는구나! 내가 적당히 봐주었더니 분수도 모르고 또 나를 괴롭히려 오다니. 내 문을 부순 죄를 어찌 다스려야 하겠느냐?” 손오공이 맞받아쳤다. “이놈아, 네가 감히 나를 문밖에 내쫓으려 했으니, 네 죄는 무엇이냐?”

요괴 왕은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긴 창을 휘두르며 손오공의 가슴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그러자 손오공은 철봉을 들어 올려 창을 막아내며 맞섰다. 한바탕 격렬하게 맞붙어 대여섯 합을 겨루는 사이, 손오공이 주먹을 쥐고 철봉을 끌며 밀어붙이자 요괴 왕은 밀려 내려갔다.

요괴 왕이 산 앞에서 소리쳤다. "이제 당승을 잡아다가 깨끗이 씻겨 먹어 주마!"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놈아, 하늘이 다 보고 있다! 어디 한번 와 보시지!"

요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호통을 치며 눈 깜짝할 새 코앞까지 달려와 다시 창을 내뺐었다. 손오공은 철봉을 휘두르며 몇 합을 더 싸우다가, 다시 패한 척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요괴 왕이 욕설을 퍼부으며 외쳤다. "이 원숭이 녀석아! 아까는 이삼 십 합은 거뜰히 버티더니, 왜 이제 와서 싸우기도 전에 도망치는 것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애야, 네가 불을 뿜을까 봐 겁이 나서 그렇다!"

요괴가 말했다. "이제 불 안 뿜을 테니 어서 이리 오너라!"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불을 안 뿜겠다면 저리 비켜라. 사나이가 남의 집 문앞에서 사람을 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요괴는 이것이 손오공의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창을 치켜들고 뒤쫓았다. 손오공은 철봉을 느릿하게 끌며 주먹을 쥐는 시늉만 했다. 요괴 왕은 정신이 팔려 오로지 쫓아가는 데만 급급했다. 앞서가는 손오공은 유성처럼 빠르게 지나갔고, 뒤쫓는 요괴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거침없이 달려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보살이 보였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 요괴야, 난 이제 네가 무서우니 제발 나를 좀 살려다오! 그런데 너는 왜 남해 관음보살님께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냐?” 요괴는 손오공의 말을 믿지 않고 이를 악문 채 계속 쫓아왔다. 손오공은 몸을 획 움직여 보살이 내뿜는 신령스러운 빛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렸다. 요괴는 손오공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는 가까이 다가가 눈을 부릅뜨며 보살에게 물었다. “당신이 손오공이 불러온 구원병인가?” 보살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요괴는 긴 창을 휘두르며 호통을 쳤다. “이봐! 당신이 손오공이 불러온 구원병이냐고 묻지 않느냐!” 보살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요괴는 보살을 향해 창을 내질렀다. 그러자 보살은 금빛 광채로 변해 곧장 구만리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 버렸다. 손오공이 뒤따라가며 말했다. “보살님, 차라리 저 요괴를 단번에 굴복시켜 버리시지요! 저놈이 몇 번이나 묻는데 왜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며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그러다 창에 맞아 쫓겨나기라도 하면 저 연꽃 받침대까지 다 버리실 셈입니까?” 보살은 그저 이렇게 말했다. “말을 삼가거라. 저놈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꾸나.”

이때 손오공과 목차는 공중에 나란히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요괴가 허허거리며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망할 원숭이 녀석, 나를 잘못 보았구나! 저놈은 대체 내 성영대왕을 누구로 보는 게냐? 몇 번이나 나를 상대하려 들더니 이기지도 못하고, 어디서 멍청한 보살이나 한 명 불러왔다가 내 창에 맞아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느냐. 게다가 저 보배로운 연꽃 대좌까지 내팽개쳐 놓았으니, 나도 저기 올라가 좀 앉아 봐야겠다."

요괴는 보살의 흉내까지 내며 연꽃 대좌 한가운데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이 말했다.

"좋다, 좋아! 연꽃 대좌를 아주 남 좋은 일만 시키는구나."

관음보살이 물었다.

"오공아, 네가 또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무슨 말이냐니요? 연꽃 대좌를 통째로 남에게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요괴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버리면, 보살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실 건가요?"

관음보살이 말했다.

"안 그래도 저놈을 얹혀 두려던 참이다."

손오공이 거들었다.

"저놈은 몸집이 작고 아담해서 보살님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앉아 있겠는데요?"

관음보살이 꾸짖듯 말했다.

"잔말 말고, 이제 내 법력을 보아라."

관음보살이 버드나무 가지를 아래로 가리키며 "물러나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신비로운 빛을 내뿜던 연꽃대가 순식간에 빛을 잃고 사라지더니, 요괴가 칼날 끝에 위태롭게 앉아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보살은 곧바로 목차에게 명령했다. "향요저(요괴를 굴복시키는 절구)를 사용하여 칼자루를 사정없이 내리치거라."

목차가 구름을 타고 내려가 향요저를 마치 담을 쌓듯 칼자루에 천백 번 넘게 내리쳤다. 요괴는 칼날이 양다리를 관통해 나올 정도로 상처를

입어 피가 웅덩이를 이룰 만큼 살점이 터져 나갔다. 참으로 괴이한 모습이었다. 요괴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들고 있던 장창을 내던진 채 손으로 칼을 뽑으려 애를 썼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이 말했다. "보살님, 저 괴물은 아픔도 모르는지 여전히 칼을 뽑으려 합니다."

보살이 이를 보고 목차를 불러 말했다. "그래도 생명을 끊지는 말거라." 그러고는 다시 버드나무 가지를 내리며 '옴' 자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천강도가 마치 짐승의 이빨처럼 갈고리 모양으로 변해버려 도저히 뽑을 수 없게 되었다. 그제야 겁에 질린 요괴는 칼날을 움켜쥔 채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다.

"보살님, 제 눈이 멀어 보살님의 위대한 법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계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관음보살이 그 말을 듣고 손오공, 혜안행자(목차), 흰 앵무새와 함께 금빛 광채를 낮추며 요괴 앞으로 내려갔다. 보살이 물었다. "너는 나의 계율을 받겠느냐?" 요괴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기꺼이 계율을 받겠습니다." 보살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나의 문하로 들어오겠느냐?" 요괴가 대답했다. "정말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법문에 들겠습니다." 보살이 말했다. "좋다, 그럼 내가 네 정수리에 손을 얹어 계를 내려주마." 그러고는 소매 안에서 금빛 삭발도 한 자루를 꺼내 요괴에게 다가갔다. 보살은 요괴의 정수리를 몇 번 깎아 '태산압정(太山壓頂)' 모양으로 다듬고, 정수리에

머리카락 세 가닥을 남겨 세 개의 뿔처럼 묶어 주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요괴 녀석, 정말 재수가 없구만. 머리 모양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만큼 이상하게 변했으니,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보살이 말했다. "네가 이제 내 계율을 받았으니, 나도 너를 박하게 대하지 않오마. 앞으로 너를 '선재동자'라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요괴는 오로지 목숨만 살려준다면 무엇이든 좋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 그때 보살이 손가락으로 한 번 가리키며 "물러가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천강도가 먼지 속으로 떨어져 나갔으나, 동자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관음보살이 말했다. "헤안아, 너는 이 칼을 천궁으로 가져가 네 아버님께 돌려드려라. 나를 마중 나오지 말고, 먼저 보타암으로 가서 여러 신선과 함께 기다리고 있거라." 목차가 명을 받들어 칼을 하늘나라로 돌려보내고는, 바다로 돌아오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그 동자는 성미가 워낙 불같았는데, 아프던 다리가 아프지 않고 터졌던 엉덩이도 멀쩡하며 머리는 세 가닥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고는, 달려가 긴 창을 움켜쥐고 보살을 향해 외쳤다.

"어디 대단한 법력이라도 있어서 나를 굴복시키려는 거냐? 알고 보니 그저 눈속임술일 뿐이구나! 어떤 계율도 받지 않을 테니, 창이나 받아라!"

그는 보살의 얼굴을 향해 창을 찔러 들어갔다. 화가 난 손오공이 철봉을 휘둘러 내리치려 하자, 보살이 급히 말했다. "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는 소매 안에서 금빛 고리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이 보물은 원래 우리 여래 부처님께서 동쪽 땅으로 경전을 구하러 갈 사람을 찾으라고 내게 내려주신 금(金)·긴(緊)·금(禁) 세 개의 고리(箍兒)란다. 긴고(緊箍兒)는 먼저 네가 머리에 썼고, 금고(禁箍兒)는 산을 지키는 신령(守山大神)에게 주었지. 그런데 이 금고(金箍兒)는 차마 남에게 줄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 이 요괴가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니 그에게 주어야겠구나."

보살은 고리를 바람을 향해 휘두르며 "변해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고리가 순식간에 다섯 개로 변하더니 동자에게 날아갔다. 보살이 "맞아라!" 하고 호령하자, 고리 하나는 동자의 머리 위에 씌워졌고, 두 개는 양손에, 나머지 두 개는 양발에 채워졌다.

보살이 말했다. "오공아, 조금 물러나 있거라. 내가 금고주(金箍兒咒)를 외우겠다."

손오공은 깜짝 놀라 당황하며 말했다. "보살님, 요괴를 잡으러 오셨으면서 어찌 저에게 주문을 외우려 하십니까?"

보살이 대답했다. "이 주문은 너를 조이는 긴고주(緊箍兒咒)가 아니라, 저 동자를 다스리는 금고주(金箍兒咒)란다."

그제야 손오공은 안심하고 보살의 곁에서 주문이 외워지기를 기다렸다. 보살이 손가락으로 결인을 맺으며 묵묵히 주문을 몇 번이고 외우자, 요괴는 귀를 문지르고 얼굴을 비비며 발을 구르고 몸을 굴러댔다.

시로 이르되,

"한 마디 주문으로 온 세상에 통하니, 끝없이 넓고 깊은 법력으로
다."

결국 그 동자가 어떻게 귀의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3회 — 흑하의 요괴가 당승을 사로잡아 가고, 서양의 용자가 악어를 잡아 돌아 오다

黑河妖孽擒僧去 西洋龍子捉鼉回

한편, 관세음보살이 주문을 몇 번 더 외우고 나서야 입을 멈추었더니 요괴의 통증이 비로소 가라앉았다. 요괴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살펴보니, 목과 손발에 금고가 끼워져 살을 파고들 정도로 조여 있어 몹시 아팠다. 그 금고를 벗겨내려 애써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보물은 이미 살 속에 뿌리를 내린 듯해서, 만지면 만질수록 통증만 더해질 뿐이었다.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이보게, 보살님께서 네가 잘 자라지 못할까 봐 목걸이며 팔찌를 채워주셨나 보구나!' 이 말을 들은 동자는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라 창을 치켜들고 손오공을 향해 마구 찌러댔다. 손오공은 재빨리 몸을 피해 관세음보살의 뒤로 숨으며 외쳤다. '주문을 외워주세요, 주문을!' 관세음보살이 버드나무 가지에 감로수를 살짝 적서 뿌리며 '합(合)!' 하고 외쳤다. 그러자 동자는 창을 떨어뜨리더니,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한 채로 다시

는 펴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관음뉴(觀音扭)'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 바로 이 일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자는 손도 펴 수 없고 창도 잡을 수 없게 되자, 보살의 법력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비로소 깨닫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렸다.

관세음보살이 진언을 외우며 정병을 기울이자, 흘러졌던 바닷물이 그대로 다시 거두어들어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보살이 손오공에게 말했다.

"오공아, 이 요괴는 이미 항복했으나 아직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놈에게 한 걸음마다 절을 하게 하여 낙가산까지 가게 한 뒤에야 비로소 법력을 거두겠다. 너는 지금 즉시 동굴로 가서 네 스승을 구해 오너라."

손오공이 몸을 돌려 절을 하며 말했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살님. 제자가 배웅이라도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러자 보살이 말했다.

"배웅할 필요 없다. 자칫하다가 스승의 목숨을 놓칠 수도 있으니 어서 가거라."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다. 그 요괴는 일찍이 깨달음을 얻어 오십삼참(선세 번의 수행)을 마친 뒤, 관세음보살에게 절을 올리며 귀의하였다.

선한 보살이 동자를 거두어들인 이야기는 일단 제쳐두자. 한편, 사 오정은 숲속에 오래 앉아 손오공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짐은 말에 실어둔 채, 한 손에는 향요보장(요괴를 물리치는 보물 지팡이)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말의 고삐를 잡고 송림을 나와 남쪽을 살피는데, 마침 손오공이 기쁜 기색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사오정이 마중 나가며 말했다. "형님, 보살님을 뵈러 간다더니 어찌 이제야 오시는 겁니까? 기다리다 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꿈 깨거라! 이 몸이 이미 보살님을 뵈고 요괴를 굴복시키고 왔느니라."

손오공은 보살님이 보여준 법력이 어떠했는지를 상세히 들려주었다. 사오정이 무척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 스승님을 구하러 가야겠습니다!"

두 사람이 계곡을 뛰어넘어 동굴 문 앞에 다다르자마자 말들을 매어 두었다. 그러고는 곧장 무기를 들고 동굴 안으로 들이닥쳐 요괴들을 모조리 소탕했다. 그 후 가죽 주머니를 풀어 헤치니 저팔계가 밖으로 나왔다. 저팔계는 멍한 표정으로 손오공에게 고맙다며 말했다. "형님, 그 요괴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서 쇠갈퀴로 한바탕 두들겨 패주고 화 풀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 스승님부터 찾으러 가자."

세 사람이 뒤편으로 달려가 보니, 스승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마당에 묶여 울고 계셨다. 사오정이 서둘러 밧줄을 풀어 드렸고, 손오공은 즉시 옷을 가져다 입혀 드렸다. 세 사람이 스승님 앞에 무

를 꿔고 말했다. '스승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삼장이 고마워하며 물었다. '착한 제자들아, 너희를 참으로 고생시켰구나. 대체 어떻게 요괴를 물리쳤느냐?' 손오공이 관세음보살께 도움을 청했던 일과 동자를 거두어들인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삼장은 얼른 무릎을 꿔고 남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보살님께 감사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살님을 위해 복을 지어 동자 하나를 거두어 드린 셈이지요.' 오늘날 '동자가 관음보살을 받들어 오십삼참(五十三參)을 하며 참배할 때마다 부처를 뵈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일을 두고 하는 것이다.

사오정에게 동굴 안의 보물을 모두 챙기게 했다. 이어 쌀과 양식을 찾아 정성껏 공양을 준비하여 스승을 대접했다. 그 장로가 목숨을 건진 것은 온전히 손오공 덕분이었고, 진정한 경전을 얻는 것 또한 오로지 손오공에게 달려 있었다.

스승과 제자들은 동굴에서 나와 말에 올라타고 큰길을 찾아 서천을 향해 정진했다. 한 달 남짓 길을 가던 중, 갑자기 귀를 울리는 거센 물 소리가 들려왔다. 삼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제자들아, 저 물소리는 또 무엇이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은 참으로 의심이 많으시니, 스님이 될 자격이 없으십니다. 우리 넷이 함께 가는데 어찌 스승님만 물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입니까? 혹시 《다심경(반야심경)》이라도 잊어버리신 건 아니지요?' 삼장이 말했다. '《다심경》은 부도산의 오소(鳥巢) 선사께서 입으로 전해주신 것으로, 총 스네 구절에 이백칠십자로 되어 있다. 내가 당시 귀로 전해 들은 것을 지금까지 늘 외우고 있는데, 내가 어느 구절을 잊었다는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

님,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마음도 없다"는 구절을 잊으신 모양입니다. 우리 같은 출가인은 눈으로 색을 보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않으며, 코로 향기를 맡지 않고, 혀로 맛을 보지 않으며, 몸으로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않고, 마음으로 망상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일러 여섯 가지 도둑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승님은 지금 경전을 구하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계시고, 요괴가 나타날까 두려워 몸을 돌보지 않으시며, 공양을 먹으려 혀를 놀리고, 달콤한 맛을 즐기려 코를 움직이시며, 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이고, 사물을 보면 눈을 고정하시니, 이 여섯 도둑을 자꾸 불러들이시면서 어떻게 서천에 가서 부처님을 뵙겠습니까? 삼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읊조렸다. '제자야, 나는 말이다. 그 옛날 성군을 떠난 뒤로, 밤낮없이 부지런히 떠돌아다녔구나. 짚신은 산마루의 안개를 밟아 닳아 없어지고, 대나무 삿갓은 고갯마루의 구름을 헤치고 나아가네. 고요한 밤 원숭이 울음소리는 못내 애처롭고, 밝은 달 아래 새 울음소리는 차마 듣기 괴롭구나. 언제쯤이면 삼삼(三三)의 수행을 다 채워, 여래의 오묘한 법문을 얻을 수 있을까?' 손오공은 그 말을 다 듣고는 참지 못하고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스승님은 그저 고향 생각에 마음이 울적하신 것뿐이군요. 삼삼의 수행을 다 채우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흔히들 "공이 쌓이면 자연히 이루어진다(功到自然成)"고 하지 않습니까.' 저팔계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형님, 만약 저런 마구니의 방해가 저토록 심하다면, 천 년을 걸어도 성공하기는 틀렸습니다.'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형님도 저처럼 말주변이 없으시면서 괜히 큰형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어깨로 짐을 짊어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쉬지 않고 길을 재촉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그때, 눈앞에 검은 물결이 하늘을 찌를 듯 넘실거리는 강이 나타나 말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네 사람이 강가에 멈춰 서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 모습이 이러했다. 겹겹이 쌓인 짙은 물결은 검은 흙탕물을 뒤엎고, 출렁이는 혼탁한 파도는 검은 기름처럼 휘몰아쳤다. 가까이 다가가 보아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고, 멀리 바라보아도 나무의 형체를 찾기 어려웠다. 쉼 없이 흐르는 물은 온 땅을 먹물로 뒤덮은 듯했고, 끝없이 이어지는 물결은 마치 천리에 걸쳐 뿌려진 잿빛 같았다. 떠오르는 물거품은 쌓아놓은 솟덩이 같고, 부서지는 파도는 뒤집힌 석탄 가루처럼 흩날렸다. 소와 양은 물이 너무 검어 마시려 들지 않았고, 까마귀와 까치는 물안개가 자욱하여 날지 못했다. 그저 강가의 갈대와 마름만이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 뿐, 여울목의 꽃과 풀들이 저마다 푸른 빛을 다투며 기이함을 뽐내고 있었다. 세상에는 호수와 강이 도처에 널려 있고, 시냇물과 연못도 셀 수 없이 많다지만, 사람이 살아가며 만남이 있다 한들 서방의 이 흑수하(黑水河)를 본 이가 또 어디 있겠는가?

삼장이 말에서 내리며 말했다. "제자들아, 이 물은 어찌 이리도 검디검으냐?"

팔계가 말했다. "누가다 커다란 쪽빛 물감을 쏟아부었나 봅니다."

사오정이 거들었다. "아니면, 어느 집에서 버루를 씻고 있는 것 아닐까요?"

손오공이 말했다. "너희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떻게 해야 스승님을 무사히 건너게 해드릴지나 생각하자."

팔계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 강 정도라면 이 몸이 건너는 건 어렵지 않지요. 구름을 타고 넘어가든, 아니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떠다 나르든,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안 돼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사오정도 말했다.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구름을 타고 물 위를 가로질러 순식간에 건너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우리는 쉽지만, 스승님이 문제다."

삼장이 물었다. "제자들아, 이 강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

팔계가 답했다. "대략 십 리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삼장이 말했다. "너희 셋이 의논해서, 누가 나를 업고 건너줄지 정하거라."

손오공이 말했다. "팔계가 업는 게 좋겠다."

그러자 팔계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안 됩니다, 못 업어요. 만약 구름을 타고 가다가 스승님을 업으면, 땅에서 세 자도 못 떨어질 만큼 무거울 겁니다. 옛말에 '범인을 업으면 언덕처럼 무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물속에 들어가서 업고 간다면, 그 무게 때문에 저까지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 겁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강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강 상류 쪽에서 한 사람이 작은 배를 저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당승이 기뻐하며 말했다. '제자들아, 배가 오는구나. 저분에게 우리를 건너게 해달라고 하거라.' 사오정이 목청을 높여 크게 외쳤다. '배를 젓는 양반, 사람 좀 건너게 해 주시오! 사람 좀 건너게 해 달란 말이오!' 배에 탄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사람을 건네주는 나룻배가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건너게 해 준단 말이오?' 사오정이 다시 말했다. '하늘 위나 인간 세상이나 남에게 편의를 베푸는 것이 제일이지 않겠소? 당신이 비록 나룻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당신을 자주 번거롭게 하려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동토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 경전을 구하러 가는 불제자(佛子)들이니, 부디 편의를 좀 베풀어 우리를 건너게 해 주시오. 그러면 꼭 사례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배를 강가로 저어 오더니, 노를 붙잡고 말했다. '스님, 제 배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건너간단 말입니까?' 당승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 배는 원래 나무토막 하나를 깎아 만든 것이라 가운데에 선실 칸이 하나뿐이었고, 겨우 두 사람만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당승이 물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사오정이 말했다. '그럼 두 번에 나누어 건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저팔계가 잔머리를 굴려 게으름을 피우려고 약은피를 내며 말했다. '오정아, 너는 형님과 함께 여기서 짐과 말을 지키고 있거라. 내가 먼저 스승님을 모시고 건너간 다음에 다시 와서 말을 실어 나르마. 형님은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시면 되고.' 손오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말이 맞다.'

사오정이 당승을 부축하고, 사공이 배를 띄워 노를 저으며 물결을 따라 나아갔다. 배가 한창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

는 듯한 굉음이 들리더니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며 하늘과 해를 가려버렸다. 몰아치는 광풍의 기세가 실로 무시무[❖]할 정도였다.

시로 이르되,

하늘에는 먹구름이 폭발하듯 피어오르고 물결은 검은 파도가 겹겹이 쌓여 높이 솟구치네. 양쪽 기슭엔 모래바람이 일어 햇빛을 가리고 사방의 나무들은 쓰러지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네. 강과 바다를 뒤엎으니 용신조차 두려워하고 흙먼지 날리니 꽃과 나무가 시들어 떨어지네. 휘몰아치는 소리는 봄날의 천둥소리 같고 몰아치는 기세는 굶주린 호랑이의 포효 같구나. 게와 거북, 물고기와 새우는 물 위로 떠올라 절하고 날짐승과 길짐승은 보금자리를 잃고 헤매네. 온 세상의 배와 집들이 재난을 당하고 사해의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구나. 냇가의 어부는 낚싯대를 잡기 어렵고 강 위의 사공은 어찌 노를 저을 수 있으랴? 기와가 벗겨지고 벽돌이 뒤집히며 집들이 무너지니 하늘을 뒤흔들고 땅을 진동시키며 태산마저 흔들리는구나.

이 광풍은 알고 보니 그 배를 젓던 사공이 일으킨 것이었다. 그는 본래 블랙워터 강의 괴물이었다. 그는 당승과 저팔계가 탄 배를 통째로 물속에 처박아 버렸고,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어디론가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

강가에 서 있던 사오정과 손오공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말했다.

"이 일을 어찌면 종단 말인가? 스승님께서선 걸음마다 재난을 만나 이제 막 마물에게서 벗어나 겨우 평안을 되찾나 싶더니, 또 이렇게 블랙워터 강의 거친 물결을 만났구나."

사오정이 말했다. "배가 뒤집힌 것일까요? 우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찾아봅시다."

손오공이 말했다. "배가 뒤집힌 게 아니야. 만약 배가 뒤집혔다면 수영을 할 줄 아는 저팔계가 분명 스승님을 지키며 물 밖으로 업어 나왔을 거다. 내가 아까 보니 노를 젓던 놈의 기운이 심상치 않던데, 분명 그놈이 바람을 일으켜 스승님을 물에 빠뜨린 게 틀림없어."

그 말을 들은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형님은 말과 짐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 찾아보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물빛이 예사롭지 않으니 네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사오정이 대답했다. "이 물이 제가 살던 유사하와 비교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요."

사오정은 착한 스님답게 겹옷을 벗어 던지고 손발을 단단히 묶은 뒤, 항요보장을 휘두르며 물길을 가르고 파도 속으로 거침없이 헤엄쳐 들어갔다. 한참을 나아가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사오정이 옆으로 몸을 숨겨 몰래 살펴보니, 한 정자 건물이 나타났다. 정자 문 앞에는 '횡양육 흑수하 신부(衡陽峪黑水河神府)'라는 여덟 글자가 가로로 적혀 있었다. 그때 정자 위에서 괴물이 앉아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다. 오늘에야 드디어 물건을 얻게 되었구나. 저 중은 열 생을 수행한 덕 높은 사람이라, 저놈의 살점 한 점만 먹어도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될 수 있다. 이 날을 위해 얼마나 오

래 기다렸는지 모른다. 오늘 드디어 내 뜻을 이루게 되었구나!' 괴물이 이어 명령했다. '얘들아, 어서 철제 우리를 들어내 와라! 저 두 중을 통째로 푹 찌놓고, 둘째 외삼촌(二舅爺)께 서신을 보내 모셔 와 생신을 축하해 드리자.' 사오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울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보장을 뽑아 들고 문을 마구 두들기며 소리쳤다. '이 못된 요괴 놈아! 당장 우리 당승 스승님과 팔계 사형을 내놓지 못할까!' 문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요괴들이 급히 달려가 보고했다. '큰일 났습니다!' 괴물이 물었다. '무슨 큰일이냐?' 작은 요괴가 대답했다. '밖에서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험상궂게 생긴 중 하나가 앞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요괴가 말을 듣자마자 즉시 무구를 가져오라 일렀다. 어린 요괴가 무구를 들고 나오자, 요괴는 몸에 단단히 갖춰 입고는 대나무 마디를 닮은 강철 채찍을 손에 든 채 문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모습이 참으로 흉악하고 독살스러웠으니, 다음과 같았다. 모난 얼굴에 둥근 눈은 노을빛처럼 번쩍이고, 말려 올라간 입술에 커다란 입은 피가 담긴 대야처럼 붉구나. 철사 같은 성긴 수염이 드문드문 흔들리고, 양쪽 귀밑머리는 주사 빛이며 머리카락은 형클어져 솟아 있네. 모습은 신령을 드러낸 태세신(太歲)을 닮은 듯하고, 얼굴은 노한 뇌공(雷公)과 같도다. 몸에는 꽃무늬가 찬란한 철갑을 두르고, 머리에는 보석이 촘촘히 박힌 금투구를 썼네. 대나무 마디 강철 채찍을 손에 들고, 걸을 때마다 거센 광풍을 일으키며 나아가네. 본래 물속에 살던 존재였으나, 근본을 벗어나 변신하여 흉악해졌으니, 요괴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전생의 이름은 소타룡(小鼉龍)이라 하리라.

요괴가 호통을 쳤다. "어떤 놈이 감히 우리 문을 두드리는 거냐!"

사오정이 맞받아쳤다. "이 무지몽매한 요괴 놈아! 네놈이 어찌 감히 샷갯을 쓴 사공으로 변신해 우리 스승님을 낚아채 가느냐? 어서 돌려 보내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괴는 허허 웃으며 말했다. "이 스님은 죽고 사는 법도 모르는구나. 네 스승은 이미 내가 잡았고, 이제 맛있게 찌서 손님 대접을 할 참이다. 네놈도 이리로 올라와서 나와 승부를 겨뤄보자꾸나. 세 합 안에 나를 이기면 네 스승을 돌려보내 주겠지만,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너까지 통째로 찌서 먹어 치울 것이니 서천 근처에는 얼씬도 못 할 줄 알아라!"

사오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보배 지팡이를 휘둘러 머리부터 내리쳤고, 요괴는 강철 채찍을 들어 급히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은 물 밑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시로 이르되,

요괴를 물리치는 지팡이와 대나무 마디 채찍이 두 사람의 분노 속으로 서로 앞서나가네. 한 명은 블랙위터 강에서 천 년을 산 괴물요, 한 명은 영소전 밖에서 지냈던 옛 신선이라. 한 명은 삼장법사의 고기 맛을 탐하여 그렇고, 한 명은 당승의 목숨을 구하고자 애쓰는구나. 물밑에서 서로 맞붙어 싸우니 누가 이길지 끝을 알 수 없네. 싸움이 격렬하여 새우와 물고기는 고개를 저으며 피하고, 게와 자라들은 머리를 움츠려 숨는구나. 보라, 사오정의 위엄을! 홀로 용맹하게 권능을 떨치네. 물결을 가르며 싸우니 승패를 가리기 어렵고, 채찍과 지팡이가 어지럽게 맞물

리네. 결국 이 모든 것은 당 승리를 위해, 진경을 구하고 부처님을 뵙고자 함이라.

두 사람이 서른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사오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요괴는 보통 상대가 아니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가 없으니, 일단 놈을 밖으로 유인해서 사형(손오공)에게 싸우게 해야겠다.'

사오정은 걸으로는 체면을 차리는 척하며 보배 지팡이를 끌고 슬그머니 물 밖으로 물러났다. 요괴는 굳이 쫓아오지 않으며 말했다. "그래, 가거라! 나는 너와 더 싸우지 않으나. 나는 이제 손님을 모시기 위해 초대장을 쓰러 가야겠다."

사오정이 씩씩거리며 물 밖으로 뛰어 나오더니, 손오공을 보고 말했다. '형님, 저 괴물 놈이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한참을 내려갔다가 이제야 나오다니, 대체 어떤 요괴길래 그러느냐? 스승님은 좀 찾았고?' 사오정이 대답했다. '그놈 소굴 안에 정자와 누각이 하나 있는데, 문 앞에 "횡양육 흑수하 신부"라고 커다란 글자로 여덟 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근처에 몰래 숨어서 안에서 나누는 말을 엿들었더니, 부하들에게 철 우리를 닦으라고 시키면서 스승님과 팔계를 통째로 찌놓았다가 외삼촌을 모셔와 생신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제가 문을 두드리며 쳐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괴물이 대나무 마디처럼 생긴 강철 채찍을 들고 나와 저와 한참을 싸웠는데, 서른 합 정도 겨루니 승부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밖으로 끌어내 형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일부러 지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 놈이 아주 영악해서, 저를 쫓아

오지는 않고 그저 손님을 초대할 초대장을 쓰러 돌아가겠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올라온 것입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대체 어떤 요괴냐?' 사오정이 말했다. '생긴 모양이 커다란 자라 같았습니다. 아니면 타룡(鼉龍, 악어 같은 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놈의 외삼촌이라는 자는 대체 누구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굽이진 강가에서 노인 한 명이 걸어 나오더니, 멀찍이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외쳤다. “대성님, 블랙워터 강의 강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 올립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네놈이 배를 젓던 요괴냐? 또 나를 속이려고 온 것이냐?” 노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대성님, 저는 요괴가 아니라 이 강의 진짜 신입니다. 저 요괴는 작년 오월쯤 서양 바다에서 큰 조수가 들어올 때 이곳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제가 맞서 싸웠으나, 워낙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한 탓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머물던 횡양옥 블랙워터 강신부를 요괴에게 빼앗겼고, 제 수하인 물고기들도 많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바다로 달려가 고발하려 했으나, 알고 보니 서해 용왕이 저 요괴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용왕은 제 호소문을 받아주는커녕 저보고 그냥 요괴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살라고 하더군요. 하늘에 고하려 해도 제 직위가 낮고 미천하여 옥제님을 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성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디 힘을 보태어 저의 원한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서해 용왕도 죄가 크구나. 저놈은 지금 내 스승님과 사제를 잡아다가, 아주 폭 삶아서 외삼촌인 용왕의 생일 잔치에 대접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마침 내가 저놈을 잡으러 가려던 참인데, 네가 소식을 전해주러 왔으니

참 잘되었다. 강신 너는 사오정과 함께 여기서 이곳을 지키고 있거라. 나는 바다로 가서 먼저 용왕을 잡아 온 뒤, 그놈이 이 괴물을 잡게 만들겠다.” 강신이 말했다. “대성님의 큰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손오공은 즉시 구름을 타고 서쪽 바다를 향해 곧장 날아갔다. 근두운을 몰아 비수결(물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문)을 외우며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데, 마침 하류 쪽에서 화살이나 북처럼 빠르게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대장 함을 받쳐 들고 있는 검은 물고기 요괴였다.

손오공이 달려들어 요괴의 얼굴을 덮치며 철봉을 휘둘러 머리를 내리치자, 불쌍하게도 요괴는 뇌수가 터지고 턱뼈가 벌어진 채 '꼴깍' 소리를 내며 물 위로 떠올랐다. 손오공이 함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서찰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리석은 조카 타결(鼯潔)이 둘째 외삼촌이신 오(敖) 노대인 어른께 머리 숙여 백 번 절하며 올립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두터운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주 귀한 물건 두 개를 얻었는데, 바로 동토에서 온 승려들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보기 드문 진귀한 것이라 감히 혼자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외삼촌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어, 보잘것없는 잔치를 마련하여 미리 천수(千壽)를 축원하고자 하오니, 부디 어서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놈이 제 죄를 자백한 진술서를 미리 이 몸에게 갖다 바쳤구나.' 그리고는 초대장을 소매에 챙겨 넣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바다를 살피던 야차 하나가 손오공을 발견하고는

급히 몸을 돌려 수정궁으로 달려가 외쳤다. '대왕님, 제천대성 손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용왕 오순은 즉시 수족들을 거느리고 궁 밖으로 나가 마중하며 말했다. “대성, 부디 소궁으로 드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차를 드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나는 아직 네 차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너는 벌써 내 술을 먼저 마셔 버렸구나!” 용왕이 웃으며 말했다. “대성께서는 평소 불교에 귀의하여 고기나 술을 멀리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저에게 술을 권하신 적이 있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대꾸했다. “네가 술을 마시러 가지 않았더라도, 이미 술을 마셨다는 죄명은 지어놓았구나.” 오순이 깜짝 놀라 물었다. “소룡이 무슨 죄를 지었던 말입니까?” 손오공은 소매 속에서 초대장을 꺼내 용왕에게 건네주었다.

용왕은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황급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성, 부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놈은 제 여동생의 아홉 번째 아들입니다. 제 매제가 비바람을 잘못 부려 내릴 비의 양을 줄이는 바람에, 천조(天曹)의 명이 내려져 인조(人曹)의 관리인 위징 승상이 꿈속에서 그를 베어 버렸습니다. 여동생이 갈 곳이 없어지자 제가 저 아이를 데려와 이곳에서 보살피며 키웠습니다. 재작년에 불행히도 여동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저 아이를 머물게 할 곳이 없어 흑수하에서 마음을 다스리며 도를 닦게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런 악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즉시 사람을 보내 저놈을 잡아 오라고 시켰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당신 여동생에게 잘난 아들이 몇이나 있기에, 다들 어디서 요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요?' 용왕이 대답했다. '제 여동생에게는 아홉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중 여덟은

모두 착한 아이들입니다. 첫째인 소항룡은 회독(淮瀆)에 머물고 있고, 둘째인 소려룡은 제독(濟瀆)에 살고 있으며, 셋째인 청배룡은 강독(江瀆)을 차지하고 있고, 넷째인 적염룡은 하독(河瀆)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섯째인 도로룡은 부처님 곁에서 종을 관장하며, 여섯째인 온수룡은 신궁(神宮)에서 용마루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곱째인 경중룡은 옥황상제 곁에서 하늘을 떠받치는 화표(擎天華表)를 수호하고 있으며, 여덟째인 신룡(蜃龍)은 큰형님 곁에서 태악(太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홉째 타룡(鼉龍)은 나이가 어려 아직 이렇다 할 직책이 없기에, 작년부터 흑수하에서 마음을 다스리며 지내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떨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제 명을 어기고 감히 대성께 대드는 것이 아닙니까.'

손행자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물었다. '당신 여동생에게는 매부(妹丈)가 몇이나 있었소?' 오순이 대답했다. '매부는 경하(涇河) 용왕 한 분뿐이었습니다. 지난해 그 일로 처형당한 뒤로, 제 여동생은 홀로 이곳에서 과부로 지내다가 재작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행자가 되물었다.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인데, 어떻게 저런 잡종들이 여럿이나 생겨났단 말ियो?' 오순이 말했다. '그것이 바로 "용은 아홉 종류를 낳는데, 그 아홉 종류가 저마다 다르다(龍生九種, 九種各別)"는 말입니다.' 손행자가 말했다. '마침 내 마음이 언짢던 차에, 이 초대장을 증거로 삼아 천정에 상소를 올려 당신이 요괴와 결탁하여 사람을 납치한 죄를 따져 물으려 했소. 하지만 당신 말대로 그놈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 것이라면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겠소. 첫째는 당신 형제분들의 체면을 봐서이고, 둘째는 그놈이 어리고 철이 없어 벌어진 일이며 당신도 자세히는 몰랐을 테니 말ियो. 어서 사람을

보내 그놈을 잡아 오시오. 그래야 내 스승님을 구하고 뒷일을 처리할 수 있소.' 오순은 즉시 태자 모양을 불러 명령했다. '어서 새우와 물고기 병사 오백 명을 거느리고 가서, 저 어린 타룡(小龍)을 잡아와 죄를 물어라!' 한편, 한쪽에서는 술상을 차려놓고 대성에게 정중히 대접하며 사과하려 했다. 손행자가 말했다. '용왕께서는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이미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무엇하러 술상을 차리시오? 나는 이제 당신 아드님과 함께 가야겠소. 하나는 스승님이 고초를 겪고 계시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내 사제(저팔계)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요.'

늙은 용왕은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 그때 용녀가 와서 차를 올리니, 손오공은 향긋한 차를 한 잔 마시고는 용왕과 작별했다. 이어 모양이 이끄는 군사들을 따라 서해를 떠나니, 어느덧 블랙워터 강에 도착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태자님, 요괴를 꼼꼼히 잡아 주십시오. 나는 육지로 올라가겠습니다."

모양이 대답했다. "대성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저 소룡이 요괴를 잡아 올라와 대성께 먼저 보여드리고, 그 죄를 엄히 다스린 뒤에 스승님을 모시고 돌아가 저희 아버님을 뵙겠습니다."

손오공은 기분 좋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물을 피하는 비결인 피수결을 외우며 물결을 박차고 뛰어올라 동쪽 절벽에 내려앉았다.

그때 사오정이 강신과 함께 마중을 나오며 물었다. "사형, 가실 때는 허공을 날아 가시더니, 어찌 돌아오실 때는 강물을 헤치고 오십니까?"

손오공은 물고기 요괴를 때려잡고 초대장을 얻어낸 일, 용왕을 뺀 일, 그리고 태자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된 경위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사오정은 매우 기뻐하며 모두 강가에 서서 스승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한편, 모양 태자는 부하를 먼저 보내 자신의 수중 궁전 문앞에서 요괴에게 보고하게 했다. "서해 용왕의 태자 모양이 왔다고 합니다."

요괴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모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해하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검은 물고기 정령을 시켜 외삼촌께 초대장을 보내 인사를 올리게 했는데, 왜 아직 답장이 없으신 걸까? 외삼촌은 안 오시고 어째서 사촌 형님이 오신 거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을 순찰하던 작은 요괴가 다시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 강 안쪽에 병사 한 무리가 수중 궁전 서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깃발에는 '서해의 후계자, 모양 소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괴가 말했다. "사촌 형님이 참으로 오만하구나. 아마 외삼촌께서 못 오시게 되니 대신 오라고 명하신 모양이다. 잔치에 오기로 했으면서 어찌 병사까지 거느리고 온단 말이나? 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구나."

요괴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얘들아, 내 갑옷과 강철 채찍을 준비해라. 갑자기 상황이 나빠질지도 모르니, 내가 직접 나가서 형님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겠다."

요괴의 명령을 받은 요괴들은 저마다 손바닥을 비비고 주먹을 불끈 쥐며 전투를 준비했다.

타룡이 문 밖으로 나오니, 정말로 오른쪽에는 해병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이 보였다. 그 모습은 이리했다. 정기에는 수놓은 띠가 휘날리고, 그림 같은 창은 밝은 노을처럼 늘어서 있네. 보검은 찬란한 빛을 머금었고, 긴 창에는 술 장식이 꽃처럼 감겼구나. 활은 초승달처럼 작게 휘었고, 화살은 이리 어금니처럼 꽃혀 있네. 큰 칼은 번쩍번쩍 빛나고, 짧은 몽둥이는 단단하기 그지없구나. 고래와 자라, 조개와 대합이며, 게와 자라, 물고기와 새우가 함께 어우러졌네. 크고 작은 군사들이 가지런히 늘어서니, 창과 칼이 삼대처럼 뽁뽁하구나. 원수(元戎)의 명령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함부로 기어들겠는가? 타룡은 이 광경을 보고 곧장 진영 문 앞으로 가서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사촌 형님, 아우가 여기서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나오시지요!' 진영을 순찰하던 소라 병사가 급히 중군 막사로 달려가 보고했다. '천세 전하께 보고드립니다! 밖에서 타룡이 찾아와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태자는 머리에 쓴 금 투구를 한 번 매만지고 허리의 보배 띠를 단단히 조였다. 그러고는 삼릉간(三稜簡)을 손에 쥐고 성큼성큼 진영 밖으로 나가며 물었다. '네가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느냐?' 타룡이 예의를 갖추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외삼촌께 초대장을 보내 올렸는데, 아마 외삼촌께서 저를 마다하시고 사촌 형님을 보내신 모양입니다. 형님께서 잔치에 오시는 길이라면 어찌하여 군사들을 이토록 많이 움직이셨습니까? 수궁으로 들어오지 않고 왜 이곳에 진을 치고 갑옷을 입고 군사를 거느린 채 서 계시는 것입니까?' 태자가 물었다. '네가 외삼촌을 무엇 때문에 청했느냐?' 요괴가 대답했다. '제가 그동안 은혜를 입어 이곳에 머물

러 왔으나, 오랫동안 존안을 뵈지 못해 효도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동토에서 온 승려 한 명을 잡았는데, 듣기로는 열 생을 수행한 원체(元體)라고 합니다. 그를 먹으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기에, 외삼촌께 보여드린 뒤 철 우리에게 넣어 써서 외삼촌의 생신을 축하하는 음식으로 올리하고자 합니다.' 태자가 호통을 쳤다. '이놈, 참으로 멍청하구나! 그 승려가 누구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요괴가 말했다. '당나라에서 온 승려로,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스님입니다.' 태자가 말했다. '너는 그가 당승인 것만 알지,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는구나.' 요괴가 다시 말했다. '그에게 입이 긴 중이 하나 있는데 저팔계라고 합니다. 그놈도 제가 잡아 두었으니 당승과 함께 써서 먹을 생각입니다. 또 다른 제자 하나는 사화상(沙和尚)이라고 하는데, 거무튀튀하고 재수 없게 생긴 녀석입니다. 보배 지팡이를 휘두르는데, 어제 이 문밖에서 제 스승을 내놓으라며 대들기에 제가 강물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 강철 채찍으로 한바탕 몰아붙였더니, 별것 아닌 듯 패하여 도망치더군요.'

모양이 말했다. '알고 보니 네가 잘 몰랐구나. 그에게는 큰 제자가 하나 있는데, 500년 전 천궁을 크게 어지럽혔던 상방태을금선(上方太乙金仙) 제천대성이다. 지금은 당승을 보호하며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중인데, 보타암(普陀巖)의 대자대비 관세음보살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며 이름을 고쳐주어 손오공 행자라 부른다. 너는 대체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런 화를 불러일으켰느냐? 그가 우리 바다에서 네 심부름꾼을 만나 초대장을 빼앗더니, 곧장 수정궁으로 쳐들어와 우리 부자가 요괴와 결탁하여 사람을 납치했다는 죄를 뒤집어씌우지 않았느냐. 어서 당승과 팔계를 강가로 보내 손 대성에게 돌려주어라. 내가 그에게

사과하기로 할 테니, 그러면 네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아니"라는 말을 반 마디라도 한다면, 여기서 온전히 살아남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 타룡 요괴가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나는 너와 친고종 사촌 사이인데, 너는 도리어 나를 감싸느냐! 네 말대로라면 당승을 그냥 내놓으라는 것인데, 천지간에 어찌 그리 쉬운 일이 있겠느냐? 네가 그를 두려워한다 한들 나까지 그를 무서워할 것 같으냐? 그에게 정 재주가 있거든 감히 내 수부 문 앞까지 와서 나와 세 합만 겨뤄보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스승을 넘겨주마. 만약 나를 당해내지 못한다면 그놈까지 잡아와서 한꺼번에 찢어 먹어버리겠다. 그러면 친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손님을 부를 것도 없이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부하들에게 노래하고 춤추게 하며, 나는 저 윗자리에 앉아 유유자적하게 그놈을 잡아먹으면 그만이다!'

태자가 그 말을 듣고 입을 열어 꾸짖었다. "이 망할 놈! 정말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구나. 순행사와 맞붙게 하지 마라. 네가 감히 나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요괴가 대꾸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맞붙는 게 무엇이 두렵겠소?"

태자가 명령했다. "무장을 갖추어라!"

태자가 한 번 크게 외치자, 주변에 있던 작은 요괴들이 몰려와 갑옷과 무기를 받들어 올렸다. 두 사람은 얼굴색을 바꾸며 당장이라도 영웅대접을 받을 기세로 전투를 준비했고, 신호를 보내자 일제히 북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 싸움은 사오정과 싸웠던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시로 이르되,

깃발은 눈부시게 휘날리고 창과 칼은 빛을 발하네. 진영은 흩어지고
성문은 활짝 열렸구나. 모양 태자는 금간을 들고, 요괴는 채찍을 휘두
르며 맞서 싸우네. 포성 소리에 강물 군사들 용맹하고, 징 소리에 바다
군사들 기세등등하네. 새우는 새우끼리 싸우고 게는 게끼리 다투며,
고래와 거북은 붉은 잉어를 삼키고 물고기 떼는 노란 물고기를 쫓네.
상어는 고등어를 잡아먹고 조개들은 허둥지둥 도망치는데, 어린 물고
기 가시는 철몽둥이처럼 단단하고 바늘 같은 이빨은 칼날처럼 날카롭
구나. 물고기 떼는 서로 쫓고 쫓기며 한 강물 속 괴물들이 승부를 겨루
니, 양쪽 용병들의 힘겨루기가 끝이 없네. 한참 동안 뒤섞여 싸우니 물
결이 요동치고, 모양 태자의 기세는 금강역사와 같구나. 호통 소리에
금간이 머리 위로 내리치니, 요괴를 붙잡아 악한 왕의 자리를 빼앗도
다.

태자가 삼릉창을 휘둘러 빈틈을 보이자, 요괴는 이것이 함정인지 모
른 채 덤석 달려들었다. 그 순간 태자가 재빨리 초식을 펼쳐 요괴의 오
른팔을 쳐내더니, 요괴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이어 태
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발을 한 차례 쿵 내리치자, 요괴는 그대로 땅바
닥에 고꾸라졌다. 해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요괴를 붙잡아 눕히고는,
양손을 뒤로 꺾어 밧줄로 묶은 뒤 비파골(어깨뼈)에 쇠사슬을 꿰어 육
지로 끌어올렸다. 해병들은 요괴를 손오공 앞으로 끌고 가 말했다.

"대성, 소룡자가 요괴를 붙잡아 왔으니 부디 처분을 내려 주십시오."

손오공과 사오정이 요괴를 보자 꾸짖으며 말했다. "이놈! 네놈은 어찌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네 외삼촌께서 원래 네가 이곳에 머물며 몸을 보존하도록 허락하셨고, 네 명성이 높아지면 따로 쓸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셨거늘, 어찌 감히 물의 신이 살던 집을 강제로 빼앗고 세력을 믿고 흉악한 짓을 저지르느냐! 거짓으로 우리 스승님과 사제들을 속이다니, 내 당장 몽둥이로 혼쭐을 내주마. 다만 내 몽둥이가 워낙 무거워서 살짝만 때려도 목숨을 잃을까 걱정이구나. 대체 우리 스승님을 어디에 가두어 두었느냐?"

그러자 요괴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성, 소인은 대성의 함자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사촌 형님의 뜻을 거스르고 억지를 부리다가 형님께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성을 뵈게 되었으니,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은혜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스승님은 아직 저 물속 궁궐에 묶여 계시니, 부디 대성께서 제 죄사슬을 풀어주시고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강물로 가서 스승님을 모셔 나오겠습니다."

곁에 있던 모양이 거들었다. "대성, 이놈은 도리에 어긋나는 요괴입니다. 아주 간사한 놈이니 만약 놓아주었다가는 분명 나쁜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사오정이 말했다. "놈이 있는 곳을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스승님을 찾아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곧장 수중 궁전 문 앞까지 내려갔다. 그곳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지키는 병사 하나 보이지 않았다. 정

자와 누각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당승과 저팔계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뽕뽕 묶여 있었다. 사오정이 서둘러 스승의 결박을 풀어주었고, 강신 또한 저팔계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일행은 한 명씩 등에 업고 물 밖으로 나와 곧장 강가로 올라왔다.

저팔계는 요괴가 옆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는 급히 갈고리를 휘두르며 달려들어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입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못된 놈! 이제는 나를 잡아먹지 못할 것 같으냐?"

손오공이 저팔계를 붙잡으며 말했다. "이보게, 오순의 부자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일단 죽이지는 말고 봐주자고."

그러자 모양이 예를 갖추며 말했다. "손행자님, 저 같은 애송이가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스승님을 구하셨으니, 저는 이놈을 데리고 가서 아버님을 뵈겠습니다. 비록 손행자님께서 죽이는 것만은 면해주셨을지라도, 아버님께서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엄하게 다스려 처벌하실 테니, 나중에 다시 손행자님께 가서 사죄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데려가게나. 어르신께 문안 인사를 잘 전해주고, 나중에 얼굴을 뵈고 다시 감사 인사를 올리겠네."

태자는 요괴를 압송하여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해군들을 거느리고 곧장 서양의 큰 바다로 돌아가 버렸다.

한편, 블랙워터 강신은 손오공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대성께서 저희 수중 관청을 되찾아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그러자 삼장이 물었다. "제자야, 우리가 아직 동쪽 기슭에 머물고 있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느냐?"

강신이 대답했다. "스님, 걱정 마십시오. 우선 말에 올라타십시오. 소신이 길을 열어 스님을 모시고 강을 건너겠습니다."

삼장이 백마에 올라타자, 저팔계는 고삐를 잡았고, 사오정은 짐을 짊어졌으며, 손오공은 스승의 좌우를 부축하며 따랐다. 강신이 물길을 막는 법술을 부리자 상류의 물이 차단되었고, 순식간에 하류의 물이 빠지면서 넓은 길이 나타났다. 스승과 제자들은 서쪽으로 걸어가 강신에게 감사를 표한 뒤, 절벽을 올라 길을 떠났다.

시로 이르되, "선승은 서천으로 향하는 구도의 길을 가니, 검은 강에 물결 하나 없이 평온히 건너가네."

결국 어떻게 불공을 드리고 경전을 구하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4회 — 법신이 원운하여 수레의 힘을 만나고, 마음이 바르니 요사스러운 것들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다

法身元運逢車力 心正妖邪度脊關

시로 이르되,

경전을 구하려 장애를 벗어나 서천으로 떠나니 수많은 명산은 끝없이 이어지는구나. 토끼는 달리고 까마귀는 날며 낮과 밤을 재촉하고 새는 지저귀며 꽃은 떨어지니 봄과 가을이 절로 흐르네. 눈앞의 작은 먼지 속에도 삼천 세계가 담겨 있고 지팡이 끝이 닿는 곳마다 사백 주가 펼쳐져 있도다. 길 위에서 물을 마시고 바람을 맞으며 나아가니 언제쯤 다시 돌아갈 날이 올는지 모르겠구나.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삼장은 다행히 용자의 도움으로 요괴를 물리치고 흑수하의 하신이 길을 열어준 덕분에, 스승과 제자들이 무사히 흑수하를 건너 큰길을 따라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바람을 맞고 눈을 뒤집어쓰며, 달빛 아래 밤을 지새우고 별을 머리에 이고 가는 고된 여정이었다. 한참을 나아가니 어느덧 초봄이 되었다.

시로 이르되.

삼양의 기운이 운행하니 하늘은 밝은 그림을 펼쳐 놓은 듯하고, 만물이 빛을 발하니 온 땅은 꽃비 내린 비단 양단 같구나. 매화는 지고 눈 몇 점 남았으나, 보리밭엔 구름 같은 이슬이 차오른다. 얼음 녹아 산골짜기 샘물 흐르고, 싹은 돌아나 타버린 흔적조차 없네.

이때는 바로 태호가 진동의 기운을 타고 구망이 별을 몰아 운행하는 때였다. 꽃향기는 그윽하고 바람은 따스하며, 구름은 벌어지고 햇살은 새로이 빛났다. 길가에는 버드나무가 푸른 눈을 뜨듯 잎을 틔우고, 단비는 만물을 적시며 봄의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었다.

스승과 제자들은 길을 가며 경치를 구경하고 말을 천천히 몰아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는 듯한 커다란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당삼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말을 붙잡아 세우고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급히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오공아, 저게 대체 무슨 소리냐?” 저팔계가 말했다. “마치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는 소리 같구먼.” 사오정이 말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치는 소리 같습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아니,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말의 울음소리 같구나.” 그러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다들 엉뚱한 추측만 하고 있네. 잠시만 기다려 봐, 내가 가서 뭔지 확인해 볼 테니까.”

손오공이 몸을 훌쩍 날려 구름을 밟고 공중으로 솟아올라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멀리 성곽 하나가 보였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은은한 상서로운 빛이 감돌 뿐, 흉악한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곳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란스러운 거지? 성안에 깃발이나 창칼이 나부끼는 것도 아니고, 대포 소리가 울리는 것도 아닌데, 어찌 저리 사람과 말들이 떠드는 소리가 요란할까?'

의아해하던 차에 성문 밖 모래사장 공터에 수많은 승려가 모여 수레를 끌며 고생하는 모습이 보였다. 알고 보니 승려들이 한꺼번에 힘을 쓰며 "대력왕보살!"이라고 크게 외쳐대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당삼장이 깜짝 놀란 것이었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내려가 살펴보니, 아! 수레에 실린 것은 모두 기와와 목재, 흙벽돌 같은 것들이었다. 언덕길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데다, 그 위로는 갈라진 틈 사이로 난 좁은 길과 두 개의 큰 관문이 버티고 있었다. 관문 아래로 이어진 길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라, 저 무거운 수레를 대체 어떻게 끌고 올라간단 말인가? 날씨는 따스하고 포근했지만, 수레를 끄는 사람들은 옷이 다 해져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그 모습이 무척이나 고달파 보였다.

손오공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다. "사찰을 짓는 모양인데, 이곳에 곡식이 풍족해서 일꾼을 구하지 못하니 저 스님들이 직접 고생하며 일하는 건가?"

한창 추측에 잠겨 있는데, 성문 안에서 어린 도사 두 명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차림새를 보니 이려했다.

시로 이르되, 머리에 별 모양 관을 써서 빛이 나고 몸에는 비단옷을 걸쳐 노을처럼 화사하구나. 발에는 구름을 밟는 듯한 신을 신고 허리에 매끄러운 비단 끈을 땀도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밝고 영특해 보이며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신선 같구나.

도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승려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려 더욱 힘을 다해 수레를 끌며 괴로워했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은 금세 상황을 파악했다. "이런! 저 스님들이 도사들을 무서워하는 게 분명하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필사적으로 수레를 끌겠어? 예전에 서천으로 가는 길에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틀림없이 이곳이로구나. 스승님께 돌아가 보고하고 싶지만, 사정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돌아갔다가 괜히 스승님께 꾸중만 들을 수도 있겠어. 나처럼 영리한 녀석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면 안 되지. 일단 좀 더 지켜보며 자세히 물어본 뒤에 스승님께 말씀드려야겠다."

그가 누구를 찾아왔겠느냐? 대성인 손오공이 구름에서 내려와 성곽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몸을 흔들며 둔갑술을 부리더니, 왼쪽 팔에 물과 불을 담는 바구니를 메고 손에는 어고(나무로 만든 타악기)를 든 채 도가 노래를 부르며 떠돌아다니는 수행자로 변신했다. 성문에 다다르자 손오공은 마주 오던 도사 두 명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다.

“도장님, 소도가 인사를 올립니다.”

도사가 답례하며 물었다.

“선생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자는 바다 끝을 떠돌고 하늘 끝을 방랑하는 수행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르러 선량한 분들을 찾아다니려 합니다. 두 도장님께 여쭙건대, 이 성 안의 어느 거리가 도를 닦기에 좋으며, 어느 골목에 어진 이들이 살고 있습니까? 소도가 가서 공양을 좀 얻어먹으려 합니다.”

그러자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보시오, 선생. 어찌 그리 흥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까?”

손오공이 되물었다.

“흥을 깨다니요?”

도사가 말했다.

“공양을 좀 얻어먹으러 다닌다니, 그게 바로 흥을 깨는 일 아니겠습니까?”

손오공이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출가한 사람이 구걸을 해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공양을 얻어먹지 않으면 어찌 돈을 마련하겠습니까?”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멀리서 오시다 보니 우리 성 안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우리 성 안은 문무 관원들이 도를 숭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유한 백성들과 어른들도 어진 이를 아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도사들을 보면 공양을 올리겠다고 절을 하니, 그런 건 말할 필요도 없지요. 무엇보다 가장 으뜸은 우리 임금님께서 도를 숭상하고 어진 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제가 나이도 어린 데다 멀리서 막 도착한 처지라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두 도사님께서 이곳 지명이 어디인지, 그리고 임금님이 어찌하여 도사님들을 이토록 아끼고 존경하시는지 자세히 들려주신다면, 도를 닦는 동료로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겠습니다."

도사가 대답했다. "이 성의 이름은 차지국이라 하오. 보전의 임금님께서는 우리와 친분이 깊으시지."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허허 웃으며 물었다. "도사님이 황제라도 되셨나 보군요?"

그러자 도사가 말을 이었다. "아니오. 이십 년 전, 이 땅에 지독한 가뭄이 들어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에는 곡식조차 자라지 못했소. 임금님부터 백성들까지, 크고 작은 집마다 향을 피우고 하늘에 빌며 비를 내려달라고 애원했지. 모두가 죽음의 문턱에서 간절히 빌

고 있을 때, 갑자기 세 분의 신선께서 내려오셔서 중생들을 구해주셨소."

손오공이 물었다. "그 세 분의 신선이 누구입니까?"

도사가 말했다. "바로 우리 스승님들이요."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스승님들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도사가 대답했다. "첫째 스승님은 호력대선이시고, 둘째 스승님은 녹력대선, 셋째 스승님은 양력대선이시오."

손오공이 물었다. "그 세 분 스승님의 법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도사가 말했다.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이나 쉽게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시며, 물을 기름으로 바꾸고 돌을 금으로 만드는 일도 몸을 돌리는 것만큼이나 가볍게 해내신다오. 그토록 엄청난 법력을 지니셨으니 천지의 조화를 다스리고 별들의 운행까지도 바꾸실 수 있지. 그러니 임금님과 백성들이 스승님들을 공경하며 우리와 친분을 맺게 된 것이요."

손오공이 말했다. "이 나라 황제는 정말 운이 좋군. 흔히 말하기를 '술법이 있으면 고위 관직도 움직인다'고 하더니, 스승님께서 그런 수단을 가지셨으니 혼인을 하신 것도 사실 그분께 큰 이득이 되겠어. 에이! 나 같은 도사에게도 그런 스승님을 한 번 뵈 수 있는 인연이 있을까 모르겠네?"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스승님을 뵈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희 둘은 스승님 품 안에서 자란 제자들입니다. 게다가 우리 스승님은 도를 닦고 어진 이를 아끼는 걸 좋아하셔서, '도'라는 말만 들어도 대문 밖까지 마중 나오실 분이예요. 저희가 안내만 해드린다면 식은 죽 먹기죠."

손오공이 깊숙이 머리를 숙여 절하며 말했다. "추천해 주시니, 그럼 이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사가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 저희가 공무를 좀 보고 돌아와서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출가한 사람들은 구속도 없고 자유로운 법인데, 무슨 공무가 그리 많소?"

도사가 손가락으로 모래사장에 있는 승려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들이 우리 집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게으름을 피우며 숨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가서 인원 점검만 하고 금방 오겠습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도사님, 착각하신 게 있군요. 승려나 도사나 모두 출가한 사람들인데, 어찌 저들이 우리 일을 대신하고 우리가 그들을 점검한단 말ियो?"

도사가 대답했다. "그걸 모르시는군요. 예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승려들은 한쪽에서 불공만 드리고 도사들은 한쪽에서 기도를 올리며 조정의 양식을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이 쓸모가 없더군요. 헛되이 경전만 외울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스

승님이 나타나 바람과 비를 불러일으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주셨지요. 그러자 조정에서 화가 나 '저 스님들은 쓸모없다'며 절 문을 허물고 불상도 부수었으며, 승려 자격증도 몰수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으로 우리 집 일을 하는 하인처럼 부리게 한 것이지요. 우리 집에서 불을 때고, 마당을 쓸고, 문을 지키는 일까지 모두 저 스님들이 합니다. 게다가 뒤쪽에 지을 집이 아직 덜 지어져서, 저 스님들에게 벽돌을 나르고 나무를 끌어와 집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게으름을 피우며 수레를 끌지 않을까 걱정되어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도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인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인연이 닿지 않아 스승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라니까요." 도사가 물었다. "어찌 인연이 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미천한 도가 이곳저곳을 떠도는 것은, 첫째로는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친척을 찾기 위함입니다." 도사가 다시 물었다. "친척이라니, 대체 어떤 친척을 찾으시는 겁니까?" 손오공이 말을 이었다. "어릴 적에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숙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예전에 흥년이 들었을 때 밖으로 나와 구걸하며 지내셨는데, 몇 년째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이번 길에 잠시 들러 찾아보려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런 곳에 묶여 있어 몸을 빼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숙부님을 찾아서 얼굴이라도 한 번 뵙고 나야 당신들과 함께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말했다. "그러면 아주 쉬운 일이지요. 우선 우리 둘은 여기 앉아 있을 테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저 모래사장 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승

려가 오백 명 정도 되는데 확인하고, 그중에 당신의 숙부가 있는지 봐 오면 됩니다. 만약 정말 있다면, 우리가 도를 닦는 정을 생각해서 그를 놓아주도록 하지요. 그러면 당신도 기분 좋게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오공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깊숙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 그리고 도사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어고를 두드리며 모래사장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굽이진 길을 지나 좁은 골목을 돌아 들어가자, 승려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다.

"나리, 저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백 명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여기서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요."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은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다. '이 승려들이 도사들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가짜 도사인 나만 보고도 저렇게 겁을 먹는단 말인가. 만약 진짜 도사가 나타난다면 정말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손오공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무릎 꿇지 마라, 겁먹을 것 없다. 나는 감독관이 아니라 친척을 찾으러 온 사람이다."

승려들은 친척을 찾으러 왔다는 말에 반가워하며 손오공을 에워싸고 물려들었다. 저마다 얼굴을 내밀고 헛기침을 크게 해대며, 어떻게든 자신을 친척으로 인정해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들은 "대체 누구의 친척이십니까?"라고 물었다.

손오공은 한참 동안 그들을 살펴보더니,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승려들이 물었다. "나리, 친척을 알아보지 못하시면서 왜 웃으십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너희가 내가 왜 웃는지 아느냐? 너희 승려들이 하나같이 잘생긴 구석이라곤 눈을 찢고 봐도 없어서 웃는 것이다. 부모님이 너희를 낳았을 때, 아마도 사주에 화개살이 끼어 아버지를 해치고 어머니를 잡거나, 형제자매와도 인연이 없는 팔자라 너희를 버려 출가시킨 모양이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삼보(불교의 세 가지 보물)를 따르지 않고, 불법을 공경하지 않으며, 경전을 읽거나 참회하지도 않으면서 도사들의 노역꾼이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승려들이 대답했다. "나리, 지금 저희를 놀리시는 겁니까? 나리께서는 분명 외지에서 오신 분이랴 이곳 사정이 얼마나 가혹한지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정말로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 이곳 사정이 얼마나 가혹한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승려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나라 임금은 편애가 심하고 도리에 어긋나서, 오직 어르신들 같은 도사들만 좋아하고 저희 같은 불자들은 미워합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승려들이 대답했다. "그건 바로 비를 부르고 바람을 일으키는 세 명의 신선이 이곳에 나타나 저희를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임금을 속여 저희 절을 허물게 하고, 승려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첩까지 빼

앗아 버렸습니다. 저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없게 만든 채 그 신선들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로 부리고 있으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떠돌이 도사가 이곳에 오기만 하면 임금에게 추천하여 상을 받게 해주지만, 저희 같은 스님들이 오면 멀리서 왔든 가까이서 왔든 상관없이 모두 붙잡아 신선들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써버립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필시 그 도사들이 임금을 유혹할 만한 어떤 교묘한 술법을 부린 모양이군요. 단순히 비를 부르고 바람을 일으키는 정도라면 그저 잔재주에 불과할 텐데, 어찌 임금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승려들이 말했다. "그들은 모래를 뭉쳐 수은을 만들고, 가부좌를 틀어 앉아 정신을 집중하며, 물을 기름으로 바꾸고 돌을 금으로 만드는 술법을 부립니다. 지금은 삼청관을 크게 세워놓고 밤낮으로 하늘과 땅을 향해 경전을 읽으며 참회하고, 임금이 만 년 동안 늙지 않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마음이 홀려버린 것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사정이 그렇구려. 그럼 그냥 다들 떠나버리시오."

그러자 승려들이 대답했다. "나으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 도사님들이 임금님께 청하여 저희의 초상화를 그린 뒤, 사방에 짝 붙여놓았거든요. 이 차지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 어느 고을이나 마을, 심지어 작은 주막까지도 전부 스님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임금님이 직접 쓴 글귀까지 적혀 있지요. 만약 관직이 있는 사람이 스님 한 명을 잡아 오면 관직을 세 단계나 올려주고, 관직이 없는 사람이라도 스님

한 명만 잡아 오면 은자 쉰 냥을 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이나 대머리, 머리숱이 적은 사람이라도 다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 잡으러 다니는 포졸도 많고 염탐하는 자들도 널려 있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여기서 고생하며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사정이 그렇다면, 너희는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냐."

승려들이 대답했다. "나으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잡아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한 승려가 이천여 명이나 되는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뜨거운 불길을 이기지 못하며, 추위를 참지 못하고, 낯선 땅의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해 죽은 자가 육칠백 명은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도 칠팔백 명이나 되고요. 오직 저희 다섯 백 명만이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어째서 죽지 못한다는 말이나?"

승려들이 말했다. "목을 매면 줄이 끊어지고, 칼로 목을 베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강물에 뛰어들면 몸이 떠올라 가라앉지 않고, 독약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이 몸이 평온합니다."

손오공이 비꼬듯 말했다. "그거 참 운도 좋구나. 하늘이 너희에게 장수하라고 복을 내린 모양이다."

승려들이 탄식하며 말했다. "나으리, 말씀 중에 글자 하나를 틀리셨습니다. 장수(長壽)가 아니라 '장수(長受)죄', 즉 죄를 길게 받는 것이지요. 저희는 하루 세 끼를 거친 쌀로 끓인 뭍은 죽으로 겨우 때우고, 밤이 되면 모래사장에서 이슬을 맞으며 몸을 의탁합니다. 겨우 눈을 붙이려 하면 신령한 존재들이 나타나 저희를 감싸 안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너무 고되게 일해서 귀신이라도 보이는 것이냐?"

승려들이 대답했다. "귀신이 아니라 육정육갑(六丁六甲, 도교의 신들)과 가람을 수호하는 신령들입니다. 밤마다 오셔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지요. 하지만 죽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붙잡아 죽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손오공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 신령들이라는 자들도 참 앞뒤가 안 맞는구나. 너희가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도와줘야지, 어째서 죽지 못하게 보호한다는 말이냐?"

승려들이 말했다. "그 신령들이 꿈속에 나타나 저희를 달랠니다. 죽으려 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이죠.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오는 성스러운 승려를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그 승려에게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제천대성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신통력이 광대하고 충직한 마음으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으며, 곤경에 처한 이를 돕고 외로운 이들을 돌보는 분이지요. 그분이 오셔서 신통력을 발휘해 저 도사들을 멸하고, 여러분 같은 승려들의 법을 다시 세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다. '이 몸이 수단이 없는 줄 아느냐? 이미 신성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거늘!' 그는 재빨리 몸을 움직여 어고(나무 북)를 두드리며 승려들과 작별하고 성문 앞으로 가서 도사를 마주했다.

도사가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저 승려들 중 누가 당신의 친척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 다섯 백 명 모두가 내 친척이다."

두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친척이 많을 수 있단 말이지?"

손오공이 말했다. "백 명은 내 왼쪽 이웃이고, 백 명은 오른쪽 이웃이며, 백 명은 내 아버지 쪽 친척이고, 백 명은 어머니 쪽 친척이며, 나머지 백 명은 내 친한 친구들이다. 만약 네놈들이 저 다섯 백 명을 모두 풀어준다면 나도 함께 들어가 주겠지만, 풀어주지 않는다면 가지 않겠다."

도사가 말했다. "제정신이 아니군. 갑자기 왜 헛소리를 하는 게냐? 저 스님들은 국왕께서 하사하신 분들이다. 만약 한두 명이라도 마음대로 풀어줬다가는 스승님께 병이 났다고 보고한 뒤에 죽었다고 거짓 보고까지 해야 할 판인데, 어떻게 전부 다 풀어준단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게다가 우리에게 부릴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정에서도 이를 문제 삼을 것이다. 관리가 조사하러 오거나 황제가 직접 점검하러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풀어줄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안 풀어준단 말이냐?"

도사가 대답했다. "안 풀어준다!"

손오공은 연거푸 세 번을 묻더니 버럭 화를 냈다. 그러고는 귀에서 철봉을 꺼내 바람을 가르며 몇 번 휘둘러 굼기를 맞춘 뒤, 도사의 얼굴을 향해 단숨에 굼어버렸다. 가련하게도 도사는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살점이 터지고 목이 꺾여 뇌수가 쏟아질 정도로 처참하게 맞아 죽고 말았다.

물가에 있던 승려들이 멀리서 손오공이 도사 두 명을 때려눕히고 수레를 버려두는 것을 보고는, 허겁지겁 달려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황족을 때려죽였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황족이라니, 그게 누구냐?"

승려들이 손오공을 둥그렇게 에워싸고 말했다. "그분들의 스승님은 전각에 올라가도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전각에서 내려와도 임금께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을 만큼 높으신 분들입니다. 조정에서는 늘 '국사 형장 선생'이라 부르며 높이 받드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여기서 화를 일으키는 거요? 그분들의 제자가 감독하러 나온 것이니 당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찌 제자를 때려죽였단 말ियो? 그 신선님들은 당신이 죽였다고는 하지 않고, 그저 감독하러 나온 사람을 우리가 해쳐서 목숨을 앗아갔다고만 하니, 우리는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यो? 일단 우리와 함께 성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 봅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모두들 소란 피우지 마시오. 나는 도사들도 아니고, 당신들을 괴롭히러 온 것도 아니오. 당신들을 구하러 온 것 이란 말이오."

승려들이 반박했다. "사람을 때려죽여서 우리에게 짐만 지우고 있는 데, 이게 어찌 구하는 것이란 말이오?"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는 당나라 성승의 제자인 손오공이라 하오. 특별히 당신들의 목숨을 구하러 이곳에 왔소."

그러자 승려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오, 아니오. 그 어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소."

손오공이 되물었다. "본 적도 없으면서 어찌 안다는 말이오?"

승려들이 말했다. "우리는 꿈속에서 한 노인을 뵈 적이 있소. 스스로 태백금성이라 밝히며 우리에게 늘 가르침을 주셨는데, 손오공의 생김새를 알려주시며 절대 잘못 알아보지 말라고 당부하셨소."

손오공이 궁금하여 물었다. "그가 당신들에게 뭐라고 하더냐?"

승려들이 대답했다. "그분께서 대성(손오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빛 눈은 이마에서 번쩍이고 둥근 머리에 뺨도 없는 털투성이 얼굴이라. 날카로운 이와 뾰족한 입을 가졌으니 성격은 고약하고 뇌공처럼 괴상하게 생겼구나. 금테 두른 철봉을 휘두르는 데 익숙하여 일찍이 하

늘의 궁궐을 쳐서 열어젖혔으나 이제는 바른 길로 귀의하여 승려를 보호하러 왔으니 오로지 세상의 재앙을 구하러 왔도다.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면서도 기뻐했다. 기쁜 마음으로는 "이 늙은이가 내 이름을 대신 전해주다니!"라고 했으나, 화가 나서 "그 늙은 도둑놈이 내 본모습까지 이 범인들에게 다 떠들어 놓다니!"라며 투덜거렸다. 그러다 문득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여러분, 사실 나는 손오공이 아니라 그의 제자라오. 여기서 사고 치는 법을 배우러 온 것이지. 진짜 손오공은 저기에 있지 않소?"

손오공이 손으로 동쪽을 가리키자, 승려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 틈을 타 손오공은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제야 승려들은 손오공임을 알아보고는 하나같이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대인, 저희가 미천한 눈을 가져 대인께서 나타나신 줄 몰랐습니다. 부디 저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재앙을 없애 주시어, 어서 성안으로 들어가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바른 것을 세워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승려들은 손오공의 뒤를 바짝 따랐다.

손오공은 모래사장까지 단숨에 달려가 신통력을 부렸다. 수레를 두 관문을 지나 협척(夾脊)을 통과하게 한 뒤, 공중으로 들어 올려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수레를 이루던 벽돌과 나무 조각들도 모두 언덕 아래로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승려들에게 호통을 쳤다.

"흠어져라! 내 발치에 머물지 마라. 내일 황제를 만나 저 도사 놈들을 멀해버릴 테니!"

승려들이 대답했다.

"아이고, 대인! 저희가 감히 멀리 떠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관원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게 되면, 몸값을 치르느라 고생만 하고 또 다른 재앙을 당할까 두렵사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법력을 하나 주마."

손오공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아 입안에서 잘게 씹어 으갠 뒤, 승려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것을 무명지 손톱 밑에 넣고 주먹을 짹 쥐 채 길을 가거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누군가 너를 붙잡으려 한다면 주먹을 짹 쥐고 '제천대성!'이라고 크게 외쳐라. 그러면 내가 달려가 너를 지켜주마."

승려들이 물었다.

"대인, 만약 저희가 너무 멀리 가서 대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어찌합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라. 설령 만 리 밖이라 해도 아무 탈 없이 지켜줄 테니."

그중 담력이 큰 승려 하나가 주먹을 짝 쥐고 나직하게 외쳤다.

"제천대성!"

그러자 눈앞에 뇌공이 나타나 철봉을 쥐고 서 있었으니, 설령 천군 만마가 몰려온다 해도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기세였다. 이어 백여 명의 승려가 일제히 외치니, 백여 명의 손오공이 그들을 호위하는 격이 되었다. 승려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인, 정말로 신통력이 놀랍습니다!"

손오공이 다시 분부했다.

"마지막에 '적(寂)' 자를 외치면 다시 거두어 가겠다."

실제로 "적!" 하고 외치자, 손톱 밑에 있던 머리카락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승려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기뻐하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손오공이 말했다.

"너무 멀리 도망가지는 마라. 성안의 소식을 들어보고 승려를 모집한다는 방이 붙으면, 그때 다시 성으로 들어와 내 머리카락을 가져가거라."

오백 명의 승려들은 동쪽으로 가는 이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이는 서쪽으로, 달아나는 이와 서 있는 이가 뒤섞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한편, 당삼장은 길가에서 손오공이 돌아와 소식을 전하기를 기다리다 못해, 저팔계에게 말을 몰아 서쪽으로 가라고 시켰다. 그러다 길을 달려가던 중 분주히 움직이는 승려들을 마주쳤다. 성 근처에 다다르니, 손오공이 아직 흠어지지 않은 십여 명의 스님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보였다. 당삼장이 말을 멈춰 세우며 말했다.

"오공아, 어찌하여 소식을 알아보러 가더니 이토록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이냐?"

손오공은 십여 명의 스님을 데리고 당삼장 앞에 나아가 예를 갖추 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당삼장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사정이 그러하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자 십여 명의 스님이 대답했다.

"스님, 안심하십시오. 손 대성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과 같아神通력이 대단하시니, 반드시 스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성안에 국가가 세운 지연사의 승려들입니다. 이 절은 선왕 태조께서 직접 세우신 곳이라, 그 안에 태조의 신상이 모셔져 있어 아직 허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안의 다른 절들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부디 서둘러 성안으로 들어가 저희가 있는 황량한 산속 절에 머무십시오. 내일 아침이 되면 손 대성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대들 말이 옳다. 좋다, 어서 성안으로 들어가자."

지연사 노승은 막 말에서 내려 성문 아래로 걸어갔다.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돌다리를 건너 세 겹의 성문을 지나자,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지연사의 승려들이 말을 끌고 짐을 짊어진 것을 보고는 모두 길을 비켜주었다. 한참을 걸어가 산문에 이르니, 문 위에는 '칙건지연사'라는 금색 글자가 새겨진 커다란 편액이 높이 걸려 있었다. 승려들이 문을 열고 금강전을 지나 정전의 문을 열었다. 당삼장은 가사를 꺼내 몸에 걸치고 금빛 불상을 향해 절을 올린 뒤 안으로 들어갔다. 승려들이 "문지기 불러라!" 하고 외치자 늙은 승려가 걸어 나왔다. 그는 손오공을 보자마자 넙죽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대인, 드디어 오셨군요!"

손오공이 물었다.

"나를 대체 어떤 대인이라 여기기에 이토록 절을 하는 것이냐?"

그러자 노승이 대답했다.

"당신이 바로 제천대성 손 대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밤마다 꿈속에서 대인을 뵈었습니다. 태백금성께서 자주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대인께서 오셔야만 저희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꿈에서 뵈던 그 존안을 직접 뵈니 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인! 어찌나 빨리 오셨는지요. 만약 하루 이틀만 더 늦었더라면 저희는 모두 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만 일어나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니."

승려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양을 사제들이 맛있게 먹었다. 그들은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룻밤을 편안히 보냈다.

밤이 깊어 이경이 되었을 때, 손오공은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있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어디선가 악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살며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살펴보았다. 보니 정남쪽에서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구름 아래로 머리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로 삼청관 도사들이 별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은 이랬다.

영험한 기운이 서린 높은 전각과 복된 땅의 진실한 법당이로다. 높은 전각은 웅장하여 평후산의 경치를 닮았고, 진실한 법당은 은은하여 화락궁처럼 맑구나. 양옆에서는 도사들이 피리와 관악기를 연주하고, 정면에서는 높은 도사가 옥으로 만든 서판을 받들었네.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참회를 올리며, 도덕경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니, 부적을 써서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하늘에 고하는 의식을 마칠 때마다 모두가 엎드려 절하네. 주문을 외우는 물이 솟구치고 솟불은 일렁이며 하늘로 치솟으며, 별자리를 살피고 진법을 펼치니 향연이 짙어 청명한 하늘까지 닿는구나. 제단 위에는 신선한 제물이 놓여 있고, 탁자 위에는 풍성한 재찬이 차려져 있네.

전각 문 앞에는 황금빛 비단으로 짠 대련이 걸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스물두 글자의 큰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다. "비는 순조롭고 바람은

고르게 불어, 천존의 무량한 법력을 축원하며, 강물은 맑고 바다는 평온하여, 만세토록 풍요로운 세월을 기도하노라."

손오공이 보니 법복을 입은 세 명의 노도사가 있었는데, 아마도 호력, 녹력, 양력대선일 것이었다. 그 아래로는 칠팔백 명의 무리가 복과 종을 치고 향을 받들며 하늘에 고하는 일을 맡아 양옆에 줄지어 서 있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했다.

'내 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싶은데, 혼자서는 힘이 부족하니 일단 돌아가서 저팔계와 사오정을 챙겨온 뒤에 다 함께 가서 한판 놀아줘야겠다.'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방장실 안으로 곧장 들어갔더니, 저팔계와 사오정은 이미 발을 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손오공이 먼저 사오정을 흔들어 깨우자, 잠에서 깬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손오공이 말했다.

"일단 일어나 봐. 너랑 같이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가려고."

사오정이 되물었다.

"이 깊은 밤중에 입은 마르고 눈은 뻑뻑한데, 무슨 맛있는 게 있다고 그러세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성안에 정말로 삼청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 거기 도사들이 수행을 하는데, 삼청전에는 공양물로 올려둔 게 아주 많아. 만두는 한 말이나 될 정도로 크고, 구운 과일은 하나에 쉰 근에서 예순 근은 되어 보이더라. 곁들여 먹는 밥도 셀 수 없이 많고 과일도 아주 싱싱해. 너도 가서 같이 먹자니까."

한편, 꿈속에서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들은 저팔계가 그 소리에 번쩍 눈을 뜨며 말했다.

"형님, 저도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손오공이 말했다.

"이놈아, 먹을 게 있으면 조용히 말해야지,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다 스승님이라도 깨우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다들 나를 따라와!"

두 소년 도사는 옷을 챙겨 입고 몰래 문밖으로 나갔다. 손오공은 구름을 밟고 훌쩍 뛰어올라 그 뒤를 쫓았다. 멍하니 지켜보던 저팔계는 등불 빛이 보이자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손오공이 저팔계를 붙잡으며 말했다.

"서두르지 마. 저들이 흩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가자."

그러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저들이 한창 흥겹게 경전을 읽고 있는데, 순순히 그만둘 리가 있겠어?"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가 방법을 써서 흠어지게 만들 테니 걱정 마.”

대성 손오공은 주문을 외우며 손가락으로 결인을 맺더니, 바람의 방향인 손방(巽方) 쪽에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입을 크게 벌려 후 하고 불어내니, 거센 광풍이 되어 삼청전 안으로 곧장 몰아쳤다. 바람은 전 안에 있던 꽃병과 촛대를 휩쓸고, 사방 벽에 걸려 있던 공덕패까지 모조리 쓸어버리며 등불을 모두 꺼뜨려 버렸다.

깜짝 놀란 도사들이 벌벌 떨었다. 호력대선이 말했다.

“제자들은 이만 흠어지거라! 신령한 바람이 불어와 등불과 초, 꽃들을 모두 꺼뜨렸으니,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경전을 여러 권 더 읽어 부족함을 채우도록 해라.”

도사들은 그 말에 따라 서둘러 각자의 방으로 물러갔다.

한편,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오정을 데리고 구름 아래로 내려가 삼청관의 삼청전으로 들이닥쳤다. 저팔계는 음식이 익었는지 생것인지 따질 겨를도 없이, 구석에 놓인 구운 과일을 집어 들고는 입을 크게 벌려 덥석 베어 물었다. 그러자 손오공이 여의봉을 뽑아 들고는 곧장 손을 휘둘러 때리기 시작했다. 저팔계는 얼른 손을 거두며 피하며 말했다.

"아직 맛도 제대로 못 봤는데 벌써 때리면 어떡해!"

손오공이 말했다.

"잔피 부리지 말고, 예의를 갖춰 앉아서 느긋하게 즐기자고."

저팔계가 대꾸했다.

"부끄럽지도 않아? 남의 물건을 훔쳐 먹으면서 예의를 차리다니. 나 중에 정식으로 대접받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손오공이 물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대체 어떤 보살님이시냐?"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삼청(三清)도 못 알아보면서 무슨 보살님을 찾는 거야?"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 삼청이 누구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원시천존이고, 왼쪽에 계신 분이 영보도군, 오른쪽에 계신 분이 태상노군이야."

손오공이 말했다.

"모두 저분들 모습으로 변해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겠구나."

음식을 향한 욕심에 눈이 먼 저팔계는 향긋한 공양물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높은 제단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태상노군 신상을 입으로 들이받아 밀어내며 외쳤다.

"영감님, 당신도 앉아 있을 만큼 앉았으니, 이제 이 저팔계가 좀 앉아 봅시다!"

그 뒤로 저팔계는 태상노군으로, 손오공은 원시천존으로, 사오정은 영보도군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신상들을 모두 바닥으로 밀어버렸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팔계는 커다란 만두를 낚아채듯 집어 들고 먹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서두르지 마라.” 그러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형님, 이렇게 변신까지 해서 들어왔는데, 안 먹고 뭐 합니까?”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이 사람아, 먹는 건 작은 일이지만 천기(하늘의 비밀)를 누설하는 건 큰일이다. 신상들을 이렇게 바닥에 내팽개쳐 놓았다가, 만약 아침 일찍 온 도사가 종을 치거나 마당을 쓸다가 발이라도 헛디디면 소문이 나지 않겠느냐? 얼른 저것들을 한쪽으로 치워 두거라.”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여기는 낯선 곳이라 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숨깁니까?” 손오공이 알려주었다. “내가 들어올 때 보니 오른쪽 아래에 작은 문이 하나 있더구나. 그 안은 오물이 가득한 걸 보니 필시 오곡유회소(변소)일 테니, 거기다 던져 버리거라.”

이 어리석은 놈은 힘이 제법 좋아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세 신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밖으로 메고 나왔다. 그러고는 저쪽 문을 발로 차서

열고 살펴보니, 세상에, 그곳은 커다란 공동 변소였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이 비마온 녀석이 참으로 말솜씨가 좋구나. 이 지저분한 구덩이에 도 도호를 붙여놓다니, 이름이 무엇이라 했더라? 아하, '오곡윤회소'라고 했지!"

저팔계는 신상들을 어깨에 멘 채 떨어뜨리지 않으려 애쓰며, 입으로는 중얼중얼 기도를 올렸다.

"삼청이시여, 삼청이시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멀리서 이곳까지 요괴를 물리치러 왔건만, 공양을 받으려 해도 편히 쉴 곳이 없으니 어찌합니까. 잠시 당신들의 자리를 빌려 머물고자 하니,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시고 이 구덩이 속으로 잠시 내려가 계십시오. 평소에는 끝도 없는 복을 누리며 깨끗한 도사로 사셨으니, 오늘날만큼은 이 더러운 것들을 맛보며 악취를 맡는 천존이 되어 보십시오!"

기도를 마친 저팔계는 안을 향해 획 하고 물건을 던졌는데, 그만 더러운 오물이 옷자락에 반쯤 튀고 말았다. 그는 얼른 전각 위로 뛰어 올라왔다.

손오공이 물었다. "잘 숨겨 놓았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잘 숨겨 놓긴 했는데, 물을 좀 일으키는 바람에 옷이 더러워지고 내장이 썩는 듯한 냄새가 좀 날 거야. 너무 역겨워하지 마."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뭘, 상관없다. 너나 실컷 먹어라. 다만 깨끗한 모습으로 밖을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나."

그러자 저팔계는 다시 태상노군으로 변신하여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마음껏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먼저 커다란 만두를 먹고 나서, 뒤이어 차려진 요리와 밥, 간식, 화로에 구워 먹는 음식, 떡, 튀김, 찢과자 등을 차례로 먹어 치웠다. 음식의 뜨겁고 차가운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정신없이 먹어댔다. 본래 손오공은 평소에 이런 음식보다는 과일 몇 알로 끼니를 때우는 편이었으나, 이번만큼은 두 제자와 함께 어울려 먹었다. 그들은 마치 유성이 달을 쫓듯, 바람이 구름을 휩쓸어가듯 무서운 기세로 음식을 먹어 치워 결국 그릇을 싹 비워버렸다. 음식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바로 길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소화를 시키고 놀았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알고 보니 동쪽 복도에 막 잠자리에 들려던 어린 도사 하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말했다. "아차, 손에 드는 방울을 전각에 두고 왔네. 만약 잃어버리길라도 하면 내일 스승님께 크게 꾸중을 들을 거야." 함께 자던 도사가 말했다. "어서 잠이나 자게. 내가 가서 찾아올 테니."

어린 도사는 급한 마음에 속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겹옷만 대충 걸치고는 곧장 정전으로 달려가 방울을 찾기 시작했다. 더듬더듬 손을 놀리다 마침내 방울을 만졌다. 이제 막 발길을 돌리려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겁에 질린 도사가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려는데, 어찌 된 일인지 발밑에 있던 리치

씨앗을 밟고는 콧다 하고 미끄러지고 말았다. 쳇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방울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팔계가 참지 못하고 "허허허!" 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린 도사는 혼비백산하여 뒹이 나간 채, 한 걸음 땀 때마다 넘어지며 겨우 방장(스승)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스승님, 큰일 났어요! 큰일이 났다고요!”

아직 잠들지 않았던 세 명의 노도사들이 문을 열고 물었다. “무슨 큰일이냐?” 도사가 벌벌 떨며 대답했다. “제자가 손방울을 잃어버려서 전각에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누군가 허허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 저를 잡아먹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노도사가 그 말을 듣고 즉시 명령했다. “등불을 가져오너라! 대체 어떤 요물이 나타난 것인지 확인해야겠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복도 양옆에 있던 도사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크고 작은 도사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불을 붙이며 정전 쪽을 살피러 달려나갔다.

결국 사태가 어떻게 되었을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5회 — 삼청관에서 대성(손오공)이 이름을 남기고, 차치국에서 원숭이 왕이 법술을 드러내다

三清觀大聖留名 車遲國猴王顯法

한편, 손오공은 왼손으로는 사오정을, 오른손으로는 저팔계를 한 움큼 쥐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상황을 알아차렸다. 세 사람은 높은 곳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사들이 등불을 밝히고 불을 피우며 앞뒤를 살피는 동안에도, 그들 셋은 마치 진흙으로 빚어 금칠을 한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호력대선이 말했다. “나쁜 놈이 침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양물이 다 사라졌단 말인가?”

녹력대선이 말을 이었다. “사람이 먹은 솜씨 같긴 하네. 껌질이 있는 건 다 벗겨져 있고 씨앗이 있는 건 다 뺀어놓았는데, 어째서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거지?”

양력대선이 말했다. “형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성을 다해 밤낮으로 경전을 외우고, 조정의 명을 받들어 꾸준히 상소도 올렸으니 분명 천존께서 감동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삼청(三清) 어르신께서 성스러운 몸으로 강림하셔서 이 공양물을 드신 모양입니다. 마침 신선께서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고 천상의 수레도 이곳에 머물고 있으니, 우리가 천존께 고하여 성수와 금단(金丹)을 조금만 내려달라고 청합시다. 그것을 임금님께 올리면 장수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로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호력대선이 맞장구를 쳤다. “좋은 생각이네. 애들아, 어서 음악을 연주하고 경전을 읽어라! 한쪽에서는 법복을 가져오너라. 내가 의식을 치르며 기도하겠단다.”

어린 도사들이 일제히 명령을 따랐고, 두 줄로 나뉘어 정연하게 늘어섰다. 경쇠를 ‘댕’ 하고 울리자, 모두가 일제히 《황정도덕진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호력대선은 법복을 입고 옥간을 든 채, 눈앞에서 춤을 추며 먼지를 일으키더니 바닥에 엎드려 하늘을 향해 고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저희가 도를 일으켜 청허(淸虛)의 뜻을 우러러보며, 미천한 승려들을 멸하고 도의 빛나는 광휘를 받들고 있습니다. 칙명으로 보전을 세우고 궁궐의 법도를 세웠으며, 공양을 널리 베풀고 용 깃발(龍旗)을 높이 걸었습니다. 밤낮으로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며, 한결같은 정성으로 하늘에 올리나이다. 이제 신선께서 강림하시어 아직 천상의 수레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니, 부디 금단과 성수를 내려주어 조정에 올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남산처럼 오래도록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 말을 듣던 저팔계는 가슴이 두근거리 손오공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음식을 다 먹어 치우고는 가만히 앉아 기도만 기다리고 있으니, 저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손오공이 다시 두 사람을 한 움큼 쥐더니 갑자기 입을 열어 외쳤다. “소인들은 신선이요! 그만 기도를 멈추시오! 우리는 반도회에서 올라온 몸이라 금단과 성수를 가져오지 못했으니, 다음에 다시 와서 내려주시길 바라오!”

말소리가 들리자 도사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옷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 “아이고, 천존님! 살아계신 천존께서 강림하셨으니 절대로 그냥 보내드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장수할 비결이라도 얻어내야 해!”

녹력대선이 앞으로 나서서 다시 절하며 말했다. “먼지를 일으키며 머리 숙여 정성을 다해 올리나이다. 저희는 삼청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도를 세우고 승려들을 모아냈나이다. 국왕께서도 이를 기뻐하시어 도를 숭상하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경전을 읽으며 정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부디 천존께서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성스러운 몸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자비를 베풀어 성수를 조금이라도 남겨주신다면, 저희 제자들이 수명을 늘리고 장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오정이 손오공의 옷자락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형님, 저들이 다급한지 또 기도를 하잖아요.”

손오공이 말했다. “좀 쥐버리지 뭐.”

저팔계가 조용히 물었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나만 잘 봐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희도 다 가지게 될 테니까.”

도사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기를 마치자 손오공이 다시 말을 꺼냈다. “소인들은 굳이 엎드려 절할 필요 없소. 성수를 조금이라도 남겨주지 않으면 그 대가 끊길까 걱정이고, 막상 내려주자니 또 너무 쉬운 일이라 그러오.”

도사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부디 저희의 정성을 가엽게 여기어 꼭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제자들이 도를 널리 전하고 국왕께서 도를 받들게 하려 하나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릇을 가져오너라.”

도사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에 감사했다. 호력대선은 욕심이 많아 커다란 항아리를 가져와 전각 위에 놓았고, 노력대선은 모래그릇을 가져와 제단 위에 올렸으며, 양력대선은 꽃병에서 꽃을 빼내어 그 중간에 놓았다.

손오공이 말했다. “너희는 모두 전각 밖으로 나가 격자문을 닫아라. 천기를 누설해서는 안 되니, 그래야 성수를 잘 남겨줄 수 있다.”

도사들은 일제히 전각 계단 아래에 엎드려 전각 문을 굳게 닫았다.

손오공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호랑이 가죽 치마를 걷어 올리고는 꽃병 하나 가득 지린내 나는 오줌을 누었다. 이를 본 저팔계가 기빠하며 말했다.

“형님, 우리가 형제 지낸 지 몇 년인데 이런 일은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방금 음식을 좀 먹었더니 마침 이 일을 해야 겠습니다.”

그러자 그 멍청이(저팔계)가 옷을 걷어 올리더니, 팔팔 마치 여량(呂梁)의 거센 물줄기가 판자 무너지듯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썩아썩아 소리를 내며 모래 대야 하나 가득 오줌을 누었다. 사오정도 반 항아리는 족히 채울 만큼 누었다. 그러고는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좌한 채 말했다.

“소선들이 성수(聖水)를 올립니다.”

도사들이 창문을 열고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척하더니, 항아리를 가져와 병과 대야에 담긴 것들을 한데 모았다. 그러고는 제자에게 명령했다. “제자야, 맛을 볼 수 있게 작은 잔을 하나 가져오너라.” 어린 도사가 찻잔 하나를 가져다 바치자, 노도사는 그것으로 한 잔을 떠서 마시고는 입술을 훔치며 입맛을 다셨다. 노력대선이 물었다. “사형, 맛이 어떠십니까?” 노도사가 입술을 빼죽거리며 말했다. “그리 맛있지는 않구나. 약간 지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 양력대선이 나섰다. “저도 좀 맛보겠습니다.” 그 역시 한 모금 마셔보더니 말했다. “약간 돼지 오줌 같은 누린내가 납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모든 사실을 간파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수단을 좀 써서 아예 이름을 좀 남겨줘야겠구나.” 손오공은 구름을 향해 크게 외쳤다.

“도호니 뭐니, 참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삼청도사 같은 신선들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오겠느냐? 내 진짜 정체를 너희에게 알려 주마! 대당의 승려들은 어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가는 중이다. 한가로운 밤에 궁궐에 내려와, 공양물을 먹고 한가로이 앉아 놀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가 절을 하니 내가 어떻게 답해주겠느냐? 그게 무슨 성수냐? 너희가 마신 건 다 내가 싸지른 오줌이다!”

도사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문을 막아 세우고는 쇠갈퀴와 빗자루, 기와 조각과 돌맹이까지 집어 들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안으로 마구 휘둘러댔다. 역시 손오공은 재빠르게 왼손에는 사오정을, 오른손에는 저팔계를 끼고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고는 구름을 타고 곧장 지연사의 방장실로 돌아왔다. 스승님을 놀라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세 사람은 다시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어느덧 시간은 오경 삼점(五鼓三點, 동트기 직전의 새벽 무렵)이었다. 국왕이 조회를 열자 문무백관과 사백 명의 조정 관리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붉은 비단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보배로운 향로에 서는 향연이 구름처럼 피어올라 자욱했다.

이때 당삼장이 잠에서 깨어나 부르짖었다. “제자들아, 제자들아! 어서 나를 도와 통관문서를 교체하러 가자꾸나.”

손오공과 사오정, 저팔계가 급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는 스승의 곁에 서서 말했다. “스승님, 이 나라 국왕은 저 도사들을 맹신하여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혹여 말이 잘못되어 화를 입

을까 두려우니, 문서를 교체하러 가는 대신 저희가 스승님을 모시고 함께 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삼장은 크게 기뻐하며 비단 가사가 달린 가사(錦欄袈裟)를 걸쳤다. 손오공은 통관문서를 챙겼고, 사오정은 발우를 받들었으며, 저팔계는 석장을 들었다. 행장과 말은 지연사의 승려에게 맡겨 지키게 한 뒤, 곧장 오봉루 앞으로 향했다. 손오공은 내관에게 예를 갖추어 이름을 밝히고, 자신들은 동토 대당에서 경전을 구하러 온 스님들이니 통관문서를 교체할 수 있도록 국왕께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 각문대사가 조정으로 들어가 금란전 계단 아래 엎드려 아뢰었다. “밖에서 네 명의 스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토 대당에서 경전을 구하러 온 스님들이라며 통관문서를 교체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오봉루 앞에서 국왕 전하의 명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국왕이 그 말을 듣고 꾸짖었다. “그 스님들이 죽을 자리를 못 찾아 여기까지 와서 죽으려 하는구나! 순찰하는 관리들은 어찌하여 그들을 잡아 오지 않았느냐?”

그때 곁에 있던 태사가 다가와 간청했다. “동토 대당은 남섬부주에 있는 중화대국이라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만 리나 떨어진 먼 곳이며 오는 길에 요괴도 많습니다. 저 스님들은 분명 신통력이 있어야 감히 서쪽으로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폐하, 중화에서 온 먼 곳의 스님들이니 부디 불러서 문서를 확인한 뒤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왕이 그 말을 허락하여 당삼장 일행을 금란전 아래로 불러들였다. 스승과 제자들은 계단 앞에 줄을 서서 통관문서를 받들어 국왕에게 올렸다.

국왕이 펼쳐진 문서를 읽고 있는데, 마침 황문관이 들어와 보고했다. “세 분 국사께서 오셨습니다.”

깜짝 놀란 국왕은 서둘러 통관문서를 거두고 용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측근들에게 명하여 수놓은 방석을 깔게 한 뒤, 몸을 굽혀 직접 맞이했다. 삼장 일행이 고개를 돌려 보니, 세 도사는 비틀비틀 거들먹거리며 걷고 있었고, 머리를 양 갈래로 뚫은 채 형클어진 모습의 어린 동자 둘을 거느리고 안으로 직행하고 있었다. 양반 관리들은 모두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히고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했다. 도사들은 금란전에 올라 국왕에게 예를 갖추지도 않고 곧장 다가갔다.

국왕이 말했다. “국사님, 내가 따로 청한 적도 없는데 어찌 오늘 이렇게 찾아오셨소?”

그러자 노도사가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왔소이다. 저 네 명의 승려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자들이오?”

국왕이 대답했다.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보낸 자들인데, 이곳에서 통관문서를 바꾸려 하고 있소.”

세 도사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그놈들이 떠난 줄 알았더니, 아직 여기 남아 있었구려!”

국왕이 놀라 물었다. “국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방금 그들이 이름을 보고하기에 마침 그들을 붙잡아 국사님께 보내 부리게 하려던 참이었는데, 태사가 올린 말이 일리가 있어 멀리서 온 이들과의 선한 인연을 끊지 않으려 문서를 확인하러 부른 것이었소. 그런데 뜻밖에 국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구려. 혹시 저 승려들이 국사님의 체면을 깎아내리거나 결례를 범한 것이요?”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폐하께서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놈들이 어제 이곳에 와서 동문 밖에서 제 제자 둘을 때려죽이고, 갇혀 있던 승려 오백 명을 풀어주었으며 수레까지 다 부숴놓았습니다. 밤에는 도관에 침입해 삼청 성상을 파괴하고 임금이 내린 공양물까지 몰래 먹어 치웠습니다. 저희는 그저 천존께서 강림하신 줄로만 알고, 폐하의 수명을 늘려드릴 성수와 금단을 구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놈들이 소변이나 조금 남겨두고 저희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맛을 보고는 당장 붙잡으려 했으나 그놈들이 도망쳐 버렸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시 마주치니, 그야말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격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국왕은 크게 분노하여 네 승려를 죽이라 명하려 했다.

손오공이 합장하며 엄숙하고도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폐하, 부디 번개와 같은 노여움을 잠시 거두시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왕이 말했다. “그대들이 감히 국사님께 대들다니, 국사님의 말씀에 어찌 틀린 구석이 있겠는가?”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분은 제가 어제 성 밖에서 그분의 제자 둘을 때려죽였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스님 두 명의 목숨을 내놓는 대신, 나머지 두 명은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 될 일입니다. 또 제가 수레를 부수고 죄를 지은 승려들을 풀어주었다고 하시는데, 이 또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스님 한 명을 더 잡아 가라고 하시면 될 일이지요. 게다가 제가 삼청(三淸) 성상을 부수고 도관(道觀)을 어지럽혔다는 말까지 하시니, 이는 명백히 저를 모함하시는 것입니다!”

국왕이 물었다. “어찌하여 모함이라고 하는가?”

손오공이 말했다. “저희는 동토에서 온 승려들로,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리의 사정조차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밤사이에 그분들의 도관에서 벌어진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소변을 보았다면 그 즉시 저희를 붙잡았어야지, 이렇게 나중에 와서 이름을 대며 사람을 해치려 하다니요! 천하에는 이름과 성을 거짓으로 둘러대는 자들이 무수히 많은데, 어찌 저를 범인이라 단정 지으십니까? 부디 폐하께서는 노여움을 가라앉히시고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본래 판단력이 흐려져 있던 국왕은 손오공의 말을 듣고 나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기 시작했다.

의아해하던 차에 황문관이 들어와 보고했다. “폐하, 문밖에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와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왕이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온 것이냐?” 국왕은 즉시 그들을 불러들였다. 전각 앞

에 도착한 서른에서 마흔 명 정도 되는 마을 어르신들은 국왕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폐하, 올해 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에 땅이 메마르고 흉년이 들까 두려워 이렇게 찾아왔사오니, 부디 국사 어른들께 청하여 단비를 내려 백성들을 구제해 주시옵소서.” 국왕이 대답했다. “어르신들은 이만 물러가십시오.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갔다. 국왕이 이어 말했다. “대당에서 온 승려들이여, 내가 왜 승려들을 멸하려 하겠느냐? 예전에 비를 빌었을 때 우리 나라 승려들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못했다. 다행히 하늘이 국사들을 내려주셔서 이 고통에서 구해주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는 멀리서 와서 감히 국사들을 모욕했으니 마땅히 즉시 죄를 물어야 하나, 이번 한 번은 특별히 용서해주마. 대신 우리 국사들과 내기를 하여 비를 내려보겠느냐? 만약 너희가 단비를 내려 만백성을 구제한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면해주고 통관문서도 새로 바꿔주어 서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하지만 내기에서 지고 비도 내리지 못한다면, 너희를 당장 처형장에 끌고 가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어린 스님도 비를 비는 법을 조금은 아는 모양이군요.”

국왕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제단을 청소하도록 명령했다. 이어 측근에게 “가마를 준비하라. 내가 직접 오봉루에 올라가 보겠다”라고 일렀다. 많은 관리와 신료들이 가마를 받들고 움직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국왕은 루 위에 올라 앉았다. 당삼장은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와 함께 국왕을 따라가 루 아래에서 시립했다. 세 도사는 국왕과 함께 루 위에서 나란히 앉았다. 잠시 후, 한 관리가 말을 타고 달려와 보고했다. “제

단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국사님들께 제단에 오르시라 전하겠습니다."

호력대선이 몸을 굽혀 예를 갖추고 국왕에게 물러가겠다고 인사를 올린 뒤 계단을 내려왔다. 손오공이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선생, 어디 가십니까?"

호력대선이 대답했다.

"제단을 차려 비를 빌려고 하네."

손오공이 말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시군요. 멀리서 온 승려인 저를 무시하시니 말입니다. 뭐, 좋습니다. 원래 '강한 용도 그 땅의 구렁이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 말이죠. 선생님께서 먼저 가시되, 반드시 임금님 앞에서 사실대로 밝히셔야 합니다."

호력대선이 물었다.

"무엇을 밝히려는 말인가?"

손오공이 말했다.

"나와 선생님이 함께 제단에 올라 비를 빌 텐데, 비가 누구의 공으로 내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의 업적인지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이 말을 듣던 국왕은 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했다.

'저 어린 승려가 하는 말이 꽤나 요령이 있구나.'

사오정이 이 광경을 보고는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다.

'저놈이 속에는 온갖 잔꾀를 가득 품고 있으면서, 아직 다 꺼내놓지 않은 모양이군.'

호력대선이 말했다.

"밖힐 것도 없네. 폐하께서 자연히 아시게 될 테니까."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설령 아신다 해도, 저는 멀리서 온 승려라 선생님과 미리 합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서로 자기 공이라고 우기며 뒤섞이면 일이 엉망이 될 테니, 미리 확실히 해두어야 일을 제대로 치를 수 있습니다."

호력대선이 말했다.

"이번 제단에서는 내 명령패를 보고 판단하게나. 명령패를 한 번 올리면 바람이 불고, 두 번 올리면 구름이 일며, 세 번 올리면 천둥과 번개가 요동치고, 네 번 올리면 비가 내릴 것이며, 다섯 번 올리면 구름이 흩어지고 비가 그칠 것이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묘하군요! 저희 같은 승려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서 가 시지요, 어서요!"

도사들이 성큼성큼 앞장서서 걸어가자 당삼장 일행도 그 뒤를 따라 제단 문밖까지 이르렀다.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그곳에는 높이가 삼 장(약 9미터)은 족히 되어 보이는 높은 제단이 세워져 있었다. 제단 좌 우에는 이십팔수(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꽂혀 있었고, 제단 꼭대기에는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의 향로에서는 향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탁자 양옆에는 촛대 두 개가 놓여 불꽃이 환하게 일렁였다. 향로 옆에는 뇌신의 이름을 새긴 금패 하나가 기대어 있었다.

제단 아래에는 커다란 항아리 다섯 개가 깨끗한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물 위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떠 있었고 그 가지 위에는 뇌정 도사(천동을 다스리는 관리)의 부적 글자가 적힌 철판이 놓여 있었다. 제단 좌우로는 다섯 개의 커다란 말뚝이 박혀 있었고, 말뚝에는 오방의 뇌신 사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말뚝 하나마다 도사 두 명씩이 서서 쇠망치를 들고 말뚝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단 뒤편에는 수많은 도사가 모여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제단 한가운데에는 종으로 만든 화로가 놓여 있었다. 그 주변에는 부적을 든 사자나 땅의 신을 모시는 이들처럼 보이는 형상들이 여럿 배치되어 있었다.

그 대선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조금도 겸손한 기색 없이 곧장 높은 제단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섰다. 곁에 있던 한 어린 도사가 부적을 쓴 황색 종이 몇 장과 보검 한 자루를 받들어 대선에게 바쳤다. 대선은 보검을 움켜쥐고 주문을 외우더니, 부적 하나를 촛불 위에 올려

태웠다. 그러자 아래에 있던 두세 명의 도사도 부적을 든 상생과 문서 하나를 가져와 불을 붙여 태웠다. 그 순간, 위쪽에서 쟁그랑하며 신호용 패가 울리더니 허공에서 서늘한 바람이 유유히 불어오기 시작했다.

저팔계가 입을 달짝이며 속삭였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저 도사들이 정말로 재주가 있나 봐. 패가 한 번 울리자마자 정말로 바람이 불어오잖아."

손오공이 말했다. "형씨, 조용히 좀 해. 나한테 말 걸지 말고 가서 스승님이나 잘 모시고 있어. 내가 가서 한판 제대로 놀아보고 올 테니까."

손오공이 털 한 가닥을 뽑아 입으로 신선한 기운을 훑 불더니, "변해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털이 가짜 손오공으로 변해 당삼장 곁에 섰다. 진짜 몸에서는 원신(元神, 참된 정신)이 빠져나와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크게 소리치며 물었다.

“바람을 다스리는 놈이 누구냐!”

그 소리에 놀란 풍파파(바람의 할멈)는 베 주머니를 짹 움켜쥐고, 바람의 신 순이랑(巽二郎)은 주머니 주둥이를 묶는 밧줄을 붙들고 앞으로 나와 예를 갖추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나는 대당의 성스러운 승려를 모시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차지국을 지나던 중이다. 저 요괴 같은 도사들과 기우제 내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고 도사들을 돕느냐?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줄 테니 당장 바람을 거두어라. 만약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어서 저 도사의 수업이 까딱거리기라도 한다면, 너희들을 철몽둥이로 각각 스무 대씩 때려줄 것이다!”

풍파파가 대답했다.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의 기운이 싹 가라앉았다. 이를 지켜보던 저팔계가 참지 못하고 소란스럽게 외쳤다.

“이보시오, 선생! 이제 그만 물러나시오! 명령패가 올렸는데 왜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거요? 당신은 내려가고 우리를 올라가게 해주시오!”

그 도사가 다시 명령패를 들고 부적을 태우더니, 펑 소리가 나게 한번 더 내리쳤다. 그러자 공중에 구름과 안개가 가득 들어찼다. 이때 손오공이 머리 위를 향해 크게 외쳤다.

"구름을 깔아놓은 놈이 누구냐?"

그러자 당황한 구름 아이와 안개 도령이 나타나 손오공 앞에서 정중히 예를 갖추었다. 손오공이 그간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말하자, 구름 아이와 안개 도령은 즉시 구름과 안개를 거두어들였다. 그러자 눈부신 태양 빛이 쏟아져 내려와, 온 세상 만 리 땅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었다.

이 모습을 본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저 도사라는 작자는 황제나 속여서 백성들을 기만할 뿐, 진짜 실력은 눈곱만큼도 없구먼. 명령패를 두 번이나 올렸는데, 어째서 구름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 도사는 마음이 초조해져서 보검을 휘두르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주문을 외웠다. 부적을 태우고 명령패를 한 번 더 내리쳤다. 그러자 남천문 안에서 등천군이 뇌공, 전모를 거느리고 허공에 나타나 손오공을 맞이하며 예를 갖추었다.

손오공이 앞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물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정성껏 오셨소? 어떤 명을 받들고 오신 것이요?”

등천군이 대답했다. “저 도사가 부리는 오뢰법(五雷法, 다섯 방위의 뇌신을 부리는 도교 법술)은 진짜였소. 그가 문서를 올리고 격문을 태우니 옥황대제께서 놀라셨고, 옥황대제께서 내리신 지시가 곧장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의 처소로 전달되었소. 이에 우리는 그 명을 받들어 뇌전과 함께 비를 내리러 왔소.”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다들 잠시 멈춰서 이 몸이 하는 일을 지켜보시오.”

그러자 과연 천둥도 울리지 않고 번개도 번쩍이지 않았다.

도사는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며 향을 피우고, 부적을 태우고, 주문을 외우며 명령패를 내리쳤다. 그때 공중에서 사해룡왕이 일제히 몰려왔다. 손오공이 앞장서서 호통을 쳤다.

"오광, 거기 서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자 오광, 오순, 오흠, 오윤이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었다. 손오공이 앞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말했다.

"지난번에는 수고만 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니, 오늘 일은 부디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용왕들이 대답했다.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손오공이 이어 오순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대의 아들이 요괴를 묶어 우리 스승님을 구해주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용왕이 말했다.

"그놈은 아직 바닷속에 묶여 있어 감히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성께서 어떻게 처분하실지 여쭙고자 하던 참이었습니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건 너희 뜻대로 처치하거라. 우선은 내 일을 돕는 게 먼저다. 저 도사가 명령패를 네 번이나 내리쳤으니, 이제 이 몸이 나설 차례다. 하지만 나는 부적을 쓰거나 글을 태우고 명령패를 두드리는 법을 모르니, 너희가 내 방식에 맞춰 줌 도와줘야겠다."

등천군이 말했다.

"대성께서 분부하시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명확한 신호가 있어야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둥과 비가 엉망으로 내려서 대성의 위엄이 깎일 수도 있으니까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럼 내 여의봉을 신호로 삼겠다."

그러자 뇌공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아이구, 대성님! 저희가 어떻게 그 몽둥이를 맞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너희를 때리려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몽둥이로 위를 가리키면 바람이 불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그러자 바람을 관장하는 풍파파와 순이랑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곧바로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몽둥이로 두 번째를 가리키면 구름이 깔릴 것이다."

그러자 구름을 미는 추운동자와 안개를 뿌리는 포무랑군이 말했다.

"곧바로 구름을 깔겠습니다, 구름을 깔겠습니다."

"몽둥이로 세 번째를 가리키면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일 것이다."

뇌공과 전모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몽둥이로 네 번째를 가리키면 비가 내릴 것이다."

용왕들이 말했다.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몽둥이로 다섯 번째를 가리키면 다시 짙은 햇볕이 내리쬐게 하겠다. 절대로 어긋나서는 안 된다."

명령을 마친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더니, 몸을 한번 흔들여 털을 모두 거두어들였다.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손오공은 옆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먼저 가시지요! 네 번의 명령이 다 올렸는데도 바람과 구름, 천둥과 비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 이제 제 차례를 넘겨주셔야겠습니다.”

도사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오래 차지하지 못하고 단 아래로 내려와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곧장 누각 위로 올라가 국왕을 알현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나도 저놈을 따라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봐야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왕이 묻는 소리가 들렸다.

“과인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노라. 네가 네 번의 명령을 내렸는데도 어찌하여 바람과 비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도사가 대답했다.

“폐하, 오늘은 용신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모양입니다.”

그때 손오공이 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폐하, 용신들은 모두 집에 있습니다! 다만 저 국사들의 법력이 부족하여 용신들을 불러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스님들이 용신들을 불러오는지 직접 보시옵소서.”

국왕이 말했다.

“어서 제단을 다시 차려라. 과인은 여기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겠다.”

손오공은 뜻을 받들자마자 급히 제단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당삼장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스승님, 어서 제단 위로 올라가십시오.”

당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나는 비를 내리게 하는 법을 모른다.”

그러자 저팔계가 웃으며 거들었다. “저놈들이 스승님을 해치려는 수작이에요. 만약 그래도 비가 안 오면, 저들이 장작더미를 쌓아 한 번에 불을 질러 (스승님을 태워) 끝장내려 할 겁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은 비를 빌 줄 몰라도, 경을 외우는 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제야 당삼장은 발걸음을 옮겨 제단 위로 올라갔다. 그는 제단 위에 단정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집중하며 《반야심경》을 묵독하기 시작했다. 한창 정좌하여 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한 관리가 말을 타고 달려오더니 물었다. “저 승려는 어째서 명령패를 두드리지도 않고, 부적을 태우지도 않는 것이냐?”

손오공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고요한 수행으로 기도를 드리는 중입니다!”

관리는 그 말을 듣고 보고하러 떠났다.

손오공은 스승님이 경문을 다 외우는 소리를 듣고는, 귀속에서 여의봉을 꺼내 들었다. 여의봉을 바람에 한 번 휘두르자, 길이는 한 길 두 자(약 3.6미터)에 달하고 굵기는 사발만 해졌다. 손오공이 봉을 허공을 향해 가리키자, 풍파파가 급히 가죽 주머니를 풀어헤쳤고, 바람의 신 손이랑이 주머니 주둥이를 막고 있던 밧줄을 풀었다.

그러자 휘이익 하는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성안의 기와와 벽돌이 뒤집히고, 모래와 돌덩이가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바람 같았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시로 이르되,

버드나무 꺾고 꽃을 짓밟으며, 숲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쓰러뜨리네.
아홉 겹의 궁궐은 벽이 허물어지고 담장이 무너지며, 오봉루는 들보가 흔들리고 기둥이 요동치네. 하늘의 붉은 해는 빛을 잃고, 땅의 황사에는 날개가 달린 듯 날아다니네. 무관들은 연무청 앞에서 깜짝 놀라고,

문관들은 회문각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궁궐의 미녀들은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후원의 빈비들은 화려한 머리 모양이 다 망가졌네. 제후들의 금관은 떨어지고 수놓은 끈은 흩어지며, 재상의 오사모는 날개를 단 듯 날아가네. 임금을 모시는 신하는 할 말이 있어도 감히 아뢰지 못하고, 내관들은 장부를 들고도 차마 전하지 못하네. 금빛 물고기 장식과 옥띠는 반열을 잃고, 상아 홀(象簡)과 비단 적삼은 품계 순서 없이 흩날리네. 채색된 누각과 비취색 병풍은 모두 부서지고, 초록 창문과 붉은 문은 엉망진창이 되었네. 금란전의 기와와 벽돌은 날아다니고, 금운당의 문은 비틀리고 창살은 부서졌구나. 이 광풍이 참으로 흉포하여, 임금과 그 자식들도 서로 만나기 어렵게 만드니, 여섯 거리와 세 시장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없고, 수만 가구의 문들은 모두 굳게 닫혔도다.

정말로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손오공이 다시 신통력을 발휘했다. 그는 여의봉을 가볍게 한 번 돌리더니, 허공을 향해 손가락을 척 내밀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구름을 미는 동자와 안개를 뿌리는 낭군이 나타났다. 구름 미는 동자는 신통력을 펼치니, 뭉게뭉게 피어오른 구름이 바위에 닿을 듯 하늘에 드리우고, 안개 뿌리는 낭군은 법력을 펼치니, 짙고 자욱한 연기가 땅을 뒤덮는다. 아득한 세 곳의 저자거리는 어둠에 잠기고, 끝없이 이어진 여섯 거리는 흐릿해진다.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떠돌다, 비를 따라 곤륜산에서 쏟아져 나온다. 순식간에 천지에 가득 차니, 눈 깜짝할

새 세상의 먼지를 가려버린다. 마치 태초의 혼돈 상태처럼, 봉황이 사는 누각의 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때 세상은 안개로 흐릿하고 짙은 구름이 겹겹이 쌓여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손오공은 여의금고봉을 한 번 휘둘러 진동시키더니, 허공을 향해 손가락을 척 내질렀다. 그러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뇌공은 분노하여 불을 뿜는 짐승을 거꾸로 타고 하늘의 문을 넘어 내려왔고, 전모는 화가 치밀어 금빛 뱀 같은 번개를 휘두르며 하늘의 궁전을 박차고 나왔다. 콰르릉 소리를 내며 벼락이 치니 철차산이 산산조각이 났고, 번쩍이는 붉은 빛이 번개처럼 번뜩이며 동양의 바다를 휘저었다. 콰광콰광 소리는 마치 수레가 굴러가는 듯했고, 번쩍이는 빛은 마치 벼락이 쏟아지는 썰알 같았다. 만물의 정기가 새로이 살아나니 수많은 벌레가 땅속에서 꿈틀대며 나왔다. 성 안의 임금과 신하들은 누각 위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놀랐고, 장사꾼들은 그 소리에 겁을 집어먹고 서둘러 몸을 피했다.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는 기세가 쳇그랑쳇그랑 울려 퍼지니, 마치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는 듯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집마다 향을 피우고 종이를 태우며 빌었다. 손오공이 크게 외쳤다.

"이보게 등천군! 탐욕스러운 관리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몇 놈 더 때려죽여 본보기를 보여주게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천둥소리는 더욱 거세게 울려 퍼졌다.

손오공이 다시 여의봉을 들어 한곳을 가리켰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용이 신호를 내리니 비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찼다. 그 기세는 마치 은하수가 하늘의 구렁이로 쏟아져 내리는 듯했고, 속도는 구름이 바다 문을 지나쳐 흘러가는 듯 빨랐다. 누각 위에서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들려오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쉼없이 울려 퍼졌다. 하늘에서는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하고, 거리 앞에는 하얀 파도가 넘실거렸다. 항아리에서 물을 퍼붓듯 팔팔 쏟아지고, 대야로 물을 끼얹듯 펄펄 쏟아졌다. 외딴 집은 곧 물에 잠길 듯하고, 들판의 언덕은 다리마저 평평하게 잠겨버릴 듯했다. 참으로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듯, 순식간에 육지가 거친 파도에 휩싸였다. 신령한 용이 이를 돕기 위해 나타나, 장강의 물을 들어 올려 아래로 쏟아붓는 듯하였다.

이 비는 진시(오전 7시~9시 사이)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 무렵까지 계속되었는데, 차치국 성안의 안팎이 온통 물에 잠겨 거리마다 물이 넘쳐흘렀다.

국왕이 전지를 내려 말했다. "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해. 여기사 더 내리면 곡식이 썩어버리니 오히려 좋지 않구나."

그때 오봉루 아래에서 일을 맡은 관리가 말을 타고 빗속을 뚫고 달려와 보고했다. "성스러운 승려님, 비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여의금고봉을 하늘로 향해 한 번 더 가리켰다. 그러자 순식간에 천둥소리가 잦아들고 바람이 멎더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마저 걷히기 시작했다.

국왕은 마음속 깊이 기뻐하며 문무백관과 함께 찬사를 보냈다. "훌륭한 스님이다! 과연 '강한 자 위에 더 강한 자가 있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구나. 우리 나라의 국사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하긴 하지만, 날이 맑아지려면 가랑비가 반나절은 더 내려야 해서 개운치 않았느니라. 그런데 어찌 이 스님은 날을 맑게 하려 하니 순식간에 해가 환하게 떠오르고 만 리 땅에 구름 한 점 없단 말이냐?"

국왕은 어가를 돌려 궁으로 돌아가서 통관문서를 교체하고 당삼장을 보내주려 했다. 막 어보를 꺼내어 일을 처리하려는데, 세 도사가 다시 앞으로 나서며 앞을 가로막았다.

“폐하, 이번에 내린 비는 결코 저 스님들의 공이 아닙니다. 오로지 저희 도문(道門)의 힘 덕분입니다.”

국왕이 물었다. “방금 전에는 용왕이 자리에 없어 비가 오지 않는다더니, 저들이 정성을 다해 기도하자마자 비가 쏟아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또 저들에게 공을 돌리며 다투는 것이냐?”

그러자 호력대선이 말했다. “제가 제단에 올라 문서를 올리고 부적을 태웠으며, 명령패를 두드렸습니다. 그 용왕이 어찌 감히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바람·구름·천둥·비를 관장하는 다섯 신령이 다른 곳의 부름을 받아 자리를 비웠다가, 제 명령을 듣고 급히 달려오던 차에 마침 제가 단을 내려오고 저자가 올라간 시점과 맞물려 비가 내린 모양입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제가 용을 불러 비를 내리게 한 것이니, 어찌 저들의 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왕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 이 말을 듣고는 다시 의혹이 생겨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손오공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합장하며 말했다.

"폐하, 저들의 요술은 아무런 공덕도 없는 잔재주일 뿐이라 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해의 용왕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 저희 승려들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감히 물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국사들이 용왕을 직접 나타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저들의 공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국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과인이 이 나라의 황제로 이십삼 년을 다스려 왔지만, 살아있는 용이 어떤 모습인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소. 자, 이제 두 집단이 각자의 법력을 보여보시오. 승려든 도사든 상관없으니, 용왕을 불러내는 쪽이 공을 세우는 것이요, 불러내지 못하는 쪽은 죄를 물을 것이요."

그런데 도사들이 무슨 수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불러보아도 용왕들은 손오공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는 감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결국 도사들이 말했다.

"저희는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직접 불러보시오!"

손오공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매서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오광은 어디 있느냐? 형제들은 모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어 이리로 오너라!"

용왕이 그 부름을 듣고 즉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니, 네 마리의 용이 구름과 안개를 헤치며 허공을 가로질러 금란전 위로 날아올랐다. 그 모습이 이러하였다.

:구름과 안개를 휘감으며 자유로이 변화하여 날아다니네. 하얀 발톱은 갈고리처럼 휘었고, 은빛 비늘은 거울처럼 밝게 빛나네. 수염은 고운 비단처럼 가닥가닥 시원하게 휘날리고, 솟아오른 뿔은 기세가 당당하고 맑구나. 이마는 높고 웅장하며, 동그란 눈은 번뜩이며 빛나네. 나타났다 사라짐을 헤아릴 수 없고, 날아오르는 기세는 가늠할 수 없네. 때맞춰 비를 내리고, 날이 개기를 빌면 즉시 하늘을 맑게 하니, 이것이 야말로 신령하고 성스러운 참된 용의 모습이요, 상서로운 기운이 궁궐 마당을 가득 채우는구나.

국왕은 전각 위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고, 여러 신하들은 계단 아래에서 절을 올리고 있었다. 국왕이 말했다. "귀한 몸들이 강림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과인이 다른 날에 다시 제사를 올려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신령님들,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이 국왕이 다른 날에 다시 제사를 올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왕은 곧장 바다로 돌아갔고, 여러 신선도 각자 하늘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넓고 끝이 없는 참된 묘법은, 본성을 깨달아 걸길을 단호히 끊어내는 법이라네.

결국 사악한 무리를 어떻게 물리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6회 — 사악한 무리가 강압적으로 정 법을 속이고, 마음의 원숭이가 성스러운 위력을 나타내어 모든 사악함을 멸하다

外道弄強欺正法 心猿顯聖滅諸邪

이야기는 이러하다. 국왕은 손오공이 용을 부리는 신통력을 가진 것을 보고, 즉시 통행증에 보인을 찍어 당승에게 건네주며 서쪽 길로 가도록 허락하려 했다. 그러자 세 도사가 당황하여 금란전에 엎드려 간청했다. 황제는 용상에서 내려와 친히 손으로 그들을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다. '국사들이 오늘 어찌하여 이토록 큰 절을 올리는 것이오?' 도사들이 말했다. '폐하, 저희는 이곳에 와서 사직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지키며 백성을 편안케 하고자 20년 세월을 고생스럽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중이 도술을 부려 (기우의 권한을) 남아채 내던지고 저희의 명성을 떨어뜨렸습니다. 폐하께서 고작 비 한 번 내린 일로 살인죄를 사해주신다면, 저희를 너무 가벼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저 중의 통행증을 잠시 거두어 주시고, 저희 형제가 그와 다시 한번 내기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국왕은 정신이 혼미하여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통행증을 거두며 물었다. '국사들이여, 대체 그와 무엇을 내기하겠다는 것이오?' 호력대선이 말했다. '저와 좌선 내기를 하겠습니다.' 국왕이 말했다. '국사님,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저 중은 선종 출신이니 분명 좌선법에 먼저 능통하여 칙명을 받들어 경을 구하러 나섰을 터인데, 어찌 그런 것으로 내기를 하려 하시오?' 호력대선이 대답했다. '제가 하려는 좌선은 보통의 것과 달라, 운제현성(雲梯顯聖)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국왕이 물었다. '운제현성이란 무엇이오?' 호력대선이 설명했다. '탁자 백 개가 필요합니다. 그중 십 개로 좌선대 하나를 만드는데, 탁자를 하나씩 차례로 쌓아 올립니다. 손으로 붙잡고 올라가서도 안 되고 사다리나 발판을 써서 올라가서도 안 되며, 각자 구름 한 조각을 타고 대 위로 올라가 앉은 뒤 약속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국왕은 이 상황이 난처해지자 즉시 전지를 내려 물었다. '저 중아, 우리 국사께서 그대와 운제현성 좌선 내기를 하고자 하시는데, 할 줄 아는가?'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겨 대답하지 않았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동생아, 사실대로 말하마. 하늘을 걷어차고 우물을 휘젓거나, 바다를 뒤엎고 강을 뒤흔들며, 산을 짊어지고 달을 쫓거나 별자리를 옮기는 온갖 기이한 일은 다 할 수 있다. 머리가 잘리고 뇌가 찢리거나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내는 일도 무섭지 않아. 하지만 좌선만큼은 내가 졌다. 나에게 무슨 가만히 앉아 있는 성질이 있겠느냐? 나를 철기둥에 묶어 놓아도 위아래로 기어 다닐 텐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건 꿈도 꾸지 마라.' 그때 삼장법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내가 좌선을 할 줄 아네.' 손오

공이 기뻐하며 말했다. '잘됐습니다, 정말 잘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삼장법사가 말했다. '어릴 적에 떠돌이 선승에게 도를 듣던 중, 생명의 근본 위에서 성품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보존하는 법을 배웠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도 두세 해는 앉아 있을 수 있다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두세 해나 앉아 계실 거라면 경전 구하러 갈 필요도 없겠네요. 길어야 두세 시진이면 내려오시겠는데요?' 삼장법사가 말했다. '제자야, 그런데 (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서서는 앞에 나가 대답만 하십시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장로가 과연 합장하며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는 말했다. "빈승, 좌선을 할 줄 아옵니다." 국왕이 전지를 내려 좌선대를 세우게 했다. 나라에 산을 뒤엎을 만한 힘이 있으니, 반 시진도 채 되지 않아 금란전 좌우에 두 개의 대가 세워졌다.

호력대선이 전각에서 내려와 계단 한가운데 서더니, 몸을 훌쩍 날려 구름 한 조각을 밟고 곧장 서쪽 대 위로 올라가 앉았다. 그러자 손오공이 자기 털 하나를 뽑아 가짜 형상으로 변하게 하여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아래에 세워두었다. 그러고는 자신은 오색 상서로운 구름을 일으켜 당승을 들어 올려 공중에 띄우더니, 곧장 동쪽 대 위로 올려 앉혔다. 이어 상서로운 빛을 거두고 작은 매미(蟪蛄)로 변신하여 저팔계의 귓가로 날아가 말했다. '이보게, 스승님을 잘 지켜보게. 그리고 내 분신과는 절대 말을 섞지 말게.' 그 멍청한 저팔계가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네, 알았어.'

한편, 노력대선은 수놓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이 높은 대 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자, 노력대선은 사형을 돕기로 했다. 그는 뒷머리에서 짧은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 동그랗게 뭉치더니, 손가락으로 튕겨 올렸다. 머리카락은 그대로 날아가 당승의 머리 위로 떨어지더니, 커다란 빈대로 변해 장로를 덮석 물었다. 당승은 처음에는 가렵다고 느꼈으나 곧 통증이 느껴졌다. 본래 좌선할 때는 손을 써서는 안 되며, 손을 쓰면 패배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한순간 통증을 참지 못한 당승은 머리를 움츠린 채 옷깃에 대고 가려운 데를 비볐다. 이를 본 저팔계가 말했다. '큰일 났네, 스승님한테 양간풍(羊癩風, 간질)이 도졌나 봐!' 사오정이 말했다. '아니야, 두풍(頭風, 두통)이 도진 거야.' 손오공이 그 소리를 듣고 말했다. '우리 스승님은 지극히 성실한 군자시라,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실 분이요 못 한다고 하면 정말 못 하시는 거야. 군자가 어찌 허튼소리를 하겠어? 너희 둘은 그만 떠들어라, 내가 올라가서 보고 올 테니.'

한편, 손오공이 '잉' 하고 소리를 내며 당승의 머리 위로 날아올랐다. 그러자 쿵알만 한 빈대 한 마리가 스승을 물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은 황급히 손으로 그것을 떼어내고는 스승을 위해 긁어주고 만져주었다. 그런데도 당승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 듯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스승님은 머리도 매끈해서 이 한 마리 붙을 자리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빈대가 나타난 거지? 분명 저 도사가 수작을 부려 우리 스승님을 해치려는 게로군. 하하, 공연히 승패도 가려지기 전에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가서 한바탕 골려줘야겠다!' 손오공은 곧장 날아올라 금란전의 짐승 머리 장식 위에 내려앉더니, 몸을 흔들어 일곱 치 길이의 지네로 변신했다. 그리고는 곧장 도사

의 콧등 우묵한 곳을 한 번 콧 쏘았다. 그러자 도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곤두박질쳐 굴러떨어졌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다행히 크고 작은 관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구해냈다. 국왕은 크게 놀라 즉시 어가를 모시는 태사에게 그를 문화전으로 데려가 씻기게 했다. 손오공은 다시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스승을 계단 앞으로 내려주었으니, 이미 장로가 이긴 셈이었다.

국왕은 그저 길을 비켜주라고만 명령했다. 그러자 노력대선이 다시 아뢰었다.

"폐하, 제 사형에게 원래 바람을 타면 몸이 아픈 고질병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천풍을 맞는 바람에 병이 도지는 바람에 방금 승부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 자를 그대로 두어, 저와 '격판채매(판을 사이에 두고 물건 맞히기)' 내기를 하게 해주십시오."

국왕이 물었다.

"격판채매라니,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노력대선이 대답했다.

"소도가 판을 사이에 두고도 물건을 알아맞히는 법이 있습니다. 저 스님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보시지요. 만약 저 자가 저를 이긴다면 그냥 보내주시고, 만약 맞히지 못한다면 폐하께서 정하신 죄명을 물어 저희 형제의 원한을 갚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지난 20년 동안 나라를 지켜온 저희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국왕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라, 이 간사한 말을 그대로 믿고 즉시 어명을 내렸다. 붉은 칠을 한 궤를 가져오게 하여 내관들이 궁전으로 메고 오게 했다. 그리고 왕비에게 명하여 그 안에 보물을 하나 넣게 했다. 잠시 후 궤를 밖으로 실어 나와 백옥 계단 앞에 놓게 한 뒤, 손오공에게 말했다.

"너희 두 쪽이 각자 도술을 겨루어, 저 궤 안에 든 보물이 무엇인지 맞춰 보아라."

당승이 물었다. '제자야, 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손오공은 상서로운 빛을 거두고 다시 작은 매미(蟪蛄蟲)로 변신하여 당승의 머리 위에 붙은 채 말했다. '스승님, 걱정 마세요. 제가 가서 보고 올게요.' 손오공은 가볍게 날아올라 궤 위로 내려가더니, 궤 다리 아래 판자 틈새를 찾아 기어 들어갔다. 그 안을 보니 붉은 칠을 한 쟁반 위에 궁중 의복 한 벌이 놓여 있었는데, 바로 산하사직의(山河社稷襖)와 건곤지리군(乾坤地理裙)이었다. 손오공이 그것을 집어 들어 마구 흔들더니, 허끝을 깨물어 피를 한 입 머금고는 '변해라!' 하고 외치며 피를 뱉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다 해진 낡은 겹옷(一口鐘, 종 모양의 소매 없는 망토) 한 벌로 변했다. 손오공은 나오기 전에 그 위에 오줌까지 한 줄기 갈겨넣고는, 다시 판자 틈새로 빠져나와 당승의 귀에 날아와 앉으며 말했다. '스승님, 그냥 다 해진 낡은 겹옷(一口鐘) 한 벌이라고 맞히세요.' 당승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저들이 보물을 맞히라고 하는데, 그까짓 낡은 겹옷이 무슨 보물이란 말이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맞히기만 하세요.'

당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막 맞히려는 찰나, 노력대선이 말했다. '내가 먼저 맞히겠다! 저 궤 안에는 산하사직의와 건곤지리군이 들어 있다.' 그러자 당승이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궤 안에는 다 해진 낡은 겂옷(一口鐘) 한 벌이 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국왕이 꾸짖었다. '이 중이 무례하구나! 감히 우리 나라에 보물이 없다고 비웃다니, 무슨 낡은 겂옷이란 말이나?' 국왕이 명령했다. '저놈을 잡아라!' 그러자 두 줄로 늘어선 교위들이 손을 쓰려 했다. 당황한 당승이 합장하며 크게 외쳤다. '폐하, 부디 이 빈승을 잠시만 용서해 주십시오! 일단 궤를 열어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보물이 맞다면 죄를 달게 받겠으나, 보물이 아니라면 이 빈승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국왕이 궤를 열어보라 명했다. 어가를 모시는 관원이 즉시 궤를 열고 붉은쟁반을 받들어 내어 살펴보니, 과연 다 해진 낡은 겂옷 한 벌이었다. 국왕이 크게 노하며 소리쳤다. '누가 이런 물건을 넣어두었느냐!' 그때 용상 뒤에서 삼궁황후가 나서며 말했다. '폐하, 그것은 신첩이 직접 넣어둔 산하사직의와 건곤지리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물건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왕이 말했다. '황후는 물러가시오. 과인이 알아서 하겠소. 궁중에서 쓰는 물건은 죄다 비단과 명주뿐인데, 어찌 이런 낡은 겂옷 따위가 있단 말ियो?' 국왕이 다시 명했다. '궤를 위로 올려라. 내가 직접 보물을 넣어둘 터이니, 다시 한번 맞혀보도록 하겠다.' 황제는 즉시 후궁으로 가서, 어화원 선도나무에 열린 사발만한 큰 복숭아 하나를 따서 궤 안에 넣고, 다시 궤를 내려 맞혀보라고 했다.

당승이 말했다. "제자야, 또 맞히러 가야겠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가서 다시 보고 올게요."

손오공은 다시 한번 잉잉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틈새 사이로 쏙 들어가 확인해 보니, 마침 딱 원하던 복숭아였다. 손오공은 즉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껍데 안에 앉아 복숭아를 정신없이 갉아먹었다. 양 볼이 움푹 패일 정도로 깨끗이 먹어 치운 뒤, 복숭아 씨앗을 다시 그 안에 잘 넣어두었다. 그러고는 다시 굴뚝으로 변해 날아 나가 당승의 귀에 딱 달라붙으며 말했다.

"스님, 복숭아 씨앗이라고 맞히면 돼요."

당승이 말했다. "제자야, 나를 놀리지 마라. 아까는 너무 성급하게 대답했다가 하마터면 큰 망신을 당할 뻔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제대로 보물을 맞혀야 한다. 복숭아 씨앗이 대체 무슨 보물이란 말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겁내지 마세요.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삼장이 막 입을 열려는데, 양력대선이 먼저 말했다. "이 도사가 먼저 맞히겠소. 그것은 분명 신선이 먹는 복숭아일 것이요."

그러자 삼장이 말했다. "복숭아가 아니라, 매끈한 복숭아 씨앗 하나입니다."

국왕이 호통을 쳤다. "짐이 직접 넣어둔 신선한 복숭아인데 어찌 씨앗이란 말이나? 세 번째 국사가 맞혔구나!"

삼장이 말했다. "폐하, 상자를 열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마관이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려 열고 쟁반을 받들어 올리니, 과연 껌질과 과육은 하나도 남지 않은 씨앗 하나뿐이었다. 이를 본 국왕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국사들이여, 이제 이 자와 내기를 그만두고 그냥 보내주시오. 과인이 직접 숨겨둔 복숭아가 이제 씨앗 하나뿐이라니, 대체 누가 먹었던 말ियो? 필시 귀신이나 신선이 몰래 도와준 것이 분명하오."

이 말을 들은 저팔계가 사오정에게 살짝 비웃음을 흘리며 속삭였다. "저놈이 복숭아를 먹어치운 지 수백 년은 된 모양이네."

이야기는 이러하다. 호력대선이 문화전에서 몸단장을 마치고 전각 위로 올라오며 말했다.

“폐하, 저 스님은 물건을 옮겨 실을 줄 아는 술법을 부립니다. 저 껌 짹을 들어 올리게 하십시오. 제가 저놈의 술법을 깨뜨리고 다시 내기를 하겠습니다.”

국왕이 물었다.

“국사께서는 무엇을 더 맞히시겠다는 겁니까?”

호력대선이 대답했다.

“술법은 물건은 옮길 수 있어도 사람의 몸까지는 옮기지 못합니다. 저 껌 짹 안에 동자를 숨겨 넣으면, 저놈도 절대로 바꿔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린 동자가 궤짝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궤짝 뚜껑을 닫은 뒤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 옮기며 말했다.

“자, 이제 저 스님이 다시 맞춰 보게 하시오. 이 세 번의 내기에는 각각 어떤 보물이 들어 있는지 말이오!”

당승이 말했다. '또 시작이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제가 다시 가서 보고 올게요.' 손오공은 잉 소리를 내며 날아가 궤 안으로 들어갔다. 안을 보니 어린 동자 하나가 있었다. 과연 손오공은 식견이 있었으니, 참으로 천하에 보기 드문 둔갑 솜씨요 세상에 드문 영리함이었다. 그는 몸을 흔들며 늙은 도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한 뒤 궤 안으로 들어가 외쳤다. '제자야!' 동자가 물었다. '스승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둔갑술을 써서 왔다.' 동자가 물었다. '무슨 가르침을 주러 오셨나요?' 손오공이 말했다. '저 중이 네가 궤에 들어가는 걸 봤단다. 만약 저자가 도동이라 맞다면 또 지고 마니, 너와 의논하러 온 것이다. 네 머리를 깎아 우리가 중이라고 맞히게 하자꾸나.' 동자가 말했다.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또 지면 명성이 깎일 뿐 아니라 조정에서도 저희를 존중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옳은 말이다. 애야, 이리 오너라. 이기면 크게 상을 내려주마.' 손오공은 여의봉을 면도칼로 변하게 한 뒤 동자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착하지, 아파도 참고 소리 내지 마라. 머리를 깎아 줄게.' 잠시 후 머리카락을 깎아낸 손오공은 그것을 뭉쳐 궤 다리 틈새에 쑤셔 넣었다. 칼을 거두고 동자의 매끈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애야, 이제 머리는 중 같구나. 다만 옷이 어울리지 않으니 벗어라, 바꿔주마.' 동자가 입고 있던, 파뿌리빛(蔥白色)에 구름무늬를 수놓고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학창의(鶴擎)를 벗자, 손오공이 신선의 기운을 불며 '변해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옷은 흙황색 직철(直綴)로 변했고 동자는 그것을 입었다. 이어 손오공은 털 두 가닥을 뽑아 목어(木魚)를 만들어 동자의 손에 쥐여주며 말했다. '제자야, 잘 들어라. 저들이 「도동」 이라고 부르면 절대 나가지 말고, 「중」 이라고 부르면 그때 궤 뚜껑을 밀어 올리고 목어를 두드리며 불경 한 권을 외우면서 기어 나와야 성공하는 것이다.' 동자가 말했다. '저는 《삼관경》, 《북두경》, 《소재경》 만 외울 줄 알지 불가의 경전은 외울 줄 모릅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럼 염불은 할 줄 아느냐?' 동자가 대답했다. '아미타불, 그걸 못 하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됐다, 됐어. 그럼 그냥 염불을 하여라. 새로 가르치기 귀찮으니 말이다. 꼭 명심해라. 그럼 난 간다.' 손오공은 다시 작은 매미(蟪蛄蟲)로 변해 궤 밖으로 빠져나와 당승의 귓가를 날며 속삭였다. '스승님, 그냥 「중」 이라고 맞히세요.' 당승이 말했다. '이번에는 저자가 분명 이기겠구나.' 손오공이 물었다.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당승이 대답했다. '경전에 「불·법·승 삼보(三寶)」 라 하였으니, 중 또한 하나의 보물이니 않느냐.'

한편, 호력대선이 말했다. "폐하, 세 번째는 도동입니다!" 하지만 호력대선이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나올 기미가 없었다. 그러자 당승이 합장하며 말했다. "그 아이는 스님입니다." 저팔계도 힘껏 소리를 높여 외쳤다. "궤 안에 있는 건 스님이라니까요!" 그러자 그 아이가 갑자기 궤 뚜껑을 밀치고 나오더니, 목어를 두드리며 불경을 외우며 나타났다. 그 모습에 문무백관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세 도사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국왕이 말했다. "저 스님은 분명 귀신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도사가 상자 속에 들어갔는데 어찌 스님으로 변한단 말이나? 설령 누군가를 들여보낸다 해도 머리만 깎일 뿐이지, 어찌 옷까지 몸에 딱 맞게 변하고 입으로는 불경까지 외운단 말이나. 국사들이여, 그냥 보내주소."

그러자 호력대선이 말했다. "폐하, 원래 실력이 비슷한 상대끼리 만나야 제맛인 법입니다. 빈도가 종남산에서 어릴 적 배웠던 무예를 가지고 저자와 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왕이 물었다. "무슨 무예란 말이나?"

호력대선이 대답했다. "우리 형제 셋은 모두 신통력이 있습니다. 머리를 베어내도 다시 붙일 수 있고,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도 다시 생겨나며, 끓는 기름솥 안에서도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왕이 깜짝 놀라 외쳤다. "그 세 가지는 모두 죽음을 자초하는 길 아니냐!"

호력대선이 말했다. "저희에게 이런 법력이 있기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자와 끝장을 보는 내기를 해야겠습니다."

국왕이 손행자에게 소리쳤다. "동토의 스님이여, 우리 국사들이 그대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네. 머리를 베고, 배를 가르고, 끓는 기름솥에 들어가 목욕하는 내기를 하겠다고 하니 어찌할 텐가!"

손오공은 막 작은 매미(蟪蛄蟲)로 변신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털을 거두고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허허, 이것 참! 운수가 좋구나, 운수가 좋아! 큰 장사가 제 발로 찾아왔어!' 저팔계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 세 가지 내기는 전부 목숨을 내놓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장사라는 거야?' 손오공이 대답했다. '자네는 아직 내 재주를 모르는 군.'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이렇게 변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무슨 재주가 더 있다는 거야?' 손오공이 말했다. '내 재주가 어떤 거냐 하면, 머리를 베어 놓아도 말을 할 수 있고, 팔을 잘라 놓아도 사람을 때릴 수 있지. 다리를 잘라 놓아도 걸어 다니고, 배를 갈라 놓아도 멀쩡히 다시 아무니 그 솜씨가 절묘하다네. 마치 남이 만두를 빚듯 한 번 꼬집으면 하나가 통째로 빗어지듯. 기름솔에서 목욕하는 건 더 쉬운 일이라, 그저 따뜻한 물로 때를 씻는 것과 같다네.' 그 말을 들은 저팔계와 사오정은 꺄꺄 웃었다.

손오공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폐하, 이 어린 중이 머리 베는 재주를 부릴 줄 압니다.' 국왕이 물었다. '머리를 베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가 예전에 절에서 수행할 때, 떠돌이 선승(方上禪和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머리 베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좋은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한번 새로 시험해 보겠습니다.' 국왕이 웃으며 말했다. '그 중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머리 베는 일을 어찌 새로 시험해 본단 말이나? 머리는 육양(六陽)이 모이는 으뜸 자리라, 베어 내면 곧 죽고 마는 법이거늘.' 그러자 호력대선이 거들었다. '폐하, 바로 그렇게 해야

저희의 분이 풀립니다.' 어리석은 국왕은 그 말에 속아 즉시 명을 내려 살장(殺場)을 마련하게 했다.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우림군 삼천 명이 궁궐 문밖에 늘어섰다. 국왕이 명령했다. "스님부터 먼저 가서 목을 내놓아라." 그러자 손오공이 기쁘게 대답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손오공은 손을 모아 쥐고 큰 소리로 외쳤다. "국사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먼저 선수를 치겠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당승이 급히 손오공을 붙잡으며 말했다. "제자야, 조심하거라. 그곳은 장난칠 만한 곳이 아니란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들이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손 놓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손오공이 곧장 살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망나니들이 그를 붙잡아 한데 묶더니, 흙으로 만든 높은 둔덕 위에 얹어 놓았다. 곧이어 '칼을 대라!' 하는 외침과 함께 쇠 소리를 내며 목이 잘려 나갔다. 잘린 머리는 망나니가 발로 차버렸는데, 마치 굴러가는 수박처럼 삼사십 걸음(30~40보)이나 멀리 굴러갔다. 하지만 손오공의 몸에서는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그때 손오공의 뱃속에서 '머리야, 이리로 오너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를 본 녹력대선은 이런 수단이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주문을 외워 그곳의 토지신과 신령들에게 일렀다. '저 머리를 꼭 붙잡아라! 내가 저 중을 이겨 국왕에게 아뢰고 나면, 너희에게 작은 사당 대신 큰 사묘를 지어주고, 진흙으로 빚은 신상도 순금 몸으로 다시 만들어 주겠다!' 알고 보니 그 토지신과 신령들은 녹력대선이 오뢰법(五雷法)을 지녀 그의 부림에 복종하고 있었기에, 몰래 손오공의 머리를 놀

리 붙잡아 두었다. 손오공이 다시 '머리야, 이리로 오너라!' 하고 외쳤으나, 머리는 마치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손오공이 주먹을 짝 쥐고 힘껏 몸을 뒤틀자, 묶고 있던 밧줄이 모두 끊어졌다. 손오공이 '자라라!' 하고 호통치자, 목 위로 쉼 하고 머리가 다시 솟아올랐다. 망나니들은 혼비백산하고 우림군 병사들도 간담이 서늘해졌다. 감창관이 급히 궁궐로 달려가 아뢰었다. '폐하, 저 어린 중의 머리를 베었는데, 다시 머리 하나가 자라났나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팔계가 냉소하며 말했다. '사오정, 형님에게 저런 재주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나.' 사오정이 대답했다. '형님은 일흔두 가지 변화술을 부리시니, 머리도 일흔두 개나 있으시겠지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손오공이 다가와 "스승님!" 하고 불렀다. 당승이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제자야, 고생스럽지는 않았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고생은커녕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다가와 물었다. "형님, 상처에 바를 약은 좀 챙겨 두셨습니까?" 손오공이 되물었다. "네가 직접 만져보고 칼자국이 있는지 확인해 보든가." 저팔계가 손을 뻗어 슬쩍 만져보더니, 멍청한 표정으로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상처 하나 없이 완전히 새살이 돋았군요!"

형제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을 때, 국왕이 관문을 내리라는 명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죄를 사하노라. 어서 가거라, 어서 가!"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관문을 받았다고 해도, 국사께서도 직접 처형장에 가서 목이 잘리는 법을 시험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왕이 말했다. "대국사, 저 스님도 너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 그와 내기를 해서 이기도록 해라. 나를 속이려 들지 말고."

호력대선은 어쩔 수 없이 처형장으로 향했다. 그는 몇 명의 망나니에게 붙잡혀 바닥에 거꾸러졌고, 칼이 번뜩이더니 목이 단번에 잘려 나갔다. 잘린 머리는 발길질에 차여 서른 걸음 넘게 굴러갔다. 그런데도 목에서는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니,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닌가.

"내 머리 가져와라!"

손오공은 즉시 자신의 털 한 가닥을 뽑아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손오공은 황구로 변신하여 마당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 도사의 머리를 입에 덥석 물고는 곧장 어수하 강가로 달려가 던져 버렸다.

한편, 그 도사는 세 번이나 외쳤으나 머리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어찌 손오공의 수단에 비기겠는가. 잘린 머리는 다시 자라나지 않고, 오히려 목 안에서 붉은 빛이 팔팔 솟구쳐 나왔다. 가련하게도 비바람을 부르는 법술은 헛되이 지냈을 뿐, 어찌 장생을 이루어 정과(正果)를 얻은 진짜 신선에 비기겠는가. 잠시 후 그는 먼지 속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살펴보니, 그것은 머리 없는 누런 털 호랑이(黃毛虎) 한 마리였다.

형리(刑吏)가 다시 나아가 고했다. "폐하, 대국사가 머리를 베었으나 다시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죽어버렸나이다. 머리 없는 황색 호랑이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국왕은 이 보고를 듣고 안색이 급변하여, 눈을 떼지 못한 채 두 도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노력대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제 사형은 이미 운명이 다해 죽은 것이지, 어찌 황색 호랑이가 되었던 말입니까? 이것은 모두 저 스님이 부린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제 사형을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놈을 절대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반드시 배를 가르고 심장을 꺼내는 내기를 해서 저놈을 응징하겠습니다!"

국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러고는 다시 말했다. '어린 중아, 둘째 국사가 그대와 내기를 더 하려 하오.' 손오공이 말했다. '이 어린 중은 오랫동안 화식(火食)을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서쪽으로 오던 길에 우연히 재가 신자(齋公) 집에서 밥을 권하기에 찰빵을 몇 개 더 먹었는데, 요 며칠 배속이 아픈 것이 아무래도 벌레가 생긴 모양입니다. 마침 폐하의 칼을 빌려 배를 갈라 장부(臟腑)를 꺼내고 비위(脾胃)를 깨끗이 씻어낸 뒤에야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을 뵙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왕이 이 말을 듣고 명했다. '그를 끌어다 처형장으로 보내라!' 많은 사람이 손오공을 부축하고 잡아끌려 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사람이 부축할 필요 없으니 내 스스로 걸어가겠소. 다만 한 가지, 내 손은 묶지 마시오. 그래야 손으로 장부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을 것 아니요.' 국왕이 명을 내렸다. '그의 손을 묶지 마라.'

손오공은 몸을 흔들흔들거리며 곧장 살장으로 향했다. 커다란 말뚝에 몸을 기댄 채 옷띠를 풀고 배를 드러냈다. 망나니가 그의 어깨와 목에 밧줄을 걸고 다리까지 단단히 묶더니, 소 귀 모양의 짧은 칼을 휘두르며 배 밑부분을 속 그어 구멍을 냈다. 그러자 손오공이 두 손으로 벌어진 배를 양옆으로 벌리더니 창자를 끄집어냈다. 한참 동안 창자를 하나하나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다가, 다시 배 안으로 집어넣으니 창자는 예전처럼 그대로 파리를 틀고 있었다. 손오공은 배를 만지며 신선한 기운을 입으로 후 하고 불더니 "길어져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배가 다시 매끄럽게 붙었다.

국왕은 크게 놀라, 그 통행증을 손에 받쳐 들고 말했다. '성스러운 스님, 서행을 그르치지 마시고 이 통행증을 가지고 어서 떠나십시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통행증 따위는 사소한 일입니다. 둘째 국사(녹력대선)께서도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내 보시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왕이 녹력대선에게 말했다. '이 일은 과인과는 상관없는 일이오. 그대가 저 자와 맞붙기로 한 것이니, 어서 가서 해보시오.' 녹력대선이 말했다. '마음 놓으십시오. 제가 저 자에게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손오공과도 같아, 비틀거리며 살장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망나니가 그의 몸에 밧줄을 씌우더니, 소 귀 모양의 짧은 칼로 획 소리를 내며 배를 갈라버렸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간과 창자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작거리기까지 했다.

이때 손오공이 털 한 가닥을 뽑아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오공은 굶주린 매로 변신했다. 매는 날개와 발톱을 활짝 펴더니, 획 소리를 내며 그의 오장육부와 심장, 간을 남김 없이 낚아채 갔다. 매가 그것들을 어디로 날아가 맛있게 먹으러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되니 도사는 배가 갈려 내장이 다 빠져나간 채 피를 흘리는 귀신 꼴이 되었고, 장기도 오장도 없는 떠돌이 혼백이 되어버렸다. 망나니가 커다란 나무 말뚝을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시체를 끌어다 확인해 보니, 아! 알고 보니 그것은 털이 하얀 사슴 한 마리였다.

사형을 집행하던 관리들이 당황하며 달려와 보고했다. “국사님께 불운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금 배를 가르느 순간, 굶주린 매 한 마리가 나타나 장기와 간을 모조리 낚아채 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모습은 흰 털을 가진 각록(뿔이 달린 사슴)이었습니다.”

국왕이 겁에 질려 물었다. “어찌하여 각록이었던 말이나?”

그러자 양력대선이 다시 보고했다. “사형께서 돌아가셨는데 어찌 본래의 짐승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젠 모두 저 스님이 도술을 부려 저희를 해치려는 수작입니다. 제가 반드시 사형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국왕이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무슨 법력으로 저자를 이길 수 있겠느냐?”

양력대선이 대답했다. “눔과 끓는 기름솥에 들어가 목욕하는 내기를 하겠습니다.”

국왕은 즉시 커다란 솔 하나를 가져오게 하여 향기로운 기름을 가득 채운 뒤, 두 사람이 내기를 하도록 허락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린 스님이 평소에 목욕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요 며칠 피부가 가렵고 근질근질하던 참인데, 이번 기회에 시원하게 한번 씻어봐야겠습니다.”

"그럼 당장 기름솔을 내려놓고 마른 장작을 쌓아 올려 불을 활활 피워라. 기름이 팔팔 끓으면 스님을 먼저 집어넣도록 해라."

국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손오공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물었다.

"전, '문세(文洗, 옷을 입고 씻기)'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세(武洗, 옷을 벗고 씻기)'로 하시겠습니까?"

국왕이 되물었다.

"문세는 어찌하는 것이고, 무세는 어찌하는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문세는 옷을 입은 채로 이렇게 두 손을 맞잡고 들어가서 한 바퀴 굴러 나온 뒤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때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며, 기름기가 조금이라도 묻으면 지는 것입니다. 무세는 옷걸이 하나와 수건 한 장을 가져와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뛰어든 다음 마음껏 공중제비를 돌거나 물 위를 걷듯 자유롭게 노는 것입니다."

국왕이 양력대선에게 물었다.

"자네는 저놈과 문세로 겨루겠는가, 아니면 무세로 겨루겠는가?"

양력대선이 말했다.

"문세로 하자니 저놈의 옷이 혹시 약물로 처리되어 기름이 스며들지 않게 되어 있을까 걱정됩니다. 차라리 무세로 하세요."

손오공이 다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 번 먼저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라. 손오공은 입고 있던 배직철과 호랑이 가죽 치마를 벗어 던지더니, 몸을 휙 날려 기름솔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마치 물놀이를 하듯 파도를 일으키며 신나게 노닐었다. 이 모습을 본 저팔계는 손가락을 깨물며 사오정에게 말했다. '우리가 저 원숭이를 잘못 봤어. 평소에는 빈정대고 비웃으며 장난만 치길래, 저런 진짜 실력이 있는 줄은 몰랐네.' 두 사람은 소곤거리며 손오공의 솜씨를 끝없이 칭찬했다.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고는 속으로 의아해하며 말했다. "저 바보 같은 녀석이 나를 비웃는구나. 정말이지 '재주 있는 놈은 고생하고, 서툰 놈은 한가하다'더니 딱 그 꼴이네. 나는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저놈은 아주 편안해 보이는군. 내가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저놈을 밧줄로 꼬꼬 묶어버릴 테니, 그때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말을 마친 손오공은 곧바로 목욕을 시작했다. 물을 한 움큼 떠서 기름솔 바닥에 좌악 뿌리더니, 순식간에 대추 씨앗처럼 작은 못으로 변신하여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깊숙이 박혀 버렸다.

감참관이 앞으로 나아가 다시 아뢰었다. '폐하, 어린 중이 끓는 기름에 삶겨 죽었습니다.' 국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 유골을 건져 올려 확인하라고 명했다. 망나니가 쇠로 만든 조리(箆籬)를 기름솥에 넣어 건지려 했다. 그런데 그 조리의 그물눈이 워낙 성긴 데다 손오공이 아주 작은 못으로 변해 있던 터라, 이리저리 그물눈 사이로 자꾸 빠져 내려가니 도무지 건져낼 수가 없었다. 망나니가 다시 아뢰었다. '중의 몸이 워낙 작고 뼈도 연하여, 기름에 튀겨지자마자 다 녹아버렸습니다.' 국왕이 명령했다. '그럼 저 중 세 명을 마저 집어넣어라.' 이때 양옆을 지키던 교위들이 저팔계의 얼굴이 험상궂은 것을 보고, 먼저 그를 낚아채 넘어뜨린 뒤 등 뒤로 꽂꽂 묶어버렸다.

그 말을 들은 당승이 당황하여 크게 외쳤다.

"폐하, 이 빈승을 잠시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제자는 불교에 귀의한 뒤로 줄곧 큰 공을 세워 왔습니다. 오늘 국사님들께 결례를 범하여 기름솥 안에서 죽게 되었으니, 먼저 죽은 자는 신령이 되는 법입니다. 이 빈승이 어찌 감히 목숨을 구걸하겠습니까? 천하의 관리들이 천하의 백성을 보살피듯, 폐하께서 신을 죽이라 명하시는데 신이 어찌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너그러운 은혜를 베푸시어, 시원한 죽 한 그릇과 종이로 만든 말 세 마리를 내려주소서. 기름솥 앞으로 가서 종이돈을 태우며 저희 사제 간의 정성을 표한 뒤, 그 후에 다시 죄를 청하겠습니다."

국왕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과연 그렇구나. 중화의 사람들은 의리가 깊으니 말이다."

국왕은 즉시 죽과 황전(종이돈)을 가져오라 명했다. 과연 물건들이 준비되어 당승에게 전달되었다.

당승은 사오정에게도 함께 가자고 일렀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니, 몇몇 교위가 저팔계의 귀를 붙잡아 기름솔 옆에 끌어다 놓았다. 당승은 솔을 향해 축문을 읊으며 빌었다. '제자 손오공아, 선림에서 계를 받고 수행을 시작한 뒤로, 나를 서천으로 인도하며 베푼 은혜가 참으로 깊구나. 함께 큰 도를 이루기를 바랐거늘, 어찌 오늘 네가 저승으로 돌아갈 줄 알았으랴. 살아생전 오직 경전을 구하려는 뜻뿐이었으니, 죽어서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남아 있으리라. 만 리 밖 영웅의 녀이며, 부디 기다렸다가 저승에서 귀신이 되어 뇌음사로 오너라.' 저팔계가 그 소리를 듣고 말했다. '스님, 축문을 그렇게 읊으시면 안 되죠. —사오정, 네가 내 몫의 제삿밥을 올려줘. 내가 빌 테니까.' 땅바닥에 퐁퐁 묵인 채 저팔계가 씹씹거리며 욕을 해댔다. '사고만 치는 못된 원숭이 놈, 무식한 필마온(弼馬溫) 놈! 죽어 마땅한 못된 원숭이 놈, 기름에 튀겨 질 필마온 놈! 원숭이 놈은 끝장나고, 필마온 놈은 씨가 마르리라!' 기름솔 바닥에 있던 손오공은 저팔계가 마구 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참지 못하고 본래 모습을 드러냈다. 손오공은 기름이 뚝뚝 흐르는 알몸으로 솔 바닥에 서서 말했다. '이 밥만 축내는 멍청한 놈아! 지금 누구를 욕하는 거냐?' 당승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제자야, 깜짝 놀랐잖느냐!' 사오정이 말했다. '큰형님은 으레 죽은 척하는 데 이골이 나셨잖아요.'

당황한 문무백관들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 저 스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또 기름솔 안에서 쭉 하고 기어 나왔습니다!” 집행관은 혹시나 거짓말을 했다가 화를 당할까 겁이 났지만, 이내 다시 아뢰었

다. “죽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죽은 날짜가 불길하여, 저 어린 스님이 혼령이 되어 나타난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손오공이 크게 노하여 기름솔 밖으로 뛰어올랐다. 몸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내고 옷을 챙겨 입은 손오공은 곧장 여의봉을 뿔아 들더니, 집행관을 향해 단 한 번을 휘둘렀다. 그러자 집행관은 그대로 으깨져 고기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내가 무슨 혼령이란 말이나!” 손오공이 호통을 치자, 겁에 질린 관리들이 서둘러 저팔계를 풀어주고는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국왕이 용상에서 내려오려 하자, 손오공이 전각 위로 올라가 국왕을 붙잡으며 말했다. “폐하, 어디 가십니까? 당신네 세 국사도 똑같이 기름솔에 들어가게 만들어 드려야겠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벌벌 떨며 말했다. “세 국사여, 제발 짐을 살려주시오! 어서 저 기름솔에 들어가시오! 저 스님이 나를 때리지 못하게 막아주란 말이오!”

양력대선이 전각에서 내려오더니, 손오공이 옷을 벗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기름솔 안으로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며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국왕을 안심시킨 뒤 기름솔 근처로 다가가 불을 지피는 이에게 땀감을 더 넣으라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한 번 훑어 보았는데, 아! 펄펄 끓어야 할 기름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씻을 때는 뜨거웠는데, 저자가 씻을 때는 차갑다니. 알겠구나, 분명 어떤 용왕이 여기서 저자를 돕고 있는 게로군.'

손오공은 즉시 몸을 날려 공중에 솟구치더니, '옴' 자 주문을 외우며 북해 용왕을 불러냈다. "이 뿔 달린 지렁이 같은 놈, 비늘 달린 미꾸라

지 같은 놈아! 네가 어찌하여 도사를 도와 술 밑에 냉룡(차가운 용)을 배치해, 저자가 신통력을 부려 나를 이기게 하려 하느냐!"

그러자 용왕이 황급히 대답했다. "오순은 감히 도술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성께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요괴 놈이 고된 수행을 거쳐 껍질을 벗어던졌다고는 하나, 결국 오뢰법(다섯 가지 번개의 법술)만 겨우 익혔을 뿐 나머지는 다 결가지일 뿐이라 신선의 길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놈이 쓰는 것은 소묘산에서 배운 '대개박'이라는 술법입니다. 앞선 두 놈은 이미 대성께서 술법을 깨뜨려 본모습을 드러냈지만, 이 놈이 직접 길들인 냉룡은 그저 속세 사람들을 속여 장난을 치는 용도일 뿐인데 어찌 대성을 속이겠습니까? 이 작은 용이 이제 냉룡을 거두어 저놈의 뼈를 부수고 살을 태워버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어서 거두어라, 그러지 않으면 매를 맞을 줄 알아라."

용왕은 회오리바람이 되어 기름술로 날아가 냉룡을 붙잡아 바다로 데려갔으니, 그 뒤의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손오공이 내려와 당승,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전각 앞에 서서 지켜보니, 그 도사는 끓는 기름술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다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순식간에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타며 짓이겨지고 말았다.

감참관이 다시 나아와 아뢰었다. '폐하, 세 번째 국사께서 기름에 튀겨져 녹아버렸나이다.' 국왕은 눈물을 가득 흘리며 어안(御案)을 손으로 치고는 목놓아 통곡하며 말했다. '사람 몸 받기 참으로 어렵거늘, 참

된 전수를 만나지 못하면 단약을 닦지 말지니라. 신을 부리고 물에 주문 거는 술법은 헛되이 지냈으되, 수명을 늘려 생명을 지킬 단약은 없었구나. 원만한 깨달음이 흐려졌으니 어찌 열반에 들겠는가, 헛되이 잔꾀만 부리다 목숨마저 불안해졌구나. 진작 이렇게 쉬이 꺾일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은밀히 도를 닦으며 산속에 편히 머무는 게 낫지 않았으랴?' 이것이 바로, '금을 만들고 수은을 녹인들 무슨 소용이며, 비를 부르고 바람을 일으킨들 모두 헛것이로다!'

결국 스승과 제자들이 어떻게 위기를 넘겼을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7회 — 성스러운 승려가 밤중에 통천 수를 막아내고, 금목신이 자비를 베풀어 어린아이를 구하다

聖僧夜阻通天水 金木垂慈救小童

한편, 국왕은 용상에 기대어 눈물을 샘물처럼 쏟아내며 해가 저물 때까지 멈추지 않고 울었다. 손오공이 앞으로 나서며 크게 외쳤다.

“어찌 이리도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저기 놓인 도사들의 시체를 보십시오. 하나는 호랑이고 하나는 사슴이며, 저 양은 영양입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뼈를 건져 올려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의 해골이 저리 생겼겠습니까? 저들은 본래 요괴가 된 산짐승들입니다. 마음을 합쳐 이곳까지 와서 당신을 해치려 했으나, 아직 당신의 운세가 왕성한 것을 보고 감히 손을 쓰지 못한 것뿐입니다. 만약 2년만 더 지나 당신의 운이 다했다면, 저들이 당신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 강산까지 통째로 차지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일찍 와서 요괴를 물리치고 당신의 목숨

을 구했으니,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우시는 겁니까? 어서 통행 문서(관문)를 처리해 주시고 저희를 떠나보내 주십시오!”

국왕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문무백관들도 모두 아뢰기를,

“죽은 자들은 과연 백록과 황호가 맞으며, 기름 솥 안에 있는 것도 정말 양의 뼈입니다. 성승의 말씀은 결코 가법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했다. 국왕이 말했다.

“사정이 그러하니 성승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태사께서는 성승을 지연사로 모시도록 하십시오. 내일 이른 아침 조회에서 동각을 활짝 열고, 광록시를 시켜 정갈한 채소 요리로 잔치를 베풀어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국왕은 손오공 일행을 사찰까지 정중히 배웅하여 편히 쉴 수 있게 하였다.

다음 날 새벽 오경(五更) 무렵, 국왕이 조회를 열어 여러 관리들을 불러 모은 뒤 명을 내렸다. "어서 승려를 모집한다는 방을 만들어 사대문의 각 길목마다 붙여라." 한편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차려졌고, 국왕은 수레를 타고 조회를 마친 뒤 지연사 문밖으로 나가 삼장법사 일행을 모셨다. 그리고 모두 함께 동각으로 들어가 잔치를 즐겼는데, 이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목숨을 구한 스님들은 승려를 모집한다는 방이 붙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기뻐하며 성안으로 들어와 손오공을 찾아왔다. 손오공이 준 털로 목숨을 건진 보답을 하기 위해서였다. 잔치를 마친 장로는 국왕과 함께 방을 떼어내고, 황후와 후궁들, 그리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성문 밖까지 배웅하러 나갔다.

길가에는 스님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제 천대성 어르신, 저희는 모래사장에서 목숨을 건진 스님들입니다! 어르신께서 요괴를 물리쳐 저희를 구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왕께서 스님들을 모집한다는 방까지 붙이셨기에, 어르신이 주신 털을 가져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찾아옵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물었다. "너희는 모두 몇 명이나 오느냐?" 스님들이 대답했다. "오백 명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손오공이 몸을 한 번 흔들자 스님들이 가져온 털들이 모두 거두어졌다. 손오공은 국왕과 신하들, 스님과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이 스님들은 사실 내가 살려준 이들입니다. 수레들도 이 몸이 쌍관(雙關)으로 운반하고 협척(夾脊)을 지나게 하여 부숴버린 것이고, 그 두 요사한 도사도 내가 때려잡은 것입니다. 오늘 요괴를 멸하고 나서야 비로소 불교의 도가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믿고 어지럽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국왕께서는 부디 유·불·도 삼교(三敎)를 하나로 아울러, 스님도 공경하고 도사도 존중하며 인재도 길러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굳건하게 지켜주겠습니다."

국왕은 그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며 끝없는 감사를 표했고, 이윽고 당승을 성 밖으로 정중히 배웅했다.

이번 여정은 오직 삼장법사를 정성껏 모시고, 수행에 힘써 일원(一元)의 도를 밝히기 위함이었다. 낮에는 길을 걷고 밤에는 머무르며,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다 보니, 어느덧 봄이 가고 여름이 저물어 다시 가을빛이 완연한 계절이 되었다.

어느 날 날이 저물자, 삼장법사가 말 고삐를 당기며 말했다. "제자들아, 오늘 밤은 어디서 몸을 쉬어야 하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출가한 사람이 어찌 속세 사람처럼 말 씀하십니까?"

삼장법사가 물었다. "속세 사람이 어떠하고, 출가한 사람이 어떠한 말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속세 사람들은 이맘때쯤 따뜻한 침상과 포근한 이불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아내를 곁에 둔 채 편안히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출가자들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달빛과 별빛을 옷 삼아 걷고, 바람을 먹고 물을 마시며, 길이 있으면 가고 길이 없으면 그제야 머무는 법이지요."

그러자 저팔게가 끼어들었다. "형님, 형님은 앞뒤 사정을 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워낙 험하고 험해서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디라도 들어가서 한잠 푹 자며 기운을

좀 차려야 내일 또 짐을 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지쳐 쓰러질 지도 모른다고요."

손오공이 말했다. "달빛을 빌려 조금만 더 가자꾸나. 사람이 사는 곳이 나오면 그때 머물자."

스승과 제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어, 그저 손오공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길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디선가 물결이 세차게 몰아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팔계가 말했다. "에휴,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나 보네요." 사오정이 말했다. "커다란 물줄기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삼장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 넓은 물을 대체 어떻게 건너야 한단 말이냐?" 저팔계가 나섰다.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보면 되니까요." 삼장법사가 말했다. "오능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물이 깊고 얇은 것을 네가 어떻게 시험하겠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조약돌 하나를 찾아 물속으로 던져보면 됩니다. 물방울이 튀어 오르면 얇은 것이고, 돌이 쑥 소리를 내며 가라앉으면 깊은 것이지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럼 가서 한번 해 보아라." 저팔계는 바닥에서 돌 하나를 집어 들더니 물속으로 던졌다. 그러자 돌은 물거품을 일으키며 깊은 바닥까지 쑥 가라앉아 버렸다. 저팔계가 말했다. "깊다, 너무 깊어요! 못 건넵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깊고 얇은 것은 알았을지 몰라도, 이 물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지 않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한번 보마."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고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눈을 부릅뜨고 아래를 살펴 보았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넘실넘실 빛은 달빛에 잠기고, 드넓게 그림자는 하늘에 떠 있네. 신령한 물줄기는 화악산마저 삼길 듯하고, 긴 물길은 온갖 강을 꿰뚫어 흐르는구나. 천 겹의 사나운 물결이 굽이쳐 구르고, 만 겹의 험한 파도가 높이 솟구치네. 강기슭엔 고깃배 불빛 하나 없고, 모래톱엔 백로만이 잠들어 있구나. 아득하기가 흡사 바다와 같아, 한눈에 바라봐도 끝이 보이지 않네.

손오공은 급히 근두운을 거두어 강가로 내려오며 말했다. "스승님, 정말 넓습니다, 너무 넓어서 못 건너겠어요! 제 화안금정(불꽃 같은 눈)으로 낮에는 수천 리를 내다보며 길흉화복을 알아내고, 밤에도 수백 리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저 끝 기슭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 강이 얼마나 넓은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삼장법사는 크게 놀라 입도 떼지 못한 채, 목이 메어 울먹이며 말했다. "제자들아, 이 상황이 대체 어찌 된 일이나?" 사오정이 말했다. "스승님, 울지 마세요. 저기 물가에 서 있는 건 사람이 아닌가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물질하는 어부인 모양인데, 내가 가서 물어보마." 손오공은 여의봉을 챙겨 들고 두세 걸음에 성큼성큼 달려가 살펴보았다. 아뿔싸, 사람이 아니라 석비였다! 비석에는 전서체로 된 커다란 글자 세자가 적혀 있고, 그 아래 두 줄로 작은 글자 열자가 새겨져 있었다. 세 글자는 '통천하'였고, 열 글자는 '팔백 리 길을 지나니, 예부터 오가는 이 드물구나'라는 내용이었다. 손오공이 외쳤다. "스승님, 이리 오셔서 좀 보세요!" 삼장법사는 비석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제자들아, 내가 예전에 장안을 떠날 때만 해도 서천 가는 길이 쉬울 줄로

만 알았다. 요괴들이 앞길을 막고 산과 강이 이토록 멀고 험할 줄을 어찌 알았겠느냐.”

저팔계가 말했다. "스승님, 들어보세요. 어디서 북과 징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재를 올리는 집인가 봅니다. 우리도 가서 밥이나 좀 얻어먹고, 나룻터를 찾아 배를 물어본 뒤에 내일 건너가시지요."

삼장법사가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 보니, 과연 북과 징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교의 악기 소리가 아니라, 우리 승려들이 행하는 의식의 소리가 분명하구나. 어서 가보자꾸나."

손오공이 앞장서서 말을 이끌었고, 일행은 소리를 따라 나아갔다. 그곳에 무슨 변변한 길이 있겠는가, 낮낮이도 분간할 수 없는 채로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가니, 마을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대략 사오백 가구 정도 되어 보였는데, 집들도 모두 번듯하게 잘 지어져 있었다.

산에 기대어 길이 나 있고, 강가에는 집들이 늘어서 있구나. 곳곳에는 사립문이 닫혀 있고, 집집마다 대나무 울타리가 둘러쳐졌네. 모래사장 위에는 백로가 잠들어 꿈속을 거닐고, 버드나무 밖에서는 새들이 울어대니 목소리가 서늘하구나. 짧은 피리 소리는 끊겼고, 찬 바람에 방망이질 소리도 들리지 않네. 붉은 마디풀 가지는 달빛에 흔들리고, 노란 갈대 잎은 바람과 다투는구나. 마을 어귀에서는 개가 험랑거리는 울타리를 향해 짖고, 나룻터의 늙은 어부는 낚싯배 위에서 잠들었네. 등불은 드물고 인가에는 정적이 흐르는데, 허공에 걸린 밝은 달은 마치

거울 같구나. 문득 흰 수생식물의 향기가 풍겨오니, 서풍을 타고 강 건너편에서 전해져 오는 것이로다.

삼장법사가 말에서 내리니, 길가에 집 한 채가 보였다. 문밖에는 깃발이 세워져 있고, 집 안에서는 등불이 환하게 빛나며 향 연기가 그윽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손오공, 이곳은 아까 그 산골짜기나 강가와와는 확실히 다르구나. 인간 세상의 지붕 아래라면 찬 이슬을 피하며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겠어. 너희는 일단 오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먼저 가서 공양을 대접하는 분께 청해 보마. 만약 머물게 해주면 내가 너희를 불러오겠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절대 소란을 피워서 안 된다. 너희는 얼굴과 입이 험상궂게 생겨서, 자칫 사람을 놀라게 했다가는 큰 화를 부르고 머물 곳조차 없게 될까 걱정되는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삼장법사는 삿갓을 벗고 머리를 드러낸 채, 옷을 가볍게 털고 지팡이를 끌며 남의 집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삼장법사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서성였다. 그때 안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는데, 목에는 염주를 걸고 입으로는 "아미타불"을 외우며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당황한 삼장법사가 합장하며 크게 외쳤다.

"노시주님, 빈승이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노인이 답례하며 말했다.

"스님, 너무 늦게 오셨구려."

삼장법사가 물었다.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늦게 오시면 드릴 것이 없지요. 일찍 오셨더라면 제 집에서 공양을 대접했을 텐데 말입니다. 잘 익은 쌀 세 되에 흰 천 한 필, 그리고 동전 열 푼을 내어드렸을 겁니다. 어찌하여 이 시간에야 오셨습니까?"

삼장법사가 몸을 굽히며 말했다.

"노시주님, 빈승은 공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노인이 물었다.

"공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면, 여기까지 무엇 하러 오셨소?"

삼장법사가 대답했다.

"저는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임무를 맡은 승려입니다. 이곳에 도착하니 이미 날이 저물었더군요. 댁에서 북과 징

치는 소리가 들리기에,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바로 떠나겠습니다."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스님, 출가한 몸이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동토 대당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5만 4천 리나 되는 먼 길인데, 스님처럼 혼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단 말ियो?"

삼장법사가 말했다.

"노시주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 명의 어린 제자가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며 저를 보살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제자들이 있다면 왜 같이 오지 않았소?"

그러고는 노인이 손짓하며 말했다.

"어서 오시오, 어서. 제 집에 쉴 곳이 있으니 들어오시구려."

삼장법사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제자들아, 이리로 오너라!"

손오공은 원래 성미가 급한 데다 저팔계는 태생부터 거칠었고, 사오정마저 앞뒤 가리지 않고 덤비는 성격이라, 세 제자는 스승의 부름을

듣자마자 말 고삐를 잡고 짐을 멘 채 앞뒤 재지 않고 바람처럼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은 깜짝 놀라 땅에 주저앉으며 "요괴다, 요괴가 나타났다!"라고 비명을 질렀다. 삼장법사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며 "보살님, 두려워 마십시오. 요괴가 아니라 제 제자들입니다."라고 달랬다. 그러자 노인이 벌벌 떨며 말했다. "이렇게 인자하고 훌륭한 스님께서 어찌 이리 못생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십니까?" 삼장법사가 대답했다. "비록 생김새는 그리 좋지 못하나, 용과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요괴를 잡아 가두는 재주는 아주 뛰어나합니다." 노인은 믿는 듯 마는 듯 하며 삼장법사를 부축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편, 세 사람이 흉악한 기세로 대청에 들이닥쳐 말을 매고 짐을 내려놓았다. 대청 안에는 원래 몇 명의 스님들이 경전을 읽고 있었는데, 저팔계가 긴 입을 쭉 내밀며 물었다. "어이, 스님들! 지금 무슨 경전을 읽고 있는 거요?" 그 질문을 들은 스님들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읊조렸다.

시로 이르되, "밖에서 온 사람들을 보니 입은 길고 귀는 크구나. 몸집은 굵고 어깨는 넓으며,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울리네. 손오공과 사오정은 그 생김새가 더욱 흉측하니, 대청에 모인 스님들 중 겁을 먹지 않는 이가 없구나. 스님들은 경전 읽기를 멈추고 우두머리는 도망칠 채비를 하네. 경쇠와 목탁을 챙길 겨를도 없이 불상마저 내팽개치고, 일제히 등불을 붙어 꺼버리니 빛이 번쩍하며 흩어지는구나. 넘어지고 기어가느라 문턱을 넘을 수나 있겠나. 머리와 머리가 부딪히는 꼴이 꼭 뒤집힌 호리병 선반 같으니, 청정한 수행처가 순식간에 웃음거리로 변했구나."

세 형제가 비틀거리며 도망치는 스님들을 보고는 손뼉을 치며 하하하 크게 웃었다. 그러자 스님들은 더욱 겁에 질려 머리를 땅에 찰고 허둥지둥 도망치느라, 제 목숨 하나 건지기에 급급하여 순식간에 모두 자리를 떠나버렸다.

삼장법사는 그 노인을 부축하여 대청으로 올라갔다. 대청에는 등불이 하나도 없어 캄캄했는데, 세 사람은 서로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다. 삼장법사가 꾸짖으며 말했다.

"이 못난 녀석들아, 정말 못된 버릇이구나! 내가 매일같이 가르치고 매일같이 당부하지 않았느냐. 옛사람이 이르기를, '가르치지 않아도 착한 사람은 성인이라 할 수 있고, 가르친 뒤에야 착해지는 사람은 현인이라 할 수 있으며, 가르쳐도 착해지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너희가 이토록 막무가내로 구는 것을 보니 참으로 천박하고 어리석은 부류로구나. 문을 들어서면서 높낮이도 구분 못 해 노보살님을 넘어뜨리고, 경 읽던 스님들을 놀라 흠어지게 하여 남의 경사스러운 일을 다 망쳐놓았으니, 이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삼장법사의 호통에 그들은 감히 대답도 못 하고 있었다. 그제야 노인은 이들이 제자임을 알아보고, 급히 고개를 돌려 예를 갖추며 말했다.

"나으리,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방금 불을 끄고 꽃을 뿌린 참이라 불공이 막 끝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그럼 이제 계산 다 끝난 거니까, 음식과 술을 넉넉히 차려 나오세요. 우리는 먹고 자게나."

노인이 소리쳤다.

"등불을 가져오너라! 등불을 가져와라!"

이 소리를 들은 집안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대청에서 경을 읽고 있는데 향과 촛불이 가득한데, 어찌하여 또 등불을 가져오라는 것이냐?"

하인 몇 명이 확인하러 나왔으나, 안쪽이 워낙 캄캄한 탓에 횃불을 들고 등롱을 켜 채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팔계와 사오정을 보고는, 너무 놀라 횃불을 떨어뜨린 채 황급히 몸을 돌려 중문을 닫아걸었다. 그리고는 안쪽을 향해 소리를 질러댔다.

"요괴다! 요괴가 나타났다!"

손오공이 횃불을 들어 촛불을 밝히더니, 의자를 끌어다 삼장법사를 앉게 했다. 제자들은 그 양옆에 앉았고, 노인은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한창 자리를 잡고 앉아 대화를 나누려는데, 안쪽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며 말했다.

"어떤 요괴가 이 깊은 밤에 우리 선량한 집안에 찾아온 것이냐?"

앞에 앉아 있던 노인이 급히 일어나 병풍 뒤로 마중 나가며 말했다.

"형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요괴가 아니라 저 멀리 동토 대당에서 불경을 구하러 온 나한들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생김새는 험악하나, 과연 모습은 흉해도 사람됨은 선한 이들입니다."

그제야 노인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네 사람에게 예를 갖추었다. 인사를 마친 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외쳤다.

"차를 내오너라! 공양 음식도 차려라!"

노인이 몇 번이나 소리를 지르자, 하인들이 벌벌 떨며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저팔계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르신, 왜 양쪽에서 쟁반을 들고 가는 겁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저들에게 공양을 받쳐 들고 와 어르신들(나리들)을 모시게 하려는 것이라네." 저팔계가 다시 물었다. "몇 명이나 시중을 들니까?" "여덟 명이라네." "그 여덟 명은 누구를 모시는 건데요?" "자네들 네 분을 모시는 것이지." 그러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그럼 얼굴 하얀 스님은 한 명이면 되고, 털 많고 입이 툭 튀어나온 스님은 두 명이면 되지만, 저 재수 없게 생긴 스님은 여덟 명이나 필요하겠군요. 나는 스무 명은 있어야 겨우 먹을 수 있겠소." 노인이 말했다. "그 말을 들어보니 자네는 먹성만 유독 큰 모양이구먼." 저팔계가 대꾸했다. "그럭저럭 봐줄 만한 정도지요." 노인이 외쳤다. "사람들, 사람들 좀 오게!" 그러자 크고 작은 사람들 서른에서 마흔 명가량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승려와 노인이 문답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안심했다. 사람들은 상 하나를 차려 삼장법사를 앉게 하고, 양옆으로 상 세 개를

놓아 나머지 세 제자를 앉혔다. 앞쪽에는 상 하나를 더 놓아 두 노인을 앉혔다. 상 위에는 채소와 과일 같은 소박한 음식부터 국수와 밥, 간식과 국물 요리까지 정갈하게 차려졌다. 삼장법사는 젓가락을 들고 먼저 《계재경》 한 권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한편, 저팔계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마음이 급하기도 해서 삼장법사가 경을 다 읽기를 기다리지 못했다. 그는 붉은 칠을 한 나무 그릇을 가져오더니, 하얀 쌀밥 한 그릇을 통째로 입안에 털어 넣고는 해치워 버렸다. 곁에 있던 하인이 말했다. "어르신, 어쩔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드십니까? 만두처럼 한입에 쏙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밥을 들이부으시면 옷에 다 묻지 않습니까?"

저팔계가 웃으며 대답했다. "안 묻었어, 다 먹었던 말이야." 하인이 다시 물었다. "아직 입도 안 대셨으면서 어떻게 다 드셨다는 겁니까?" 저팔계가 말했다. "이놈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분명히 먹었어. 못 믿겠으면 다시 먹는 걸 보여주지!" 그러자 하인들이 다시 그릇을 가져와 밥을 가득 담아 저팔계에게 건넸다. 저팔계는 그릇을 흔들며 다시 입안으로 밥을 털어 넣었다. 이를 본 하인들이 감탄하며 말했다. "세상에나! 어르신 목구멍은 벽돌을 갈아 만든 것처럼 매끄럽고 시원시원하시네요!"

삼장법사가 아직 경 한 권을 다 읽지도 못했는데, 저팔계의 손에는 벌써 대여섯 그릇이 지나갔다. 그제야 삼장법사도 젓가락을 들어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저팔계는 밥이든 국수든 과일이든 간식이든 가리지 않고 마구 휘저으며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밥 더

줘! 밥 더 줘!"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음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보게, 좀 적당히 먹게나. 산골짜기에서 배를 곯으며 반 공기라도 겨우 채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말이야." 저팔계가 대꾸했다. "잔소리는! 옛말에 '스님을 배불리 먹이지 않을 바엔 차라리 산 채로 묻는 게 낫다'고 했던 말일세." 손오공이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상을 치워라, 저놈 말은 신경 쓰지 마."

두 노인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어르신들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낮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렇게 배불리 드시는 장로님 같은 분이 오셔도 백 명은 거뜰히 대접할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밤이 되면 남은 음식을 정리할 때라, 밀가루 한 섬과 쌀 다섯 말, 그리고 몇 상의 채소 요리만 겨우 찌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웃들과 스님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려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뜻밖에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 바람에 스님들은 다 달아나 버리고, 이웃들에게도 차마 권하지 못한 채 이 음식을 모두 귀빈들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음식이 부족하다면 다시 찌 오겠습니다."

저팔계가 외쳤다. "다시 찌 오시오, 어서 다시 찌 오란 말이요!"

이야기가 끝나고 식사 상이 치워졌다. 삼장법사는 정중히 몸을 굽혀 공양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에야 물었다. "노보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노인이 대답했다. "성씨는 진 씨라요." 삼장법사가 합장하며 말했다. "그러면 빈승과 한 집안(종씨)이시군요." 노인이 다시 물었다. "나리께서도 성이 진 씨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속가 성씨도 진

씨입니다. 그런데 방금 올린 공양은 어떤 재를 올린 것이었습니까?” 그러자 저팔계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스승님, 그걸 왜 물으십니까? 모를 리가 있나요? 분명 청묘재나 평안재, 아니면 요장재 같은 것이겠지요.”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오, 그것들이 아니오.” 삼장법사가 다시 물었다. “그럼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망재(죽은 이를 미리 천도하는 재)를 올린 것이라오.” 그 말을 듣자 저팔계는 배를 잡고 구르며 웃어댔다. “어르신, 정말 눈썰미가 없으시군요! 저희는 거짓말로 사람을 홀리는 데는 도가 튼 대왕들인데, 어찌 그런 거짓말로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스님들이 재의 종류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 기고재나 예수전환재 같은 건 있어도, '예수망재'라는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댁에 죽은 사람도 없으면서 무슨 망자를 위한 재를 올린단 말입니까?”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 녀석이 이제야 좀 말귀를 알아듣는군.' 손오공이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말씀이 틀렸습니다. '망자를 위해 미리 재를 올린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 노인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그대들은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이라면서, 어찌 정상을 두고 우리 마을까지 흘러들어왔소?"

손오공이 대답했다. "정로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물줄기가 앞을 가로막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북과 징 소리가 들리기에, 잠시 머물 곳을 빌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물었다. "물가에 이르렀을 때, 무엇인가 보았소?"

손오공이 말했다. "그저 석비 하나만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통천 하'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팔백 리를 지나가나, 예부터 오가는 이 드물다'라는 열 글자가 쓰여 있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강가에서 좀 더 올라오면, 그 비석에서 불과 1리 정도 떨어진 곳에 영감대왕묘가 하나 있는데, 혹시 보지 못했소?"

손오공이 물었다. "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영감대왕이라는 분이 대체 누구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두 노인은 일제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이고, 나으리! 그 대왕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 지역에 감응하여 사당을 세우시고, 천 리 밖까지 위엄을 떨쳐 백성을 도우시네. 해마다 마을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매년 마을에 상서로운 구름을 드리우시네.'"

손오공이 말했다. "단비를 내리고 상서로운 구름을 드리운다니, 참으로 좋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리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노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말했다. "아이고, 나으리!

'은혜가 깊다 하나 원망도 깊고, 자애롭다 하나 사람을 해치시네. 어린 동남녀를 잡아먹어야 하니, 어찌 밝고 정직한 신이라 하겠소.'"

손오공이 깜짝 놀라 물었다.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그렇다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럼 이제 곧 귀택 차례가 온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이 말했다. "올해 딱 우리 집 차례라오. 이곳에는 백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차치국 원회현에 속한 진가장이라는 마을이라오. 이 대왕님께는 일 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때마다 어린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 그리고 돼지와 양 같은 제물을 바쳐야 하오. 제물을 잘 바치면 풍년과 순조로운 날씨를 보장해 주시지만, 만약 바치지 않으면 재앙을 내려 마을을 망하게 하신다오."

손오공이 물었다. "어르신께는 아드님이 있으십니까?"

노인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가련하도다, 가련해! 아드님이라니, 그런 말을 하니 부끄러워 죽겠소. 이쪽은 제 동생인 진청이라 하고, 저는 진징이라고 합니다. 올해 제 나이 예순셋이고 동생은 스물여덟인데, 자식 농사가 참으로 힘들었소. 저는 스물 살이 넘도록 아들이 없어서 친척들의 권유로 첩을 들였는데, 운 좋게 딸 하나를 얻었소. 올해 여덟 살인데 이름은 일칭금이라 부릅니다."

저팔계가 끼어들며 말했다. "이름이 아주 귀하군요. 그런데 왜 이름이 일칭금입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자식이 귀하다 보니, 평생 다리를 놓고 탑을 세우며 스님들에게 시주하는 등 덕을 쌓는 데 온 힘을 다했소. 장부를 적어보니 여기저기 돈을 쓰는 데 삼 냙, 오 냙씩 들었더랬지. 그러다 딸을

얻을 때가 되니 그동안 써온 황금이 서른 근이나 되더군. 서른 근은 한 저울(一秤)로 달 수 있으니, 그래서 일칭금이라 이름 지었소."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럼 다른 아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인이 말했다. "제 동생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역시 늦게 얻은 아이라 올해 일곱 살이 되었소. 이름은 진관보라고 합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이름이 왜 그렇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집안에서 관성제군(관우)께 정성을 다해 모셨는데, 관성제군 앞에서 간절히 빌어 얻은 아들이라 관보라고 이름 지었소. 우리 형제 둘이 합쳐 백이십이 세인데, 겨우 이 두 아이뿐이라네. 그런데 하필 제사 차례가 우리 집에 돌아오니, 제물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구려.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너무 깊어 차마 보낼 수가 없으니, 아이들이 죽기 전에 미리 제사를 지내며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것이라오. 그래서 아까 '망자를 위해 미리 재를 올린다'고 말한 것이라네."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옛사람들이 말한 '노란 매실은 떨어지지 않고 푸른 매실만 떨어지니, 하늘이 유독 자식 없을 이들을 괴롭히는구나'라는 탄식과 다를 바 없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다시 한번 여쭙볼게요. 어르신 덕의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두 노인이 대답했다. “제법 좀 됩니다. 논은 사오십 경(頃)이요, 밭은 육칠십 경쯤 되지요. 풀을 먹이는 목초지는 팔구십 군데나 됩니다. 물소와 황소는 이삼백 마리요, 나귀와 말은 이삼십(20~30) 마리 정도 됩니다. 돼지, 양, 닭, 거위 같은 가축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지요. 집 안에는 먹다 남은 오래된 곡식과 입지 못하는 옷가지도 쌓여 있습니다. 가산과 재산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 정도 재산이라면 아끼고 모으느라 고생하셨겠는데요?”

노인이 되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아꼈다는 말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서 어찌 친자식을 제물로 바치려 하십니까? 은자 쉰 냥만 들여도 어린 남자아이 하나를 살 수 있고, 백 냥이면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다 합쳐도 이백 냥을 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면 자식과 후손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으리, 나리께서 저희 사정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 대왕님은 영험하기가 그지없어서, 평소에도 저희 집을 자주 찾아오시거든요.”

손오공이 물었다. “그분이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던가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나 됩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향기로운 바람이 한 차례 불어오면 ‘아, 대왕님께서 오셨구나’ 하고 알 뿐이지요. 그러면

즉시 향을 가득 피우고 노소 할 것 없이 바람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그분은 우리 집의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고, 집안 어른 아이들이 태어난 해와 달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직 친자식만을 제물로 받으시니, 이백삼백 냥이 아니라 수천만 냥을 가져온다 해도 이토록 똑같이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아이를 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사정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우선 아드님을 안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진청은 급히 안으로 들어가 아들 관보를 안고 대청으로 나와 등불 앞에 내려놓았다. 어린아이는 앞날의 생사가 어떠한지도 모른 채, 양 소매에 과일을 가득 담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놀고 있었다. 손오공은 그 모습을 보고 묵묵히 주문을 외우더니, 몸을 한 번 흔들어 관보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러자 두 아이는 서로 손을 맞잡고 등불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본 노인은 당황하여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노인이 말했다. "어르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어찌 갑자기 제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셨습니까? 이름을 부르면 대답도 하고 같이 뛰어놀기까지 하니, 제 수명을 다 깎아 먹는 일입니다. 제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제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손오공이 얼굴을 한 번 쓸어내리자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그 앞에 엎드려 말했다. "어르신께 이토록 놀라운 재주가 있으셨군요."

손오공이 웃으며 물었다. "내 모습이 당신 아들과 닮았소?"

노인이 대답했다. "닮았습니다, 닮았고말고요! 얼굴이며 목소리며, 옷차림과 키까지 정말 똑같습니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아직 자세히 보지 않으셨구려. 저울을 가져와서 달아보시오. 아이와 몸무게가 똑같은지 말ियो."

노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말고요. 무게도 똑같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이 정도면 제물로 바치기에 충분하겠소?"

노인이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이 아이의 목숨을 대신할 테니, 당신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영감대왕에게 제물이 되어 주지요."

그러자 진청이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인께서 정말 자비롭게 대신 가주시겠다면, 제가 은자 천 냥을 드려 당승 스님이 서천으로 가는 여비에 보태게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걸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가려고요?"

노인이 대답했다. "이미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는데, 당신이 죽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되물었다.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인이 말했다. "그 대왕이 당신을 잡아먹을 테니까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놈이 감히 나를 잡아먹겠다고요?"

노인이 말했다. "먹지 않으면 오히려 비린내 난다고 싫어할 겁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하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나를 먹는다면 내 수명이 짧은 탓이고, 먹지 않는다면 내 복이 많은 것이겠지요. 어서 제물로 가겠습니다."

진청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하고, 은자 오백 냥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진청만은 머리를 조아리지도, 감사 인사를 하지도 않은 채 병풍 문에 기대어 서서 슬피 울기만 했다. 손오공은 그 사정을 알아채고 앞으로 다가가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어르신, 왜 인사를 안 하시고 허락도 안 하십니까? 혹시 따님을 차마 보내기 싫어서 그러십니까?"

그제야 진청이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차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대인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로 조카를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없

어 이 딸 하나뿐인데, 제가 죽고 나면 저 아이가 애절하게 통곡할 텐데
어찌 차마 보낼 수 있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어서 가서 쌀 다섯 말로 밥을 짓고, 맛있는 채소 요리도 좀 준비해
서 우리 입이 큰 스님께 대접하십시오. 그 스님이 어르신의 따님으로
변신할 것이니, 저와 제 형제가 함께 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음덕을 쌓아 어르신의 두 자녀를 모두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팔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
다! 제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저를 끌어들이시다니요!” 손오공이 대답
했다. “이 사람아, 예부터 ‘공짜 밥은 없다’고 했어. 우리가 이곳에 들
어와 성대한 대접을 받았는데, 배불리 먹었다고 투덜대기만 할 게 아니
라 사람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팔계가 말
했다. “형님, 변신하는 건 제가 잘 못 한다니까요.” 손오공이 되물었다.
“너도 서른여섯 가지 변신술을 부릴 줄 알면서 왜 못한다는 거야?” 그
때 삼장법사가 거들었다. “오능아, 네 사형의 말이 백번 옳다. 아주 적
절한 생각이야. 예부터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칠층탑을 세우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선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고, 또 음덕을 쌓는 일이기도 하니 말이다. 게다가 서늘한 밤에 별일도
없는데, 형제끼리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너라.”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스승님도 참, 제 실력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산이나 나
무, 돌덩이로 변하거나 늙은 코끼리, 물소, 혹은 덩치 큰 사내로 변하

는 건 자신 있지만, 어린 여자아이로 변하는 건 정말이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어르신, 저 사람 말을 믿지 마시고 어서 따님을 안고 나오십시오."

그러자 진장이 급히 안으로 들어가 딸 일칭금을 안고 대청으로 나왔다. 집안의 처첩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밖으로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그 딸아이의 모습은 이러했다. 머리에는 여덟 가지 보석이 박힌 구슬 장식의 화려한 머리띠를 쓰고 있었고, 몸에는 붉은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비단 저고리를 입은 뒤에 관복 같은 초록색 비단 겹옷을 걸치고 있었다. 허리에는 진홍색 꽃무늬 비단 치마를 두르고 발에는 연분홍색 비단 신발을 신었으며, 다리에는 금실로 수놓은 비단 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이는 손에 과일을 들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저팔계, 저 아이가 바로 그 계집아이구나. 어서 저 아이와 똑같이 변신해라. 그래야 우리가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형님, 저렇게 작고 예쁘장한 아이를 제가 어떻게 똑같이 변신합니까?"

손오공이 소리쳤다. "어서 하지 못해! 매 맞고 싶으냐?"

저팔계가 당황하며 말했다. "형님, 때리지 마세요! 금방 변신할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 어리석은 녀석은 주문을 외우며 머리를 몇 번이나 세차게 흔들더니, "변해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정말로 모습이 바뀌었는데, 얼굴은 영락없는 여자아이의 모습이었으나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와 도무지 여자아이 같지가 않았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다시 한번 변해봐."

저팔계가 대답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찌겠느냐?"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어떻게 계집아이 얼굴에 스님 몸뚱이를 하고 있단 말이냐? 이리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생겨서야 어찌하겠어? 네 몸에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어 보렴."

손오공이 저팔계에게 신선한 기운을 한 입 훑 불어넣어 주자, 과연 즉시 몸이 바뀌어 정말 여자아이와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두 어르신, 가족들과 아드님, 따님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 우리 형제가 게으름 피우다 들키지 않으려고 슬쩍 들어갈 테니, 그때는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먹여서 울거나 소리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여 대왕이 눈치채고 달아나면 큰일이니까요.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놀아보고 오겠습니다."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삼장법사를 잘 보호하라고 당부한 뒤 말했다. "내가 진관보로 변신할 테니, 저팔계 너는 일침금이 되어라."

두 사람이 변신을 마친 뒤 물었다. "어떻게 바쳐야 합니까? 뽕뽕 묶어서 가나요, 아니면 밧줄로 묶어서 가나요? 삶아서 가나요, 아니면 잘게 다져서 가나요?"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재주는 없단 말이에요."

노인이 대답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저 붉은 칠을 한 커다란 쟁반 두 개를 가져올 테니, 두 분께서는 그 쟁반 위에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젊은이 둘이 탁자 하나를 들고 그 위에 쟁반을 올려서 사당까지 메고 갈 것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좋아요, 좋아요. 어서 쟁반을 가져와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노인이 즉시 붉은 쟁반 두 개를 가져오자 손오공과 저팔계가 그 위에 올라앉았다. 젊은이 네 명이 탁자 두 개를 들어 올리더니,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대청마루로 가져다 놓았다.

손오공이 즐거운 듯 말했다. "팔계야, 이렇게 요리조리 구경하며 다니니 우리도 제물로 바쳐지는 스님들이 된 것 같구나."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만약 메고 갔다가 다시 메고 돌아온다면,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한다 해도 난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사당에 도착하자마자 잡아먹히는 거라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고요!"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나만 잘 지켜보고 있어라. 놈이 나를 먼저 잡아먹을 때 너는 얼른 도망치면 되니까."

저팔계가 다시 물었다. "그놈이 어떻게 잡아먹을지 알아요? 만약 남자아이를 먼저 잡아먹는다면 난 도망치기 쉽겠지만, 여자아이를 먼저 잡아먹으면 난 어찌란 말이에요?"

노인이 대답했다. "매년 제사를 지낼 때마다, 담력이 센 사람들이 사당 뒤나 제사상 밑에 숨어서 지켜보곤 합니다. 그러면 놈이 남자아이를 먼저 잡아먹고 나서 여자아이를 잡아먹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저팔계가 탄식하며 말했다. "아이고, 세상에나!"

형제가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꿩과리와 북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고 등불이 환하게 비쳤다. 온 마을 사람들이 앞문을 열고 외쳤다.

"동남동녀(童男童女) 제물을 메고 나오너라!"

노인은 울며불며 어찌지 못하고, 네 청년이 두 사람(동남동녀로 변한 손오공과 저팔계)을 메고 밖으로 나갔다.

결국 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8회 — 마귀가 찬 바람을 일으켜 눈 이 흩날리고, 스님은 부처님께 절하고자 층층이 쌓인 얼음 위를 걷다

魔弄寒風飄大雪 僧思拜佛履層冰

이야기는 이러하다. 진가장의 신도들이 돼지와 양, 제물을 챙겨 손오공, 저팔계와 함께 북적북적 떠들썩하게 영감묘 안으로 들어가 제사를 차려 놓았다. 그리고 제물로 바칠 어린 소년과 소녀를 상석에 모셨다. 손오공이 뒤를 돌아보니, 제상 위에는 향과 꽃, 초가 놓여 있었고 정면에 '영감대왕지신(靈感大王之神)'이라고 금색 글자로 쓰인 위패 하나만 있을 뿐, 다른 신상은 전혀 없었다. 신도들이 제물을 모두 차려놓자, 일제히 위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왕 할아버지, 올해 이 달 이 날 이 시각에 진가장의 제사 주관자 진정을 비롯한 모든 신도가 모였습니다. 저희의 나이는 제각각이나, 예년의 관례를 엄격히 따라 동남 진관보와 동녀 진일승금을 정성껏 올리며 돼지와 양, 제물을 빠짐없이 준비하였으니 부디 맛있게 드십시

오. 저희를 보살피시어 비바람이 순조롭고 오곡이 풍성하게 익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문을 다 읽은 이들은 종이로 만든 말(紙馬)을 태운 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저팔계는 사람들이 흠어지는 것을 보고 손오공에게 말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손오공이 되물었다. “네 집이 어디 있는데?” 저팔계가 대답했다. “진 씨네 집으로 가서 잠이나 잡시다.” 그러자 손오공이 핀잔을 주었다. “이 어리석은 놈이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미 제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법이다.”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당신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왜 나만 바보라고 합니까? 그냥 적당히 속여서 넘기면 될 일을, 왜 진짜로 제사를 지내준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엄하게 말했다. “사람이 일을 하려면 끝까지 확실히 해야 하는 법이다. 차라리 저 대왕이 나타나서 제물을 먹게 두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설픈게 대처했다가 오히려 재앙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이야말로 좋지 못한 일이 아니겠느냐?”

한창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휘이휘이 하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저팔계가 겁에 질려 말했다. “큰일 났네! 바람 소리가 저리 나는 걸 보니 그놈이 나타난 모양이야.” 손오공이 말했다. “말하지 말고 기다려 봐, 내가 상대할 테니.”

잠시 후, 사당 문밖에서 요괴 하나가 나타났다.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다음과 같았다.

금빛 갑옷과 투구는 눈부시게 빛나고, 허리에는 보배로운 띠를 둘러 붉은 구름을 감싼 듯하구나. 눈은 저물녘에 뜨는 밝은 별처럼 빛나고, 치아는 톱날처럼 가지런히 늘어서 있네. 발치에는 안개와 노을이 너울 너울 흘날리고, 몸 주변에는 뿌연 안개가 따스하게 감도는데, 지나갈 때마다 찬 바람이 뽀뽀 불어오고, 서 있는 곳마다 살벌한 기운이 층층이 쌓여 있구나. 마치 주렴을 걷어 올리고 어가를 모시던 장수 같기도 하고, 마치 사찰의 대문을 지키는 문신(門神) 같기도 하도다.

요괴가 사당 문을 가로막고 물었다. "올해 제물은 어느 집에서 바치는 것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물으신 대로 답해 드리지요. 이 마을의 주인은 진징과 진청입니다."

요괴는 그 대답을 듣고 속으로 의아해했다. '이 아이는 겁도 없이 말솜씨가 아주 영리하구나. 평소 제물을 바치러 올 때는 물어도 대답 한마디 없더니, 한 번 더 물으니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거나, 손을 뻗어 잡으려 하면 이미 죽어 있는 아이들이었거늘, 어찌하여 오늘 이 아이는 이토록 당당하게 대꾸를 한단 말인가?'

요괴는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동남녀의 이름은 무엇 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동남은 진관보요, 동녀는 진일승금입니다."

요괴가 말했다. "제사를 지내는 건 작년과 다름없는 규칙이다. 이제 나에게 바쳐졌으니 너희를 먹어야겠다." 손오공이 말했다. "감히 거역할 수 없으니, 마음껏 드십시오."

요괴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손을 대지 못했다. 요괴는 문을 가로막고 호통을 쳤다. "말대꾸하지 마라! 나는 평소에 동남을 먼저 먹었지만, 올해는 동녀를 먼저 먹어야겠다."

저팔계가 당황하며 말했다. "대왕님, 그냥 예전 방식대로 하세요. 괜히 규칙을 바꿔서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요."

요괴는 한마디 말도 없이 손을 뻗어 저팔계를 낚아채려 했다. 저팔계는 폴쩍 아래로 뛰어내려 본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고는 쇠갈퀴를 뽑아 들고 손이 가는 대로 한 번 내리찍었다. 요괴는 급히 손을 거두며 앞으로 달아났고, '챙!'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팔계가 말했다. "갑옷을 깨뜨렸어!"

손오공도 본래 모습을 드러내며 살펴보니, 알고 보니 얼음 쟁반만 한 큰 물고기 비늘 두 개였다.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따라잡자!" 두 사람은 허공으로 뛰어올랐다.

요괴는 잔치(제사)를 받으러 오느라 무기를 챙겨오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맨손으로 구름 위에서 외쳤다. "네놈들은 대체 어느 나라 스님이냐? 감히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괴롭히다니! 내 제사를 망치고 명성을 더럽히다니!"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고약한 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우리는 동토 대당의 성스러운 스승인 당삼장께서 황제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제자들이다. 어젯밤 진가장에 머물다가, 영감대왕이라 자칭하며 매년 동남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요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생명을 구하고자 너 같은 놈을 잡으러 온 것이다. 어서 사실대로 불어라! 일 년에 동남녀를 두 명씩 먹었다면, 여기서 대왕 노릇을 한 지 몇 년이나 되었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얼마나 잡아먹었느냐?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내놓는다면 죽을 죄는 면해주마."

요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망치려 했다. 저팔계가 다시 한번 쇠갈퀴를 휘둘렀으나 맞이지 못했고, 요괴는 곧장 거친 광풍으로 변하더니 통천하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손오공이 말했다. "쫓아갈 것 없습니다. 저 요괴는 분명 강에 사는 놈인 모양입니다. 내일 방법을 찾아 저놈을 잡고 스승님을 모셔 강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저팔계는 그 말에 따라 곧장 사당으로 돌아가, 제물로 올렸던 돼지와 양, 술을 엮은 상까지 통째로 들어다 진가장으로 옮겨 놓았다. 이때 당삼장과 사오정, 그리고 진씨 형제들이 대청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돼지와 양 같은 제물들을 마당에 툭 던져 놓는 것을 보았다.

당삼장이 마중 나가 물었다. "오공아, 제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손오공은 요괴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갔으나, 요괴가 강 속으로 숨어버린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두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방을 청소하고 잠자리를 마련하여 손오공 일행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대접하였다.

한편, 요괴는 목숨을 건져 돌아와 수중 궁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었다. 물속의 크고 작은 수하들이 다가와 물었다.

“대왕님, 매년 제물을 받을 때면 기쁘게 돌아오시더니, 어찌하여 오늘은 이토록 근심에 잠겨 계십니까?”

요괴가 대답했다.

“평소에는 제사를 마치고 남은 음식이라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곤 했는데, 오늘은 나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구나. 운이 나쁘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와 맞닥뜨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수하들이 다시 물었다.

“대왕님, 대체 어떤 놈입니까?”

요괴가 말했다.

“동토 대당에서 온 성스러운 승려의 제자였다.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남녀로 변신하여 사당에 앉아 있더구나. 그놈이 내 본 모습을 꿰뚫어 보는 바람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 예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삼장은 열 번의 생을 거쳐 수행한 덕망 높은 이라, 그 살점 한 조각만 먹어도 수명이 늘어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들 하지 않느냐. 그런데 뜻밖에도 그놈 수하에 저런 놈이 있을 줄이야. 이번 일로 내 명성도 깎이고 제사 지내는 일도 망쳐버렸으니, 마음 같아서는 당삼장을 잡아 오고 싶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때 수중 생물들 사이에서 얼룩옷을 입은 쏘가리 할멈(궂파)이 솟아올라 요괴에게 연신 절을 올리며 웃으며 말했다. “대왕께서 당삼장을 잡으려 하신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다만 그를 잡고 나면 제게 술과 고기를 좀 상으로 내려주시겠습니까?” 요괴가 대답했다. “네게 계책이 있어 힘을 합쳐 당삼장을 잡기만 하면, 너와 남매의 연을 맺어 한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먹으마.” 쏘가리 할멈이 절하며 사례하고 말했다. “대왕께서 바람과 비를 부르는 신통력과 바다와 강을 뒤흔드는 위력을 지니셨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눈을 내리게 하는 법도 아시는지요?” 요괴가 말했다. “할 수 있다.” 이어 할멈이 다시 물었다. “눈을 내릴 수 있다면, 혹시 출게 하여 강물을 얼릴 수도 있느냐?” “그것 또한 할 수 있다.” 쏘가리 할멈이 손뼉을 치며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아주 쉽고도 쉬운 일이지요.” 요괴가 말했다. “그리 쉽다면 그 방책을 내게 말해보아라.” 쏘가리 할멈이 설명했다. “오늘 밤 삼경쯤 되면, 대왕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서둘러 법술을 부려 찬 바람을 일으키고 큰 눈을 내려 통천하를 모조리 얼려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변화술에 능한 저희를 시켜 몇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한 뒤, 길목에서 붓짐을 메고 우산을 들거나 짐을 지고 수레를 밀며 얼음 위를 끊임 없이 오가게 하십시오. 당삼장은 경전을 구하려는 마음이 워낙 급하니,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 분명 얼음을 밟고 건너려 할 것입니다. 그때 대왕께서 강 한가운데에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그의 발소리가 울리는 곳에서 찬 얼음을 깨뜨리시면, 당삼장은 물론이고 그 제자들까지 한꺼번에 물속에 빠뜨려 단숨에 잡을 수 있습니다.” 요괴는 그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아주 묘하다, 정말 묘하구나!” 그러고는 즉시 수중 궁궐에서 나와 허공을 밟으며 바람을 일으키고 눈을 내려, 추위로 얼려 통천하를 뽕뽕 얼음으로 만들었다.

한편, 당삼장 일행 네 사람은 진가장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이 되자 스승과 제자들은 이불은 차갑고 베개는 서늘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팔계는 기침을 하고 몸을 떨며 잠을 못 자다가 소리쳤다. “사형, 너무 추워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참으로 꼴사납구나. 출가한 수행자는 추위와 더위를 타지 않는 법인데 어찌 이리 추워하느냐?” 그러자 당삼장이 말했다. “얘들아, 정말로 춥구나. 보아라,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

시로 이르되, “두꺼운 이불에도 온기가 없고, 소매에 넣은 손은 얼음 덩어리 같구나. 지금은 낙엽에 서리가 내리고 꽃봉오리가 시들며, 푸른 소나무에는 얼음 방울이 매달렸네. 땅은 추위에 갈라지고 연못은 얼어붙어 물이 되었구나. 어부의 배에서는 노인을 볼 수 없고, 산사에서 스님을 만나기 어렵네. 나무꾼은 떨감이 적어 근심하고, 귀한 집 자제는 쏙이 늘어 기뻐하네. 나그네의 수염은 철처럼 딱딱해지고, 시객의 붓끝은 菱(마름)처럼 굳었구나. 겹옷은 여전히 얇다 하고, 모피 옷은 여전히 가볍다 하네. 방석은 딱딱해져 노승을 괴롭히고, 종이 장막은 나그네의 혼을 놀라게 하네. 비단 이불과 두툼한 요를 덮었어도, 온 몸은 방울 떨어듯 떨리는구나.”

스승과 제자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어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니, 아! 밖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지 않은가. 알고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어쩐지 너희가 춥다더라니, 눈이 이렇게나 많이 내리는구나.” 네 사람이 눈을 비비며 바라보니, 참으로 장관인 눈이었다.

시로 이르되, “붉은 구름은 뽁뽁이 깔리고, 음산한 안개는 짙게 내려 앉았네. 붉은 구름은 뽁뽁하여 북풍이 허공에서 매섭게 울부짖고, 음산한 안개는 짙게 깔려 큰 눈이 펑펑 땅을 덮는구나. 참으로 육출화(六出花, 눈송이)가 조각조각 옥 같은 꽃잎처럼 날리고, 천 개의 숲속 나무들이 마디마디 옥을 두른 듯하네. 순식간에 가루가 쌓이더니 눈 깜짝 할 새 소금더미가 되었구나. 흰 앵무새는 흰 빛을 잃고, 흰 학의 깃털도 눈과 구분이 안 되네. 강물은 수만 리 물결이 더해진 듯 넘실대고, 동남쪽 매화나무들은 눈의 무게에 눌러 있구나. 마치 삼백만 옥룡 군사가 패퇴하며 흩어지는 듯하고, 정말로 부서진 비늘과 갑옷이 하늘을 뒤덮은 듯하네. 옛 성현들의 고사는 간데없고, 오직 은으로 쌓은 듯한 마을 집들과 옥 구슬처럼 빛나는 만리 강산뿐이네. 참으로 아름다운 눈이로다, 버들강아지는 다리 위를 덮고 배꽃은 집들을 덮었네. 다리 위에는 버들강아지가 가득해 어부가 도롱이를 걸어두고, 집 위에는 배꽃이 가득해 노인이 화로에 밤을 구워 먹네. 나그네는 술을 사기 어렵고, 하인은 매화를 찾느라 애를 쓰네. 나풀나풀 나비처럼 날리고, 펄펄 눈송이는 거위 깃털처럼 흩날리네. 바람을 따라 둥글게 굴러다니며, 겹겹이 쌓여 길마저 잃게 만드는데. 매서운 추위는 작은 천막을 뚫고, 서늘한 기운은 깊은 휘장을 파고드네. 풍년의 상서로움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인간 세상의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할 만하구나.”

그 눈은 펑펑 흩날리며 마치 옥을 깎아 만든 꽃잎과 솜이 날리는 듯했다.

스승과 제자들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진가장의 노인이 하인 두 명을 시켜 길을 쓸게 하고, 또 다른 하인 두 명을 보내 뜨

거운 물을 가져다 얼굴을 씻게 했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와 우유로 만든 떡이 나오고, 화로까지 들여왔다. 모두 사랑방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뒤, 당삼장이 물었다.

“어르신, 이곳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나뉘는지요?”

진징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곳이 비록 외진 곳이라 풍습이나 사람들의 모습은 나라의 중심지와 다르지만, 곡식이나 가축 같은 만물은 하늘과 해 아래 똑같으니 어찌 사계절이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당삼장이 다시 물었다.

“사계절이 나뉜다면, 어찌하여 지금처럼 눈이 내리고 이토록 추운 것입니까?”

진징이 말했다.

“지금에 비록 7월이라 하나, 어제 이미 백로(白露)가 지났으니 곧 8월의 계절에 접어든 셈입니다. 이곳은 일 년 중 8월 무렵이면 늘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옵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제가 온 동토와는 참으로 다르군요. 저희 쪽은 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눈이 내리는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한참 뒤에 다시 하인이 들어와 상을 차리고 죽을 내왔다. 죽을 다 먹고 나니 눈은 아침보다 더 거세게 몰아쳤고, 어느덧 평지에는 눈이 두 자(약 60cm) 가까이 쌓였다. 당삼장은 마음이 초조해져 눈물을 흘렸다.

진정이 말했다. “스님, 걱정 마십시오. 눈이 깊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 집에 곡식이 넉넉히 있으니, 스님 일행이 반평생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러자 당삼장이 말했다. “보시자님께서는 빈승의 고충을 모르시는군요. 제가 예전에 성은을 입어 어명을 받았을 때는, 임금님께서 직접 큰 수레를 보내 배웅해 주시고 당왕께서도 직접 잔을 받쳐 들며 작별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산천이 얼마나 험난한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딱 3년이면 경전을 가져와 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답했지요. 하지만 헤어진 뒤로 벌써 7~8년이 흘렀는데 아직 부처님 얼굴을 뵙지 못했으니, 혹여 정해진 기한을 어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게다가 요괴들이 워낙 흉악하다니 걱정이 앞서는군요. 오늘 이렇게 운 좋게 진가장에 머물게 되었고, 어젯밤 제 제자들이 작은 정성을 보인 것도 사실 배 한 척을 구해 강을 건너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하늘에서 큰 눈이 내려 길이 막혔으니, 언제쯤 일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이 다시 말했다. “스님, 안심하십시오. 지나간 세월에 비하면 고작 며칠인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우선 날이 개고 얼음이 녹기만을

기다리십시오.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반드시 스님을 강 건너로 모셔다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다시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대청에서 식사를 마친 뒤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 곧이어 점심 식사가 차례로 들어왔다. 당삼장은 상에 차려진 음식이 너무 풍성한 것을 보고 몇 번이고 송구해하며 말했다.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감사하오나, 그저 평범한 음식으로 모셔야 마땅한 것을 이렇게 귀한 음식을 내어주시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러자 진징이 대답했다. “어르신, 저희 마을을 대신해 제사를 지내주어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어 대접한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눈이 그친 뒤에야 사람들의 발길이 다니기 시작했다. 진징은 당삼장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는 정원을 다시 정돈하고 커다란 화로에 불을 지핀 뒤, 눈 덮인 별채로 모셔가 심심함을 달래며 쉬게 했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저 영감님은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 꽃 구경은 봄 이삼월에 해야지, 이렇게 눈이 펄펄 내리고 추운 날씨에 대체 무엇을 구경하겠다는 거야?”

그러자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네가 세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눈 덮인 풍경은 본래 그윽하고 고요한 법이야. 경치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지만, 스승님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드리기에도 좋은 말이다.”

진징도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말고요, 맞습니다.” 그러고는 손님들을 정원으로 정중히 모셨다.

그 풍경을 보니 이러했다. 시로 이르되, “경치는 삼추(가을철)이건만
 풍광은 선달처럼 차갑구나. 푸른 소나무는 옥 같은 꽃눈을 맺었고, 시
 든 버드나무는 은빛 꽃을 매달았네. 계단 아래 옥색 이끼에는 눈가루가
 쌓였고, 창가 대나무는 옥 같은 새순을 내밀었구나. 기암괴석은 옥순
 처럼 뽕족하게 솟아 있고, 물고기 기르는 연못은 맑은 물이 얼어 얼음
 쟁반 같네. 강가에는 연꽃이 아리따운 자태를 뽐내고, 절벽 옆에는 무
 궁화 가지가 부드럽게 늘어졌구나. 가을 해당화도 그 빛깔이 뛰어나
 고, 납매 나무도 겨우 새 가지를 틔웠네. 모란정, 석류정, 계화정은 모
 두 거위 깃털 같은 눈이 쌓여 하얗고, 마음껏 거닐고 손님을 맞이하며
 흥을 푸는 곳마다 나비 날개 같은 눈송이가 가득하구나. 두 올타리에는
 노란 국화가 금빛 비단처럼 피었고, 붉은 단풍 몇 그루 사이로 흰 눈이
 섞여 있네. 수많은 한적한 뜰은 차가워 사람 발길 닿기 어려우니, 눈 덮
 인 별채는 얼음처럼 차갑구나.”

그 별채 안에는 짐승 얼굴에 코끼리 발 모양을 한 구리 화로가 놓여
 있었는데, 뜨거운 숯불이 막 피어오르고 있었다. 위아래로는 호랑이
 가죽을 덮은 칠기 의자가 놓여 있었고, 창문에는 따뜻한 종이를 발라
 놓았다.

사방 벽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옛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내용
 은 이러했다. 시로 이르되, “칠현이 관문을 지나고, 찬 강가에서 홀로
 낚시하니, 첩첩이 겹친 봉우리들이 눈 덮인 경치를 이루었네. 소무가
 모전을 씹고, 매화를 꺾어 사신을 만나니, 옥 같은 숲과 나무가 차가운
 정취를 그려내네. 이루 다 말할 수 없구나. 물가 가까운 정자는 물고기
 사기가 쉽고, 눈 덮인 산길은 술 사기가 어렵다네. 참으로 무릎을 맞대

고 머물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있으랴, 굳이 신선이 사는 봉래·방장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한참 동안 구경을 즐기다가 눈 구덩이 속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고는 이웃 노인들에게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를 들려 주며 향긋한 차를 마셨다. 진징이 물었다. "나으리들, 술도 좀 하시겠습니까?" 당삼장이 대답했다. "빈승은 마시지 않으나, 제자들이 술을 몇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진징은 기뻐하며 즉시 명령했다. "어서 소박한 과일과 음식을 차리고, 술을 따뜻하게 데워 나으리들의 추위를 녹여 드리도록 해라." 그러자 하인이 상을 가져와 화로를 받치고 음식을 차렸다. 이웃 노인 두 명과 제자들이 술을 몇 잔씩 나누어 마신 뒤, 불을 끄고 자리를 정리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다시 대청에서 저녁 식사를 차렸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날씨가 정말 춥네, 통천하가 다 얼어붙었어!"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말을 들은 당삼장이 물었다. "오공아, 강이 얼어붙었다니 우리는 이제 어찌하면 좋으냐?" 그러자 진징이 말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걸 보니, 아마 강가 근처의 얇은 곳부터 얼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행인이 다시 말했다. "팔백 리 강물이 거울처럼 매끄럽게 꿈꿈 얼어붙어서, 길목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다니까요." 당삼장은 사람들이 강 위를 걷는다는 말을 듣고 얼른 가서 보고 싶어 했다. 진징이 만류하며 말했다. "나으리,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내일 가서 보시지요." 그렇게 이웃 노인과의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행랑방에 머물렀다.

다음 날 새벽이 밝자 저팔계가 일어나 말했다. “형님, 어젯밤에 유난히 추웠으니 아마 강물이 꽁꽁 얼었을 겁니다.”

당삼장은 문을 열고 나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말했다. “불법을 수호하시는 여러 신령님이시여, 제자는 오로지 서천으로 향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고 험한 산천을 고생하며 넘었으나, 단 한번도 원망하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이르니 하늘의 보살핌을 받아 강물이 얼어붙었나 봅니다. 제자의 빈약한 마음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리오니, 부디 경전을 구한 뒤 당나라 황제께 이 사실을 보고하여 정성을 다해 보답하게 하소서.”

절을 마친 당삼장은 사오정에게 말을 등에 지게 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자고 일렀다.

진징이 다시 말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며칠 지나 눈이 녹고 얼음이 풀리면, 이 늙은이가 배를 마련해 정성껏 모셔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오정이 말했다. “서두르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계속 머무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니, 제가 말을 짊어질 테니 스승님께서서는 어서 가보시지요.”

진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구려. 애들아, 어서 가서 말 여섯 마리를 메고 오너라. 단, 당삼장 어른의 말은 건드리지 말고 가져오너라.”

여섯 명의 아이들이 뒤를 따랐다. 일행이 강가로 향해 가보니 과연 이러하였다.

눈은 산처럼 높이 쌓여 있고, 구름이 걷히니 새벽녘의 하늘이 맑게 개었다. 찬 기운이 몰아쳐 변방의 봉우리들은 뼈만 남은 듯 앙상하고, 강과 호수는 얼음이 얼어 평지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북풍은 매섭게 몰아치고 얼음은 미끄러워 날카로웠다. 연못의 물고기들은 수초 사이에 몸을 밀착시키고, 들판의 새들은 마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변방의 나그네들은 추위에 손가락이 얼어붙고, 강가에서 노래하는 이들은 추위에 떨며 이를 맞부딪쳤다. 얼음은 마치 뱀의 배를 가른 듯, 혹은 새의 다리를 꺾은 듯 천 길 높이의 빙산이 되어 있었다. 수많은 골짜기에는 차가운 은빛이 떠다니고, 흐르는 강물은 차가운 옥빛으로 잠겨 있었다. 동쪽 땅에서는 겨울잠을 자던 누에가 깨어난다지만, 북쪽 땅은 과연 쥐가 굴을 팔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다. 왕상이 누워 추위를 이겨내고 광무제가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있듯, 하룻밤 사이에 시냇가 다리가 바닥까지 굳어버렸다. 굽이치는 늪에는 얼음이 겹겹이 얼었고, 깊은 연못은 층층이 얼어붙었다. 통천하의 넓은 물결은 파도조차 일지 않았으며, 하얗고 깨끗한 얼음이 끝없이 펼쳐져 마치 육지 길과 같았다.

당삼장과 일행이 강가에 도착해 말을 멈추고 살펴보니, 정말로 길목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당삼장이 물었다. “보살님, 저 사람들은 얼음 위를 걸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진정이 대답했다. “강 건너편은 서량녀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장사를 하러 가는 이들이지요. 이곳에서 백 푼이면 살 물건이 저곳에 가면 만 푼의 가치

가 있고, 저쪽의 백 폰짜리 물건이 이곳에 오면 만 폰의 가치가 되니, 이익이 크고 비용이 적으니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 배에 대여섯 명, 많게는 십여 명씩 타고 강을 건너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이 꽁꽁 얼어붙었으니, 목숨을 걸고 걸어서 건너는 것이지요.” 당삼장이 말했다. “세상일 중에 명리와 이익이 가장 무거운 법이군요. 저들처럼 이익을 쫓는 자들은 죽음을 잊고 삶을 돌보지 않는데, 제자들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충성을 다하려 하니, 그것 또한 명예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고는 손오공에게 일렀다. “오공아, 어서 저 보살의 집에 가서 짐을 챙기고 말에게 먹이를 주어라. 이 얼음판이 있을 때 서둘러 서 천으로 향해야겠다.” 손오공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사오정이 말했다. "스승님, 예부터 '천 일을 먹으려면 천 되의 쌀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진 씨네 집에 신세를 지고 있으니, 며칠 더 머물며 날이 풀려 얼음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배를 구해 건너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까 걱정됩니다."

그러자 당삼장이 말했다. "오정아, 어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느냐? 만약 지금이 정월이나 이월이라면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니 얼음이 녹기를 기다릴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팔월이라 날이 갈수록 추워지는데, 어찌 얼음이 녹기만을 바라느냐? 그러다간 반년의 여정을 통째로 허비하게 될 것이다."

저팔계가 말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이 저팔계가 직접 얼마나 두꺼운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손오공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그저께 물을 시험할 때는 돌을 던져보면 그만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었는데 어떻게 시험하겠다는 말이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형님은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이 쇠갈퀴로 한번 찔러볼게요. 만약 쑥 들어가서 깨져버리면 얼음이 얇은 것이니 감히 건너선 안 될 것이고, 만약 찔러도 꿈쩍도 안 하면 얼음이 두꺼운 것이니 당연히 건너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삼장이 거들었다. “옳다, 네 말이 아주 일리가 있구나.”

그러자 저팔계는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성큼성큼 강가로 걸어가더니, 두 손으로 쇠갈퀴를 높이 치켜들고 온 힘을 다해 내리찍었다. 그러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아홉 군데에 하얀 자국이 생겼고, 저팔계는 손이 얼얼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저팔계는 웃으며 말했다. “건너도 되겠어요, 건너도 되겠어! 바닥까지 뚫뚫 얼어붙었는걸요.”

당삼장이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일행과 함께 진가장으로 돌아가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두 노인은 간곡히 붙잡았으나 도저히 만류할 수가 없어서, 결국 마른 음식과 볶은 곡식, 구운 떡과 만두 등을 챙겨 정성스레 배웅했다. 진가장 식구들은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린 뒤, 부스러기 금은을 한 쟁반에 담아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르신께서 저희 자식을 살려주신 은혜를 입었기에, 길에서 드실 한 끼 식사의 정성이나마 변변찮게 표하고자 합니다."

당삼장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으며 받지 않았다.

"빈승은 출가한 몸인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길 위에서 함부로 꺼내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공양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본분입니다. 마른 음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노인이 거듭 간곡히 청하자, 손오공이 손가락 끝으로 작은 덩이 하나를 떼어내니 약 너댓 돈 무게쯤 되었다. 그것을 당삼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스승님, 이것은 그저 시주에 보태는 돈 정도로 받아 두십시오. 두 어르신의 성의를 헛되이 저버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일행은 곧장 강가 얼음 위로 향했다. 그런데 말발굽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당삼장이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사오정이 말했다. "스승님, 길이 험합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잠시만요, 진 영감님께 뱃짚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뱃짚은 어디에 쓰려고?" 저팔계가 대답했다. "그걸 왜 물으십니까? 말발굽에 뱃짚을 감아야 미끄러지지 않아서 스승님을 떨어뜨리는 일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가에 있던 진징이 이 말을 듣고는 급히 사람을 시켜 뱃짚 한 묶음을 가져오게 한 뒤, 당삼장에게 얼음 위로 내려 말에서 내리라고 청했다. 저팔계는 뱃짚으로 말발굽을 감싸고 나서 얼음 위를 밟으며 나아갔다.

진징 노인이 사는 마을을 떠나 강가에서 서너 리쯤 떨어진 곳까지 왔을 때, 저팔계가 구환석장(아홉 개의 고리가 달린 주석 지팡이)을 당삼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스승님, 이 지팡이를 말 위에 가로로 놓아 지탱하십시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이 또 꾀를

부리는구나. 지팡이는 원래 네가 메고 오던 것인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스승님더러 들라고 하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당신은 얼음 위를 걸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군요. 얼음이 얼면 반드시 얼음이 깨지기 쉬운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 틈에 발이 빠져버리면, 가로로 받쳐둘 물건이 없을 때 그대로 물속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커다란 솔뚜껑이 덮인 것처럼 되어 어떻게 뚫고 올라오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지팡이를 가로로 걸쳐 놓아야 합니다.” 손오공은 속으로 ‘이 녀석이 얼음 위를 걸어본 경험이 꽤 많은 모양이군’ 하고 생각했다. 결국 일행은 저팔계의 말대로 했다. 당삼장은 석장을 말 위에 가로로 놓았고, 손오공은 여의봉을, 사오정은 향요보장(요괴를 물리치는 보물 지팡이)을 가로로 받쳐 들었다. 저팔계는 짐을 어깨에 메고 허리에 쇠갈퀴를 찼다. 스승과 제자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들은 저녁때까지 계속 걸어 마른 양식을 조금 먹었다. 하지만 감히 오래 머물지 못하고, 별빛과 달빛이 비치는 번쩍이고 하얀 얼음판 위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 과연 말의 발굽이 멈추지 않을 정도였다. 스승과 제자들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새도록 걸었다. 날이 밝자 다시 마른 양식을 조금 먹고는 서쪽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창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얼음 밑에서 '파닥파닥' 하고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하마터면 백마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당삼장이 깜짝 놀라 물었다. "제자들아! 어찌 이리 요란한 소리가 나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이 강이 워낙 단단하게 얼어서 땅 울리는 소리가 나는 모양입니다. 어찌면 강바닥까지 통째로 꿈뚱 얼어붙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당삼장은 그 말을 듣고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여, 서둘러 말을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그 요괴는 수중 궁궐로 돌아간 뒤 수하 정령들을 거느리고 얼음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자, 요괴는 밑에서 신통력을 부려 찌억 하고 얼음을 깨뜨려 버렸다. 깜짝 놀란 손오공은 황급히 공중으로 뛰어올랐으나, 어느새 백마는 물속으로 떨어지고 세 사람도 모두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요괴는 당삼장을 붙잡아 수많은 정령을 거느리고 수중 궁궐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쏘가리 누이는 어디 있느냐?” 늙은 쏘가리 할머니 문앞에서 마중 나와 예를 갖추며 말했다. “대왕님, 황송합니다, 황송합니다.” 요괴가 말했다. “누이,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한 번 내뱉은 말은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로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원래 그대의 계책을 따르기로 하고, 당삼장을 잡아오면 그대와 남매의 연을 맺어주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오늘 드디어 그대의 묘책으로 당삼장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앞서 한 말을 저버리려는 것인가?” 요괴가 다시 명령했다. “여봐라, 모두 상을 가져오고 칼을 날카롭게 갈아라! 저 스님의 배를 갈라 심장을 파내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라! 한편으로는 악기를 울려 흥을 돋워라! 누이와 함께 저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수명을 늘리고 장생을 누리자꾸나!” 그러자 쏘가리 할머니 말했다. “대왕님, 당장 드시지는 마십시오. 혹시라도 저 스님의 제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울까 두렵사옵니다. 이틀 정도만 참고 기다려 저놈들이 찾아오지 않을 때, 그때 배를 갈라 대왕님을 상석에 모시고 모든 권속을 빙 둘러 세운 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대왕님께 올린다면, 아주 여유롭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괴는 그 말대로 하여, 당삼장을 궁궐 뒤편에 숨긴 뒤 여섯 자 길이의 커다란 돌함을 가운데에 덮어 두었다.

한편, 저팔계와 사오정은 물속에서 짐을 건져 올려 백마의 등에 실어 놓았다. 그리고는 물살이 소용돌이치며 파도가 일렁이는 강물을 헤치고 밖으로 나왔다. 공중에 떠 있던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스승님은 어디 계시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스승님 성이 진 씨라고 하셨는데, 이름이 진도저(陳到底)가 되셨나 봐요. 지금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으니, 일단 육지로 올라가서 다시 방도를 찾아봅시다."

본래 저팔계는 천봉원수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몸으로, 그 시절 천하(天河, 은하수)의 팔만 수병을 다스리던 이였고, 사오정은 유사하에서 태어난 이였으며, 백마 또한 서해 용왕의 자손이었으니 물속 사정에 밝을 수밖에 없었다. 손오공이 공중에서 길을 안내하자, 순식간에 동쪽 기슭으로 돌아가 말의 몸을 닦아주고 젖은 옷가지들을 말렸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일행과 함께 진가장으로 향했다.

마을의 두 노인에게 이미 누군가 소식을 전했다.

"경전을 구하러 가시던 네 분 어른 중 이제 세 분만 돌아오셨습시다."

두 노인 형제가 서둘러 문밖으로 마중을 나가니, 과연 일행의 옷이 여전히 젖어 있었다. 노인들이 말했다.

"어르신들, 저희가 그렇게 간곡히 머물러 달라고 붙잡았는데도 가지 않으시더니, 결국 이런 일을 겪고서야 그치는군요. 그런데 삼장 스님은 어찌하여 보이지 않습니까?"

저팔계가 대답했다.

"이제 삼장이라 부르지 못하고, 진도저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야 할 판입니다."

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가엽도다, 가엽기도 해! 눈이 녹고 배를 준비해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다가 결국 목숨을 잃으셨으니!"

손오공이 말했다.

"어르신, 지나간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스승님은 죽지 않고 장수하실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 저 영감대왕이라는 요괴가 술수를 부려 스승님을 잡아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저희를 위해 옷을 빨아 말리고 통관문서를 말리며 백마 먹일 풀과 여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 형제가 그놈을 찾아내어 스승님을 구해내고, 아예 그놈을 뿌리째 뽑아버려 어르신 마을 사람들의 후환을 없애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진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올라, 즉시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하도록 준비시켰다.

세 형제는 배불리 한 끼를 먹고 나서, 말과 짐을 진가네에 맡겨 지키게 했다. 그러고는 각자 무기를 챙겨 들고 곧장 강가로 달려가 스승을 찾고 요괴를 잡으러 나섰다.

시로 이르되, "얼음층을 잘못 밟아 본성을 해치니, 금단(대단)이 새어 나가 어찌 온전하리오?"

결국 어떻게 해야 당삼장을 구할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9회 — 삼장이 재앙을 만나 물속 저택에 가라앉고, 관음이 난을 구하기 위해 어망을 나타내다

三藏有災沉水宅 觀音救難現魚籃

한편, 손오공이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진 노인을 작별하고 강가에 이르러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 둘이 의논해서 누가 먼저 물에 들어갈지 정해라."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우리 둘의 수단이 형님만 하겠습니까? 형님이 먼저 들어가셔야지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동생들에게 숨김없이 말하마. 산속에 있는 요괴라면 너희가 힘을 쓸 필요도 없겠지만, 물속 일은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바다나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피수결(물에 빠지지 않게 하는 주문)을 외우거나 물고기나 게 같은 모습으로 변신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렇게 주문을 외우며 변신하면 여의봉을 휘두를 수도 없고, 신통력을 부릴 수도 없으며, 요괴를 때려눕힐 수도 없단 말이다. 너희 둘은 물에 익숙한 자들임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너희가 먼저 들어가 보라는 것이다."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저도 물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물밑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차

라리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형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시든, 아니면 제가 형님을 등에 업고 물길을 갈라 요괴의 소굴을 찾아낼 테니, 형님이 먼저 들어가서 정탐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 스승님께서 다치지 않고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 요괴를 소탕하면 되지만, 만약 요괴가 짓궂은 짓을 해서 스승님을 물에 빠뜨려 죽게 했거나 이미 잡아먹었다면, 우리가 애써 싸울 것도 없이 서둘러 다른 길을 찾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네 말이 옳다. 그럼 누가 나를 업겠느냐?" 저팔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원숭이 녀석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골탕 먹었던가. 이번에 보니 물을 못 헤엄치는 모양이니, 이 몸이 업어주면서 똑같이 골탕을 먹여주마.' 저팔계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제가 업겠습니다." 손오공은 저팔계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면서도, 그 뜻을 받아들여 맞장구를 쳤다. "그래, 좋다. 네가 사오정보다는 힘이 좀 더 세지니 말이다." 그러자 저팔계가 손오공을 등에 업었다.

사오정이 물길을 트자, 형제들은 함께 통천하 속으로 들어갔다. 물 밑으로 백여 리쯤 헤엄쳐 들어갔을 때, 장난기가 발동한 손오공이 저팔계를 골탕 먹이기로 했다. 손오공은 즉시 자신의 털 한 가닥을 뽑아 가짜 몸을 만들어 저팔계의 등에 몰래 태우고, 본체는 돼지 이(虱)로 변신하여 저팔계의 귀에 딱 붙었다.

저팔계가 한창 헤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꼬이더니 엉덩방아를 찧으며 진흙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알고 보니 저팔계의 등에 있던 가짜 몸은 손오공의 털이 변한 것이라, 넘어지는 순간 흔적도 없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제대로 걷지 못해 진흙탕에 넘어지는 거야 그렇다 쳐도, 큰형님은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그 원숭이 녀석, 넘어지더니 그대로 흠어져 사라져 버렸어. 형님, 그놈이 살았든 죽었든 상관 말고 어서 스승님을 찾으러 가요."

사오정이 대답했다. "안 됩니다. 그 형님이 꼭 오셔야 해요. 비록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은 잘 몰라도, 우리보다 훨씬 영리하고 대처가 빠르잖아요. 그 형님이 없으면 저는 형님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저팔계의 귀에 붙어 있던 손오공이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쳤다. "오정아, 이 몸이 여기 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에이, 이 멍청이(팔계)는 형님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데, 형님은 어찌 이리 그를 골탕 먹이십니까? 이제 소리만 들리고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 이를 어찌면 좋습니까?"

저팔계는 겁이 나서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승님을 구하고 육지로 올라가면 반드시 사죄드릴게요. 대체 어디서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까? 사람 놀라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제발 본모습을 드러내 주세요. 제가 다시 엎고 갈 테니, 다시는 형님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네가 나를 업고 가야지! 장난은 그만할 테니 어서 가자, 어서!"

저팔계는 계속해서 웅얼거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늘어놓더니, 겨우 일어나 사오정과 함께 다시 헤엄을 쳐 나갔다.

한참을 더 가니 백 리쯤 되는 거리에 갑자기 눈앞에 누각 하나가 나타났다. 그 위에는 '수원지제'라는 네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사오정이 말했다. "저곳이 요괴가 사는 곳인 모양입니다. 저희 둘은 저 안의 사정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쳐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손오공이 물었다. "오정, 저 문 안팎에 물이 있느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물이 없다면 네가 근처에 숨어 있거라. 내가 가서 슬쩍 살펴보고 오마."

손오공은 저팔계의 귀에서 기어 나와 몸을 흔들며 쪼뼛쪼뼛 다리가 긴 새우 할멈(蝦婆) 모습으로 변신하더니, 두세 번 꺾충 뛰어 문 안으로 들어갔다. 눈을 떠 살펴보니, 요괴가 상좌에 앉아 있고 양옆으로는 수많은 물속 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그 곁에는 얼룩무늬 옷을 입은 쏘가리 할멈(반의궤파, 斑衣鰍婆)이 앉아, 모두 모여 당승을 어떻게 잡아먹을지 의논하고 있었다. 손오공은 (스승을 찾으려) 마음 쓰며 양옆을 살폈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배가 불룩한 큰 새우 할멈 하나가 걸어와 서쪽 복도 아래에 멈춰 서는 것을 발견했다. 손오공은 그 앞으로 쪼뼛쪼뼛 달려가 말을 걸었다.

"어머니, 대왕께서 다른 이들과 당승을 잡아먹을 의논을 하고 계신다는데, 당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새우 할멈이 대답했다.

"당승은 대왕께서 눈을 내려 얼려버리셨단다. 어제 궁궐 뒤편 돌상자 안에 넣어두었지. 내일 제자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 그때 음악을 연주하며 맛있게 먹을 작정이란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새우 할멈 행세를 하며) 어슬렁거린 뒤, 곧장 궁궐 뒤편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과연 그곳에 돌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모양이 마치 사람들의 돼지통 같기도 하고 세상의 돌관 같기도 했으며, 길이는 족히 6척은 되어 보였다. 손오공이 그 위에 귀를 대고 잠시 숨을 죽이며 듣고 있으니, 안에서 삼장이 잉잉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오공이 아무 말 없이 귀를 더 바짝 기울이자, 스승님이 이를 부딪치며 신음 섞인 목소리로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물이 흐르는 운명이 이토록 기구하니, 살아서도 얼마나 많은 수재를 겪었던 말인가.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물결에 휩쓸리더니,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려다 이 깊은 연못에 빠졌구나. 앞서 흑하에서 재난을 만났는데, 이제는 얼음이 녹아 목숨이 저승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제자들이 과연 나를 구하러 올 수 있을까, 진경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손오공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스승님, 물의 재난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경전에 이르기를, '흙은 오행의 어머니요, 물은 오행의 근원이라. 흙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손오공이 왔습니다!"

삼장이 그 목소리를 듣고는 "제자야, 나를 좀 구해다오!" 하고 외쳤다. 손오공이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요괴를 잡아내어 반드시 스승님을 위기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삼장이 말했다. "어서 손을 써다오. 하루만 더 지체하면 답답해서 정말 죽고 말 것 같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손오공은 급히 고개를 돌려 밖으로 뛰어 나간 뒤, 문밖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며 외쳤다. "팔계야!" 멍하니 있던 저팔계가 사오정과 함께 다가와 물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바로 이 괴물이 스승님을 속인 것이다. 스승님은 다치지 않으셨고, 괴물이 돌상자 안에 가두어 두었을 뿐이다. 너희 둘이 얼른 도전해서 싸우는 척 하거라. 대신 나를 먼저 물 밖으로 나오게 해줘야 한다. 너희가 그놈을 잡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잡지 못하더라도 일부러 지는 척하며 그놈을 물 밖으로 유인해라. 그때 내가 쳐부수겠다."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걱정 마시고 먼저 가 계십시오. 저희가 상황을 잘 살펴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손오공은 피수결(물에 들어갈 때 몸을 보호하는 주문)을 외우며 강 밖으로 빠져나와, 강가에 서서 기다리며 다음 상황을 살폈다.

저팔계가 기세등등하게 문 앞까지 쳐들어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이 고약한 괴물 놈아! 당장 우리 스승님을 내놓아라!"

그 소리에 놀란 문 안의 작은 요괴가 급히 보고했다. "대왕님, 문밖에 누군가 스승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괴가 말했다. "필시 그 망할 놈의 스님이 찾아온 것이로구나. 어서 갑옷과 병기를 가져오너라!" 작은 요괴들이 서둘러 병기를 챙겨 왔다. 요괴는 무장을 마치자마자 병기를 손에 쥐고 문을 열어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좌우로 늘어서서 요괴가 어떻게 무장했는지 살펴보니, 과연 범상치 않은 괴물이었다. 그 모습을 보라.

머리에는 금빛 투구를 써서 눈부시게 빛나고, 몸에는 금빛 갑옷을 둘러 무지개처럼 찬란하구나. 허리에는 보석이 박힌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비로운 노란 빛이 도는 장화를 신었네. 콧날은 산봉우리처럼 높이 솟았고, 이마는 용의 기운을 담은 듯 넓고 당당하구나. 눈빛은 번뜩이며 사납고 매서우며, 치아는 강철처럼 날카롭고 가지런하네. 짧은 머리는 불꽃처럼 형클어져 흩날리고, 긴 수염은 금 송곳처럼 멋드러지게 뻗었구나. 입에는 푸른 수초 한 줄기를 물고, 손에는 구엽동구추를 짊어졌네. 문이 열리며 내뿜는 기합 소리는, 봄을 깨우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지니,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영감대왕의 위엄이 바로 이것이로다.

요괴가 문을 나서자 뒤이어 백여 명의 작은 요괴들이 창과 칼을 휘두르며 양옆으로 늘어서서 길을 막았다. 요괴가 저팔계에게 물었다. "네놈이 그 절에 있는 스님이냐? 어찌하여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저팔계가 호통을 쳤다. "이 죽지도 않는 고약한 놈! 지난밤에 나에게 말대꾸를 하더니, 오늘은 왜 아는 척도 없이 나타났느냐? 나는 동토 대당의 성스러운 스님의 제자로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이다. 네놈이 영감대왕인지 뭔지 하는 가짜 이름을 내걸고 진가장에서 동남동녀를 잡아먹는다지. 내가 바로 진청네 집의 그 '일칭금(一秤金)'이다. 나를 몰라보겠느냐?"

그러자 요괴가 대답했다. "이 스님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네놈이 일칭금(一稱金)으로 둔갑했으니, 그건 남의 이름을 사칭한 죄에 해당한다. 나는 네놈을 잡아먹기는커녕, 오히려 네놈 때문에 내 손등을 다쳤다. 이미 너를 놓아주었는데, 어찌하여 또 내 문 앞까지 찾아온 것이냐?"

저팔계가 다시 말했다. "놓아주었다니, 어찌하여 찬바람을 일으키고 눈을 내려 강물을 콩콩 얼려 우리 스승님을 해치게 만들었던 말이냐! 당장 우리 스승님을 내놓으면 일을 좋게 마무리하겠지만, 만약 내 말에 '아니'라고 대답하며 버틴다면 네 손에 든 그 갈퀴를 맛보게 될 것이다.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요괴는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말했다. "이 스님이 입만 살아서 허풍을 떠는구나. 그래, 내가 찬바람과 눈을 내려 강을 얼리고 네 스승을 잡아둔 것이 맞다. 이제 네놈이 직접 찾아와 따지겠다면, 지난번과는 상황이 좀 다를 것이다. 그때는 내가 모임에 가느라 병기를 챙기지 못해 네놈에게 맞았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겠다. 어디 나랑 세 합 정도는 겨뤄보자꾸나. 세 합 안에 나를 이기면 네 스승을 돌려주겠지만, 이기지 못한다면 네놈까지 통째로 잡아먹어 버리겠다!"

저팔계가 말했다. "착한 아들이야, 바로 그렇단 말이다. 자, 이 갈퀴를 똑똑히 보아라!"

요괴가 말했다. "네놈은 알고 보니 길 가다 머리 깎은 중이로구나."

저팔계가 대답했다. "아들이야, 너 정말 눈썰미가 좋구나. 어떻게 내가 길 가다 중이 된 걸 알았느냐?"

요괴가 비웃었다. "갈퀴를 쓰는 걸 보니, 어디 농장이나 일구는 데 고용되었다가 그 갈퀴를 훔쳐 달아난 모양이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아들아, 내 갈퀴는 땅이나 파는 그런 갈퀴가 아니다. 잘 보아라!"

시로 이르되, "거대한 이빨은 용의 발톱 같고, 금빛 장식은 구렁이 형상을 닮았구나. 적을 만나 찬바람이 불어올 때면, 서로 맞붙어 뜨거운 불꽃을 일으키네. 성스러운 스님을 도와 괴물을 물리치고, 서천 가는 길에 요괴를 잡아내리라. 휘두르면 구름과 안개가 해와 달을 가리고, 내리치면 노을빛이 번쩍이며 세상을 밝히네. 태산을 무너뜨려 호랑이들이 겁에 질리게 하고, 바다를 뒤엎어 용들이 깜짝 놀라게 하리라. 네놈의 위력이 대단하다 한들, 단 한 번의 내리침에 구멍이 숭숭 뚫릴 것이다."

하지만 요괴가 그 말을 믿을 리 있겠는가. 구리 망치를 휘둘러 머리부터 내리쳤다. 저팔계는 갈퀴로 막아내며 외쳤다. "이 고약한 놈, 너야말로 길 가다 요괴가 된 마물로구나!"

요괴가 되물었다. "네놈이 어떻게 내가 요괴가 된 걸 아느냐?"

저팔계가 말했다. "구리 망치를 쓰는 걸 보니, 분명 은 세공업자 집에서 화로를 만지다가 슬쩍 훔쳐 나온 것이로구나!"

요괴가 반박했다. "이건 은을 두드리는 망치가 아니다. 잘 보아라!"

시로 이르되, "아홉 잎 꽃봉오리처럼 뭉쳐 있고, 줄기는 속이 비어
만 년을 푸르구나. 세상 범속한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그 근원은
신선의 정원에서 왔도다. 옥지의 늙은 나무에서 자라나, 맑은 향기를
머금고 푸른 못에서 태어났네. 내 공력을 다해 두드리고 달구었으니,
강철처럼 단단하고 영험함이 하늘에 닿았구나. 창과 칼, 검과 극도 감
히 대적 못 하고, 도끼와 창끝도 내 앞을 지나지 못하리라. 네놈의 갈퀴
가 아무리 날카롭다 한들, 내 망치에 맞으면 툭 하고 부러질 것이다."

사오정이 두 사람이 말싸움하는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다가와 크
게 소리쳤다. "이 괴물 놈아, 함부로 떠들지 마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말은 증거가 없으니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했다. 도망갈 생각 마라, 내
지팡이 맛을 봐라!"

요괴가 망치 자루로 막아내며 말했다. "너도 길 가다 중이 된 놈이로
구나."

사오정이 물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괴가 비웃었다. "네 꼴을 보니 딱 멧돌질하던 놈 같구나."

사오정이 따졌다. "내가 왜 멧돌질하던 놈처럼 보이느냐?"

요괴가 대꾸했다. "멧돌질하던 놈이 아니면 어찌 밀가루 미는 막대
기를 휘두르느냐?"

사오정이 욕을 하며 외쳤다. "이 천하의 나쁜 놈아, 네놈이 아직 못
본 모양이구나!"

시로 이르되, "이런 병기는 세상에 드무니, 이 보물 지팡이의 이름을 알기 어렵구나. 달나라 궁전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령한 나무를 깎아 만들었도다. 겉에는 보석 같은 노을빛이 찬란하고, 안에는 황금빛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있네. 예전에는 궁중 잔치에도 참여했으나, 오늘은 오직 당승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노라. 서천 가는 길에 아는 이 없으나, 천계 궁궐에서는 이름 높다네. 요괴를 잡는 진정한 보물 지팡이라 부르니, 한 번 휘두르면 하늘의 영혼도 부서지리라."

요괴는 대꾸할 겨를도 없이 세 사람과 격렬하게 맞붙었다. 물속에서 벌어진 이 싸움은 실로 대단했다.

시로 이르되, "구리 망치와 보물 지팡이, 그리고 갈퀴를 들고, 오능과 오정이 요괴와 맞서 싸우네. 한 명은 세상에 내려온 천봉원수요, 한 명은 하늘 끝을 지키는 상장군이라. 둘이 합세해 수괴를 몰아붙이니, 홀로 버티는 신승의 기세가 참으로 놀랍구나. 오행의 이치가 서로 얹혀 대도를 이루니, 상생과 상극이 끊임없이 이어지네. 흙이 물을 누르면 물이 마르고, 물이 나무를 살리면 나무가 꽃을 피우듯, 선법을 닦아 하나로 돌아가고, 단약을 달구듯 세 명의 기세가 불꽃 튀네. 흙은 어머니 되어 금의 싹을 틔우고, 금은 신령한 물을 낳아 아이를 기르며, 물은 근본이 되어 나무를 적셔 꽃을 피우니, 그 화려함이 마치 타오르는 노을 같구나. 오행이 저마다 다르게 어우러지니, 싸움의 기세 또한 각기 다르도다. 구리 망치는 아홉 잎 꽃처럼 빛나고, 보물 지팡이는 천 갈래 색채로 아름답네. 갈퀴는 음양의 이치에 따라 아홉 별을 나누나, 그 수를 알지 못해 싸움은 어지럽기만 하구나. 스님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니,

망치는 떨어질세라, 지팡이는 막을세라, 갈퀴까지 막아내며 물속에서 혈투를 벌이네."

세 사람은 물속에서 두 시진 동안이나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저팔계는 이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사오정에게 눈짓을 보냈다. 두 사람은 패배한 척하며 무기를 챙겨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요괴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애들아, 너희는 여기 지키고 있어라. 내가 저놈들을 뒤쫓아 붙잡아 와서 너희와 함께 나눠 먹으마." 요괴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혹은 비에 젖은 꽃잎처럼 두 사람을 몰아붙여 물 밖으로 쫓아냈다.

손오공은 동쪽 강둑에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강물의 기세를 살폈다. 그때 갑자기 물결이 요동치며 거센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저팔계가 먼저 강가로 뛰어오르며 외쳤다. "온다, 온다!" 사오정도 강가로 달려오며 말했다. "온다, 온다!" 요괴가 고개를 내밀며 "어디로 도망가느냐!"라고 소리쳤으나, 그 순간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내 몽둥이를 받아라!" 요괴는 몸을 날려 공격을 피하더니, 구엽동구추를 휘둘러 맞서 싸우려 했다. 한 명은 강가에서 물결을 일으키고, 한 명은 강둑 위에서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맞붙은 지 세 합도 되지 않아 요괴는 손오공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정신없이 휘청거리더니, 다시 물속으로 잼싸게 뛰어들었다. 그러자 요동치던 물결도 이내 잠잠해졌다.

손오공이 높은 절벽 위로 돌아오며 말했다. "형제들, 고생 많았어."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저 요괴 놈은 물 밖(육지)에서는 별것 아닌 듯하더니, 물속에서는 아주 지독하네요. 저와 둘째 형님이 양쪽에서

같이 공격해 봤지만, 겨우 비기는 정도예요. 이걸 대체 어찌해야 스승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손오공이 말했다. "망설일 시간이 없어. 저놈에게 스승님을 다치게 할까 봐 걱정되는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제가 가서 저놈을 꺾어 밖으로 나오게 할 테니, 형님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공중에 떠서 기다려 주세요. 요괴놈이 머리를 내미는 순간, 마늘을 찢는 것처럼 아주 세게 정수리를 한 대 후려쳐 버리는 겁니다. 설령 단번에 죽이지 못하더라도 정신이 아찔해질 만큼 아프게 만들면, 그때 제가 갈퀴를 들고 달려들어 확실히 끝내버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맞장구를 쳤다. "웁거니, 바로 그거야! 그렇게 안팎에서 협공해야 일을 해결할 수 있지."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한편, 요괴는 싸움에서 패해 겨우 목숨을 건져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다. 부하 요괴들이 궁으로 모여들자, 반의궤파(斑衣鰍婆)가 다가와 물었다.

"대왕님, 그 두 스님을 어디로 쫓아버리셨습니까?"

요괴가 대답했다.

"그 스님들에게 도울 사람이 한 명 더 있더구나. 두 스님이 육지로 뛰어오르자, 그 조력자가 철봉을 휘두르며 나를 공격하길래 나도 피하

며 맞서 싸웠다. 그런데 그놈의 몽둥이가 대체 몇 근이나 되는지, 내 구리 망치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더구나. 채 세 번을 맞붙기도 전에 내가 패해서 도망쳐 온 것이다."

궤파가 다시 물었다.

"대왕님, 그 조력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요괴가 말했다.

"털이 덩수룩한 얼굴에 뇌공처럼 튀어나온 입, 쫘긋한 귀, 꺾인 콧날, 그리고 번뜩이는 금빛 눈을 가진 스님이었다."

그 말을 들은 궤파는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대왕님, 정말 안목이 뛰어나셔서 목숨을 건지셨군요! 만약 세 번을 다 채워 싸웠다면 분명 목숨을 잃으셨을 겁니다. 그 스님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요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네가 그가 누구인지 안단 말이나?"

궤파가 대답했다.

"제가 예전에 동양 바다 속에 있을 때, 늙은 용왕님으로부터 그분의 명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백 년 전 천궁(天宮)을 크게 어지럽혔던, 혼원일기 상방태을금선(混元一氣上方太乙金仙)이자 미후왕(美猴王)인 제천대성(齊天大聖)이십니다. 지금은 불교에 귀의하여

당승을 모시고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이며, 이름을 손오공 행자(行者)라 고쳐 부른다지요. 그분의 신통력은 광대하고 변화무쌍하니, 대왕님께서 어찌 감히 그분을 건드리셨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와 싸우지 마십시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문 안에서 어린 요괴가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 저 두 스님이 또 문 앞까지 와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요괴가 말했다. "내 동생이 아주 잘 보았구나. 지금 나가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얘들아, 문을 짹 열어 잠가라! '네가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리라'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며칠 동안 저들을 괴롭혀서 기운이 다 빠져 돌아가게 만들면, 그때 가서 당승을 편히 데려다 쓰면 될 것이다." 요괴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린 요괴들이 일제히 커다란 돌을 옮기고 진흙 덩어리를 채워 넣어 문을 빈틈없이 짹 막아버렸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연신 소리를 질러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마음이 초조해진 저팔계가 쇠갈퀴(釘耙)를 휘둘러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어 도무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저팔계가 일곱여덟 번이나 갈퀴를 내질러 문짝을 부수고 안을 들여다보니, 안에는 흙과 돌덩이가 층층이 높게 쌓여 있을 뿐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이 괴물이 겁을 잔뜩 집어먹었는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네요. 일단 우리도 강 언덕 위로 돌아가서 큰형님과 다시 의논해 봐요."

저팔계도 그 말에 동의하여 곧장 동쪽 강가로 발길을 돌렸다.

손오공은 구름과 안개 사이에 몸을 반쯤 가린 채 철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다가오는 것을 본 손오공은 요괴가 보이지 않자, 즉시 구름을 타고 강가로 내려가 물었다.

"형제들, 그놈은 왜 아직 안 올라왔느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그 괴물이 집 문을 짝 걸어 잠그고는 도무지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둘째 형님이 문을 부수고 안을 살펴보니, 안에는 흙과 돌덩이들로 겹겹이 쌓아 막아놓았던군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스승님을 구할 수 있을지 형님과 의논하러 왔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게 버티면 정말 방법이 없겠구나. 너희 둘은 강가에서 계속 살피며 그놈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보고 있거라. 나는 다녀오마."

저팔계가 물었다.

"형님, 어디를 가시게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보타락가산에 가서 보살님께 여쭙어보려 한다. 저 요괴가 어디 출신인지,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지 말이다. 그놈의 고향을 찾아

내서 가족들을 잡아오고 이웃들을 다 붙잡아 온 뒤에, 다시 돌아와 요괴를 잡고 스승님을 구하겠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그렇게 하면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시간만 다 잡아먹을 거예요."

손오공이 말했다.

"일이 복잡하든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다. 나는 다녀오마."

"좋다, 대성!"

손오공은 곧바로 상서로운 빛을 뿜으며 강 입구를 벗어나 곧장 남해로 향했다. 반 시진쑈 날아갔을까, 저 멀리 낙가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구름 머리를 낮추어 보타락가산의 절벽 위로 내려앉았다.

그러자 스물네 명의 제천신들과 산을 지키는 신, 목차 행자, 선재동자, 그리고 구슬을 받드는 용녀가 일제히 마중 나와 예를 갖추며 물었다.

"대성께서 어찌 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보살님을 뵈러 왔소."

신들이 말했다.

"보살님께서는 오늘 아침 일찍 동굴을 나서서 아무도 데려가지 말고 혼자 대나무 숲에 가서 유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성께서 오늘 반드시 오실 것을 알고 계셔서, 저희에게 여기서 대성님을 맞이하며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뵈 수는 없으니, 저 푸른 바위 앞에서 잠시 앉아 계시며 보살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한 대로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선재동자가 다가와 예를 갖추며 말했다.

"손 대성님, 지난번에는 저를 거두어 주시려는 마음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보살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거두어 주신 덕분에, 밤낮으로 연화대 아래를 모시며 보살님의 자비로운 은덕을 입고 있습니다."

손오공은 그가 흥해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네가 마음에 마귀가 깃들어 정신을 못 차리더니, 이제야 바른 도를 깨우쳐 정과(正果, 수행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루었구나. 그 래야 이 손오공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지!"

손오공이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마음이 타들어 가는 듯한 나머지 외쳤다. "여러분, 제발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 너무 늦으면 우리 스승님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자 천신들이 대답했다. "감히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미가 급한 손오공이 어찌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는 곧장 몸을 날려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아! 이 미후왕은 성미가 급해 참을성이 없구나. 천신들도 붙잡지 못하니, 안으로 들어가 뵙고자 하네. 숲속 깊이 발을 들여놓고, 눈을 크게 뜨고 몰래 살피니. 멀리서 구고존(고통을 구제하는 존자)이 보이는데,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계시네. 단장을 게을리한 듯 모습이 아주 수려한데,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엉망이고 머리띠조차 쓰지 않았구나. 푸른 도포도 걸치지 않고 몸에 붙는 작은 저고리만 입었으며, 허리에 비단 치마를 두르고 맨발로 계시네. 어깨에 두른 수놓은 띠도 없이, 두 팔은 매끄럽게 드러나 있고, 옥 같은 손에는 강철 칼을 쥐고서, 대나무 껍질을 꺾고 계시도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보살님, 제자 손오공이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셨다. “밖에서 기다리거라.” 손오공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보살님, 저희 스승님께서 큰 난관에 처하셨습니다. 통천하 요괴의 근원이 무엇인지 여쭙고자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우선 나가서 기다려라. 내가 나갈 때까지 말이다.”

손오공은 감히 억지로 나서지 못하고 대나무 숲을 걸어 나와 여러 천신에게 물었다.

"보살님께서 오늘 또 집안일을 새로 정하시나 보군요. 어찌하여 연화대에 앉아 단장하지 않으시고, 숲속에서 대나무를 꺾으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자 천신들이 대답했다.

"우리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동굴을 나서면서 채 단장할 겨를도 없이 바로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대성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모양인데, 분명 대성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지요."

손오공은 어쩔 도리가 없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살이 자죽 바구니를 손에 들고 숲길을 나오며 말했다. "오공아, 내가 너와 함께 당승을 구하러 가마." 손오공은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제자가 감히 보살님을 재촉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옷을 갖춰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살이 말했다. "옷을 입을 필요 없다. 바로 가자꾸나." 그러고는 보살이 하늘의 신선들을 뒤로하고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손오공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순식간에 통천하에 도착했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보고 말했다. "형님은 워낙 급한 성미라, 남해에서 분명 소란을 피우며 화장도 채 못 끝낸 보살님을 억지로 불러내셨을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두 사람은 강가에 이르러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보살님, 저희가 경솔하게 행동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보살은 곧바로 옷을 여미는 비단 끈 하나를 풀어 바구니를 단단히 묶었다. 그러고는 비단 끈을 손에 쥐고 구름을 반쯤 밟은 채 강물 속으로 던져 넣었다. 끈을 위로 끌어당기며 보살은 계송을 외었다. "죽은 것은 가고, 산 것은 머물러라. 죽은 것은 가고, 산 것은 머물러라!" 일곱 번을 외우고 바구니를 들어 올리니, 그 안에는 눈을 번뜩이고 비늘을 파닥거리는 황금빛 물고기 한 마리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보살이 말했다. “손오공아, 어서 물속으로 들어가 네 스승을 구하거라.” 손오공이 대답했다. “요괴를 아직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스승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이 말했다. “이 바구니 안에 있지 않느냐?” 저팔계와 사오정이 절하며 물었다. “이 물고기가 어찌하여 그런神通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보살이 답했다. “이 물고기는 본래 내 연화지에서 자란 금어(황금 물고기)란다. 매일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경전을 들으며神通력을 닦아온 것이지. 저 구엽동구추(아홉 잎의 구리 망치)는 아직 피지 않은 연꽃 봉오리였는데, 저놈이 이를 단련하여 병기로 만든 것이란다. 어느 날 해조가 밀려올 때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모양이다. 오늘 아침 난간에 기대어 꽃을 구경하려는데 저놈이 보이지 않기에, 손가락을 꼽아 점을 쳐보니 이곳에서 요괴가 되어 네 스승을 해치고 있더구나. 그래서 채 단장도 마치지 못한 채神通력을 발휘하여 대나무 바구니를 짜서 저놈을 잡으려 한 것이란다.”

손오공이 말했다. “보살님, 상황이 이러하니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진가장의 신도들을 불러 보살님의 금빛 얼굴을 뵙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보살님의 은혜를 기릴 수 있고, 요괴를 물리친 이 일을 널리 알려 범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공양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이 말했다. “그리하도록 하라. 어서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저팔계와 사오정이 마을 앞으로 달려가 목청껏 외쳤다. “살아있는 관음보살님이 오셨다! 모두 나와서 살아있는 관음보살님을 뵙자!”

마을의 노인과 아이,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진흙탕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가로 달려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다. 그중 그림을 잘 그리는 이들이 보살님의 모습을 그림자로 남겨 전하니, 이것이 바로 물고기 바구니를 든 관음보살이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다. 그 후 보살은 남해로 돌아갔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물길을 갈라 각자 길을 나섰고, 곧장 수원지제로 향해 스승을 찾아 나섰다. 알고 보니 그곳의 수괴와 물고기 요괴들은 모두 처참하게 죽어 있었다. 두 사람은 후궁으로 들어가 돌상자를 열고 삼장을 등에 업은 채 물가로 나와 일행과 재회했다.

진청 형제는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나으리, 저희의 만류를 듣지 않으시다가 결국 이런 고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건 말할 것도 없네. 이제 이곳 사람들은 내년부터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네. 그 대왕을 뿌리째 뽑아버렸으니 다시는 해를 끼치지 못할 걸세. 진 영감, 이제야 겨우 일을 마쳤으니 어서 배를 한 척 구해 우리를 강 건너로 실어다 주게나."

진청이 대답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는 즉시 배를 만들기 위해 판자를 뜯어오게 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앞다투어 나섰다. "제가 돛을 사겠습니다!" "제가 노와 노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밧줄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사공을 부려 오겠습니다!"

모두가 강가에서 시끌벅적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갑자기 강 한가운데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 대성님, 배를 치지 마십시오! 남의 재물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스승님과 제자분들을 건너편으로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겁이 많은 이들은 서둘러 집으로 도망쳤고, 용기 있는 이들도 벌벌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물속에서 괴물 하나가 쭉 솟아올랐는데, 그 생김새가 어떠했느냐 하면 다음과 같았다.

“네모난 머리에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비범한 존재요, 아홉 개의 보조 장치로 영험함을 갖춘 물의 신선이라네. 꼬리를 흔들며 천 년의 수명을 누리고, 몸을 숨겨 백 개의 강줄기 깊은 곳에 은거하네. 파도를 일으키며 강둑을 몰아치고, 해와 바람을 마주하며 바닷가에 누워 있네. 기운을 기르고 영성을 품어 참된 도를 깨우쳤으니, 오랜 세월 머리위를 진흙으로 덮고 살아온 늙은 자라로다.”

그 늙은 자라가 다시 외쳤다.

“대성님, 배를 치지 마십시오. 제가 스승님 일행을 건너편으로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철봉을 휘두르며 말했다.

“이 요망한 짐승 같으니! 만약 내 근처로 다가오기만 하면, 이 몽둥이로 단숨에 때려죽여 버리겠다!”

늙은 자라가 대답했다.

“저는 대성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스승님 일행을 모셔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저를 때리려 하십니까?”

손오공이 물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러느냐?”

늙은 자라가 말했다.

“대성님,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수원지제’는 바로 저의 저택입니다. 대대로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곳이지요. 저는 본성을 깨닫고 영기를 길러 이곳에서 수행해 왔기에, 조상님이 남겨주신 집을 새로 단장하여 이 저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년 전, 해일이 몰아치며 파도가 거세게 일던 날, 어떤 요괴가 조수를 타고 이곳으로 들어닥쳤습니다. 그놈은 흉악하고 사나워 저와 싸움을 벌였고, 제 자식들을 많이 다치게 하고 가족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가 그놈을 이기지 못해 결국 제 보금자리마저 허무하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성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당승 스님을 구해주시고, 관음보살님께 청하여 요괴를 물리치고 집을 되찾아주게 되었으니, 저와 제 가족들은 다시는 진흙탕 속에서 고생하지 않고 옛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산처럼 무겁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비단 저희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매년 제물을 바치며 떨지 않아도 되고, 수많은 집안의 자식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일거양득의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철봉을 거두고 물었다.

“그 말이 정말 진심이냐?”

늙은 자라가 대답했다.

“대성님의 은덕이 이토록 깊은데, 어찌 감히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진심이라면 하늘에 대고 맹세해 보아라.”

그러자 늙은 자라는 붉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향해 맹세했다.

“만약 제 진심이 거짓이라서 당승을 통천하 너머로 모셔다드리지 못한다면, 제 몸이 피가 되어 흘러가겠습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좋다, 올라오너라! 어서 올라와!”

늙은 자라가 겨우 강가 근처에 다다르자, 몸을 훌쩍 날려 강둑 위로 기어 올라왔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지름이 네 장(丈)이 나 되는 커다란 하얀 덩개 같은 모습이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우리가 저놈의 등 위로 올라타서 강을 건너갑시다."

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저 얼음층도 두껍고 단단해서 걷기가 이토록 힘든데, 하물며 저 자라의 등 위는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그러자 자라가 말했다. "스승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저 얼음층보다 훨씬 두껍고 단단하니 아주 안정적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비틀거리면 안 될 뿐이지요."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세상 모든 중생이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결코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러고는 손오공이 외쳤다. "형제들아, 어서 말을 끌고 오너라!"

강가에 이르자 진가장의 노인과 아이, 남녀노소 모두가 한데 모여 배웅하며 절을 올렸다. 손오공은 말을 커다란 자라의 등껍질 위에 끌어 올려놓게 했다. 그리고 당승에게는 말의 목 왼쪽 편에 서게 하고, 사오정은 오른쪽, 저팔계는 말 뒤에, 손오공 자신은 말 앞에 서게 했다. 손오공은 혹시라도 자라가 예의 없이 행동할까 걱정되어, 호랑이 힘줄로 만든 띠(虎筋條)를 풀어 자라의 콧구멍에 꿰어 넣은 뒤 잡아당겨 마치 고삐처럼 만들었다.

손오공은 한 발은 자라의 등껍질을 딛고 다른 한 발은 자라의 머리 위에 올린 채, 한 손에는 여의봉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삐를 잡아당기며 외쳤다. "이 늙은 자라야, 천천히 가라! 똑바로 안 가고 비틀거리면 머리를 확 내려치겠다!" 자라가 대답했다.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조심하겠습니다!"

자라는 네 발을 힘차게 저으며 마치 평지를 걷듯 물 위를 밟고 나아갔다. 강가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향을 피우고 머리를 조아리며 "나무 아미타불"을 외쳤다.

시로 이르되, 참된 나한이 세상에 내려오고 살아있는 보살이 나타났구나.

사람들이 모두 절을 올리느라 일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되어 서야 비로소 돌아갔으니,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멈춘다.

한편, 삼장은 커다란 흰 자라를 타고 하루를 보낸 끝에 팔백 리에 달하는 통천하를 건너, 몸이 젖지 않은 채 무사히 강가에 올라섰다. 삼장이 언덕 위로 올라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늙은 자라여, 그대 덕분에 고생을 덜었구려. 따로 드릴 선물은 없으나, 내가 경전을 구하러 다녀온 뒤에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소."

그러자 늙은 자라가 대답했다.

"스님, 감사 인사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듣기로 서천의 부처님께서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경지에 계시며, 과거와 미래의 일을 모두 아신다지요. 저는 이곳에서 천삼백여 년 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수명도 길어지고 몸도 가벼워졌으며 사람의 말도 할 줄 알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 딱딱한 껍데기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서천에 가시거든 저를 위해 부처님께 한 말씀만 여쭙어 주십시오. 제가 언제쯤 이 껍데기를 벗고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삼장이 흔쾌히 대답했다.

"알겠소, 내가 꼭 물어보리다."

그제야 늙은 자라는 물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갔다.

손오공은 삼장이 말에 오르는 것을 돕고, 저팔계는 짐을 짊어졌으며, 사오정은 그 곁을 따랐다. 스승과 제자들은 큰길을 찾아 서천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 나갔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시로 이르되,

성스러운 승려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하려 하건만, 물은 멀고 산은 아득하니 재난이 끊이지 않는구나. 뜻과 마음이 지극하여 죽음조차 두렵지 않으니, 흰 자라가 짐을 싣고 저 넓은 강을 건너리라.

결국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또 어떤 길흉화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0회 — 정욕으로 인해 정이 어지러워 지고 성품을 따르며, 정신이 혼미하고 마 음이 흔들려 마두를 만나다

情亂性從因愛慾 神昏心動遇魔頭

시로 이르되,

마음속을 빈번히 끌어내어 세속의 번뇌를 날날이 없애라. 부처의 법을 가로막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본래의 성품이 늘 청정해야 비로소 만물의 근원을 논할 수 있으리니.

마음의 등불은 세심히 살펴 밝혀야 하고 조계산의 법향은 마음껏 들이켜야 하리라. 심원(心猿)과 의마(意馬)가 거칠게 날뛰지 않게 하라. 밤낮으로 끊임없이 쉬어줄 때 비로소 참된 수행의 경지에 이르게 되리라.

이 시는 '남가자'라는 곡조로, 당승이 통천하의 혹독한 추위를 벗어나 흰 거북을 타고 저 언덕에 무사히 도달했음을 말하고 있다. 스승과

세 제자는 큰길을 따라 서쪽을 향해 나아갔다. 마침 엄동설한의 계절이라, 숲은 안개 속에 아스라히 빛나고 산의 능선은 물 너머로 날카롭게 솟아 있었다.

스승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커다란 산 하나가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았다. 길은 좁고 낭떠러지는 높았으며, 돌이 많고 고개가 험준하여 사람과 말이 나아가기 매우 어려웠다. 당승은 말의 고삐를 붙잡아 세우며 제자들을 불렀다.

"제자들아!"

때마침 손오공이 저팔계와 사오정을 데리고 앞으로 다가와 곁에 서며 물었다.

"스승님, 무슨 분부이십니까?"

당승이 말했다.

"저 앞을 보아라. 산이 저리 높으니 호랑이나 이리가 나타나 괴롭히거나, 요괴가 나타나 사람을 해칠까 두렵구나. 이번에는 반드시 조심해야겠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형제 셋은 마음과 뜻이 하나로 뭉쳐 참된 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괴를 쓸어버리고 괴물을 굴복시키는 법술을 부리는데, 호랑이나 이리, 요괴 따위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승은 그 말을 듣고서야 마음을 놓으며 다시 길을 재촉했다. 골짜기 입구에 이르러 말을 몰아 절벽을 오르며 고개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산세가 이러했다.

"깎아지른 듯 높이 솟아 하늘을 찌를 듯하고, 험준한 봉우리는 푸른 하늘을 가로막았구나. 괴상한 바위들은 마치 호랑이가 앉아 있는 듯 어지럽게 쌓여 있고, 비스듬히 걸린 푸른 소나무는 마치 날아오르는 용 같구나. 고개 위에는 새들이 아름다운 울음소리로 노래하고, 절벽 앞에는 매화가 짙은 향기를 내뿜는다. 계곡물은 차갑게 졸졸 흐르고, 산 봉우리에 드리운 구름은 어둡고 흥측하구나. 게다가 훑날리는 눈과 매서운 바람은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산속에서 포효하는 듯하다. 까마귀는 쉴 곳을 찾아 나무 사이를 헤매고, 들사슴은 은신처를 찾아 자취를 감추었구나. 아아, 가는 이의 발걸음은 나아가기 어렵고, 근심 어린 얼굴은 미간을 찌푸린 채 머리를 숙이고 있구나."

스승과 제자 네 사람은 눈보라를 뚫고 추위를 견디며 험한 산봉우리 와 고개를 넘어갔다. 그러다 산골짜기 아래로 높이 솟은 누각과 고요하고 아담한 집들이 멀리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당승이 말 위에서 기뻐하며 말했다.

"제자들아, 오늘 하루 종일 배고프고 춥구나. 다행히 저 산골짜기에 누각과 집들이 있으니, 분명 농가나 암자, 혹은 사찰일 것이다. 어서 가서 공양이라도 좀 얻어먹고 다시 길을 떠나자."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저쪽 건물 위로 훑쳐간 구름이 은은하게 감돌고 사악한 기운이 어지럽게 훑날리고 있었다. 손오공이 고개를 돌려 당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저곳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당승이 말했다.

"누각과 정자가 저렇게 보이는데, 어찌 좋은 곳이 아니겠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스승님께선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에는 요괴와 마귀가 많아서, 마을이나 집을 변신시켜 사람을 홀리는 데 능합니다. 그게 누각이든 집이든, 화려한 관각이나 정자든 상관 없이 모두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습니다. '용이 아홉 종류의 새끼를 낳는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신(蜃)'이라는 놈입니다. 이 신이 내뿜는 기운은 빛을 발하여 마치 누각이나 얇은 연못처럼 보입니다. 큰 강에 안개가 자욱이 끼면 신이 바로 이런 형상을 드러내는데,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반드시 그 위에 내려앉아 날개를 쉬려 합니다. 그러면 그 수가 천 마리든 만 마리든 모조리 저놈의 기운 한 번에 삼켜지고 맙니다. 이 수법이 사람을 해치는 데 가장 지독합니다. 저쪽의 기운이 워낙 흉악하니,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당승이 말했다. "들어갈 수 없다면, 나는 정말 배가 고프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정말 배가 고프시군요. 그럼 우선 말에서 내려 이 평평한 곳에 앉아 계십시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공양할 음식을 좀 얻어 오겠습니다."

당승이 말한 대로 말에서 내리자, 저팔계가 고삐를 붙잡았다. 사오정은 짐을 내려놓고 곧장 보따리를 풀어 발우를 꺼내 손오공에게 건넸다. 손오공은 손에 발우를 받으며 사오정에게 분부했다.

"아우님,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안 되네. 스승님을 잘 모시고 이곳에 암전히 앉아 계시게 하거나. 내가 음식을 얻어 돌아오면 그때 다시 서쪽으로 길을 떠나세."

사오정이 대답했다. 손오공은 다시 당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이곳은 길조보다는 흉조가 많은 곳이니 절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 손오공이 음식을 좀 구해 오겠습니다."

당승이 말했다. "긴 말 할 것 없다. 그저 빨리 다녀오거나 하거라. 여기서 기다리마."

손오공이 몸을 돌려 떠나려다가, 다시 돌아와 말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성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지요."

그러고는 금고봉을 꺼내 휘휘 두르더니, 평평한 땅 주위에 커다란 원을 그렸다. 그리고 당승에게 그 원 한가운데에 앉으라고 일렀다. 저

팔계와 사오정에게는 양옆에서 모시도록 하고, 말과 짐도 모두 몸 가까이 두게 했다. 손오공은 당승에게 합장하며 말했다.

"제가 그린 이 원은 구리 벽이나 철벽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어떤 호랑이나 표범, 이리나 늑대, 혹은 요괴나 귀신이라 할지라도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절대로 이 원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저 가운데에 앉전히 앉아 계셔야 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 밖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제발 명심하십시오."

당승이 그 말대로 따르니, 스승과 제자 모두 단정하게 앉았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공양을 드릴 마을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고목들 사이로 어느 마을을 발견했다. 구름을 낮추어 자세히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눈은 시든 버들가지에 쌓이고, 얼음은 네모난 연못을 뒤덮었구나. 성긴 대나무는 푸른 빛을 흔들고, 울창한 소나무는 초록빛을 머금었네. 몇 채의 초가집은 은빛 눈을 뒤집어썼고, 작은 돌다리는 비스듬히 놓여 있구나. 울타리 곁에는 수선화가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처마 밑에는 얼어붙은 고드름이 길게 늘어졌네. 쓸쓸한 찬바람은 기묘한 향기를 실어 오는데, 눈이 가득 쌓여 매화가 피었는지조차 알 수 없구나.

손오공이 마을 풍경을 구경하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끼익' 하고 사립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노인은 지팡이를 끌고 머리에는 양털 가죽을 썼으며, 해진 승복 같은 옷을 입고 짙은 신은 채였다. 노인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다

다. "서북풍이 부는 걸 보니, 내일은 날이 맑겠구먼."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뒤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달려 나오더니 손오공을 향해 멍멍 짖어댔다. 그제야 노인이 고개를 돌려 손오공이 발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손오공이 예를 갖추며 말했다. "어르신, 저는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임무를 띠고 가는 승려입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길인데, 저희 스승님께서 배가 몹시 고프시다 하여 실례를 무릅쓰고 공양을 청하러 왔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로 땅을 탁 치며 말했다. "스님, 공양은커녕 길을 잘못 들었소."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노인이 말을 이었다. "서천으로 가는 큰길은 저 북쪽으로 곧장 내려가야 하오. 여기서 그곳까지는 천 리나 떨어져 있는데, 어찌 큰길을 찾지 않고 이리로 왔단 말시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북쪽으로 곧장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서는 지금 큰길가에 앉아 제가 공양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자 노인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이 스님이 헛소리를 하는구먼. 스승님이 큰길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니, 여기서 그곳까지 천 리 길이면 걸어서 가더라도 옛새나 이레는 걸릴 것이고, 다시 돌아오는 데도 또 옛새나 이레는 걸릴 텐데, 그사이에 스승님이 굶어 죽지 않겠소?"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르신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스승님을 떠난 지 채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되지 않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공양을 얻어 가면, 서둘러 점심 공양을 올리러 가야 합니다."

노자는 그 말을 듣고 겁에 질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스님은 귀신이다, 귀신이야!' 노자는 급히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노자를 붙들며 말했다. "보살님, 어디를 가십니까? 공양할 음식이 있다면 조금만 베풀어 주십시오." 노자가 말했다. "안 될 말ियो, 안 돼. 다른 집으로 가보시오." 손오공이 대꾸했다. "보살님, 참으로 야속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천 리나 떨어져 있는데, 또 다른 집을 찾아가려면 다시 천 리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는 저희 스승님이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노자가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겠소. 우리 집에 노인과 아이들까지 대여섯 명은 되는데, 이제 막 쌀 세 되를 꺼내 솥에 넣고 불을 지폈소. 아직 다 익지도 않았으니, 제발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옛말에 '세 집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집에 머무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 빈 승이 여기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노자는 손오공이 끈덕지게 달라붙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손오공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팡이가 대머리에 일고여덟 번이나 정통으로 맞았지만, 손오공은 그저 간지러운 정도라고 여겼다. 노자가 소리쳤다. "이놈, 머리를 들이받는 스님이로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영감님, 아무리 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때릴 때마다 횡수를 정확히 세어만 주십시오. 한 대 맞을 때마다 쌀 한 되씩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재면서 때리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노자는 깜짝 놀라 지팡이를 내팽개치고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고는 "귀신이다, 귀신이야!"라고 비명을 질러댔다. 그 바람에 집 안의 식구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앞문과 뒷문을 모조리 걸어 잠갔다.

손오공이 노인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 영감이 쌀을 씻어 솥에 넣는다고 했는데, 정말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옛말에 어진 이는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는 제도한다고 했으니, 일단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손오공은 주문을 외워 은신술을 부린 뒤, 슬그머니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솥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밥이 반 솥 정도 익어가고 있었다. 손오공은 발우를 솥 안으로 쑥 밀어 넣어 밥을 가득 담은 뒤, 곧장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한편, 당승은 손오공이 그려놓은 원 안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으나 손오공이 돌아오지 않자, 몸을 일으켜 멀리 바라보며 한탄하듯 말했다. “그 원숭이가 어디로 공양을 하러 갔길래 이리도 안 오는가?”

옆에 있던 저팔계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놈이 어디서 탄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양은 무슨 공양입니까, 우리를 여기다 가둬놓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당승이 물었다. “가둬놓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스승님, 옛말에 ‘땅에 선을 그어 죄수를 가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놈이 지팡이로 원을 그려놓은 게 꼭 철벽이나 구리 성벽처럼 단단해서, 만약 호랑이나 이리, 요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저 속수무책으로 잡아먹히게 내버려 두는 꼴이지요.”

당승이 다시 물었다. “오능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여기는 바람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추위를 피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놈 생각에는 그냥 길을 따라 계속 서쪽으로 가는 게 상책입니다. 형님이 공양을 마치고 구름을 타고 오면 금방 올 테니, 그때 오라고 하면 되지요.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니 발이 너무 시려 죽겠습니다!”

당승은 그 말을 듣고 운이 다했음을 직감했다. 결국 그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뜻에 따라 모두 함께 보호 원 밖으로 나갔다. 저팔계는 말을 끌고, 사오정은 짐을 짊어진 채, 당승은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각이 있는 곳에 도착하니, 그곳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지어진 집이었다. 문밖에는八字 모양으로 비스듬히 벌어진 흰 담이 있었고, 거꾸로 매달린 연꽃 모양의 두공(斗拱)을 얹은 문루가 우뚝 솟아 있었는데 모두 오색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저팔계는 문기둥을 받치는 돌북(門枕石鼓)에 말을 매어 두었고, 사오정은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다. 당승은 찬바람이 걱정되어 문턱에 걸터앉았다.

저팔계가 말했다. "스승님, 이 집을 보니 귀한 양반가나 높은 관리가 사는 집 같습니다. 문밖에 사람이 없는 걸 보니 분명 안에서 불을 켜고 있을 거예요. 두 분은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승이 말했다. "조심하거라. 괜히 남의 집을 침범해서 실례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저팔계가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불교에 귀의한 뒤로 예의 범절을 좀 배웠단 말입니다. 예전처럼 무식하게 굴지는 않아요."

저팔계는 허리춤에 갈퀴를 챙겨 매고 비단으로 된 푸른 도포를 매만지며 점잖은 체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을 보니 세 칸짜리 큰 대청이 있었는데, 발과 창문은 높이 걸려 있었으나 정적만이 감돌 뿐 사람의 흔적도, 탁자나 의자, 부엌살림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병풍을 지나 안으로 더 들어가니 통로가 나타났고, 그 뒤에는 큰 누각이 하나 있었다. 누각 위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노란 비단 휘장이 어렴풋이 보였다.

저팔계가 말했다. "추위를 타는 사람이 아직 자고 있나 보군." 그는 안팎도 가리지 않고 성큼성큼 누각 위로 올라갔다. 그러다 손으로 휘장을 걷어 올린 순간, 저팔계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자빠질 뻔했다. 휘장 안 상아 침대 위에는 하얗게 변한 해골 더미가 놓여 있었는데, 해골 머리는 대야만 하고 다리뼈는 네댓 자나 될 정도로 길었다. 저팔계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뺨을 타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해골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하며 읊조렸다.

"시로 이르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원수였으며, 어느 나라의 대장군이었던가. 당시에는 영웅들이 힘을 겨루며 으스스했건만, 오늘날은 처량하게 빼만 앙상히 남았구나. 아내와 자식 곁에서 모심을 받기는커녕, 군사들이 항을 피워주는 일조차 없으니. 이 광경을 보니 참으로 탄식할 만하구나, 한때 왕업을 떨치던 영웅이 이리 되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저팔계가 막 탄식을 마치려는데, 휘장 뒤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저팔계가 말했다. "뒤에서 향을 피우는 사람이 있나 보네." 그는 급히 발걸음을 옮겨 휘장 너머를 살펴보았으나, 그것은 누각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온 빛일 뿐이었다. 벽 쪽에는 채색을 한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비단으로 만든 솜옷 몇 벌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저팔계가 옷을 들어 올려 보니, 그것은 비단이 덧대어진 조끼 세 벌이었다.

저팔계는 그것이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따지지 않고, 일단 누각에서 가지고 내려와 거실을 지나 문밖으로 나오며 말했다.

"스승님, 여기는 사람 흔적이 전혀 없는, 망령들이 사는 집입니다. 저 돼지가 안으로 들어가 높은 누각 위 황색 휘장이 쳐진 곳을 보니 해골더미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비단으로 만든 조끼 세 벌이 있기에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여정의 행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날씨가 워낙 추우니 딱 쓸만합니다. 스승님도 겹옷을 벗고 그 밑에 받쳐 입으세요. 그래야 추위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당승이 말했다.

"안 된다, 안 돼. 계율에 이르기를 '드러내놓고 빼앗든 몰래 훔치든 모두 도둑질이다'라고 했다. 만약 누군가 눈치채고 우리를 쫓아와 관가에 고발하기라도 하면, 분명 도둑질한 죄로 다스려질 것이다. 어서 다시 가져다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두거라. 우리는 여기서 바람을 피하며 잠시 앉아 있자꾸나. 손오공이 돌아오면 같이 길을 떠나면 된다. 출가한 몸이 어찌 이런 작은 물건에 욕심을 내겠느냐."

저팔계가 대꾸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닭이나 개 한 마리 보이지 않는데,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지 누가 저를 고발하겠습니까? 증거라도 있나요? 길에서 주운 물건도 마찬가지로인데, 공공연히 취했는지 몰래 훔쳤는지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승이 꾸짖었다.

"네가 망령된 소리를 하는구나! 비록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해도, 하늘이 어찌 모를 것이냐? 현제(玄帝)께서 가르치시기를 '어두운 방 안에서 마음을 속여도, 신령한 눈은 번개처럼 밝다'라고 하셨다. 어서 가서 제 자리에 돌려놓고, 예법에 어긋나는 물건에 욕심내지 말거라."

그 멍청한 녀석이 말을 들을 리가 있겠는가. 저팔계가 당승에게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저도 평소에 조끼를 몇 벌 입어봤지만 이렇게 비단이 번쩍 거리는 건 처음 봐요. 스승님은 입지 마시고, 이 저팔계가 한번 입어보며 새 옷 느낌이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등 쪽이 잘 맞는지도 보고요. 그러다 손오공 형님이 오면 얼른 벗어줄게요."

그러자 사오정도 거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한 벌 입어봐야겠네요."

두 사람은 입고 있던 겹옷을 벗어 던지고는 얼른 조끼를 걸쳐 입었다. 그러고는 허리띠를 꼭 조였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중심을 잡지 못

하고 짜당 넘어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조끼가 마치 몸을 뽕뽕 묶는 밧줄 같아서, 순식간에 두 사람의 두 팔이 몸에 딱 붙어버린 것이다.

이 광경을 본 당승이 깜짝 놀라 발을 동동 구르며 원망 섞인 소리를 내뱉었다. 급히 옷을 풀어주려 했으나 도무지 풀리지 않았다. 세 사람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며 외쳐대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이는 이미 요괴를 놀라게 하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누각은 요괴가 부린 환상이었으며, 날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낚아채고 있었다. 요괴가 동굴 안에서 앉아 있는데, 문득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 급히 문밖으로 나가 보니 과연 사람 몇 명을 뽕뽕 묶어 놓은 상태였다. 요괴가 즉시 부하 요괴들을 불러 그곳으로 가게 한 뒤, 누각과 건물의 형상을 거두어들였다. 그러고는 당승을 부축하고 백마를 끌며 집까지 짊어진 채, 저팔계와 사오정까지 한꺼번에 붙잡아 동굴로 끌고 갔다.

늙은 요괴는 높은 대 위에 올라 앉았고, 부하 요괴들은 당승을 대 아래로 밀어 넣어 땅에 무릎을 꿇게 했다. 요괴가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 스님이냐? 어찌 이리 겁도 없이 대낮에 내 옷을 훔쳐 입었느냐?”

당승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임무를 맡은 승려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 큰제자에게 공양을 빌어오라 시켰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 제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만 이곳에 들어와 비바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 두 제자가 철이 없어 이 옷을 꺼내 입었는데, 미처 대왕님의 함정을 알아채지 못하고 저를 붙잡아 온 것입니다.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미천한 목

숨을 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진경을 구하여 대왕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리고, 대당 땅에 대왕님의 성덕을 길이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요괴가 웃으며 말했다. “내 이곳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지. ‘당승의 고기 한 점을 먹으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난다’라고 말이다. 다행히 오늘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찾아왔으면서, 그래도 살려 주기를 바라느냐? 네 큰제자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로 공양을 빌러 갔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저팔계가 얼른 입을 열어 칭송하며 말했다. “저희 사형은 오백 년 전 천궁을 뒤엎고 날뛰었던 제천대성 손오공입니다!”

그 요괴는 상대가 제천대성 손오공이라는 말을 듣고는 내심 겁이 나 입을 꼭 다물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놈의 신통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치게 될 줄이야.'

요괴가 명령했다. "이놈들아, 당승을 꾹꾹 묶어라! 저 둘은 가지고 있는 보물만 쏙 빼앗고, 대신 밧줄 두 개를 가져와서 똑같이 묶어버려라. 일단 뒤에 매고 가다가, 내가 저 큰 제자 놈을 붙잡아 단번에 해치워 버리면, 그때 다 같이 모아놓고 찌 먹으면 딱 좋겠구나!"

요괴의 말에 잔챙이 요괴들이 대답하며 세 사람을 한꺼번에 꾹꾹 묶어 뒤로 짊어졌다. 흰 말은 여물통에 묶어두고 짐은 방 안에 던져두었다. 요괴들은 모두 무기를 갈며 손오공을 붙잡을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편, 손오공은 남장 마을의 집에서 공양 밥 한 그릇을 얻어 가지고 구름을 타고 원래 가던 길로 되돌아왔다. 산비탈의 평평한 곳에 이르러 구름을 내리니, 당승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으나, 손오공이 금고봉으로 그려 놓은 보호용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사람과 말만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다. 다시 아까 보았던 누각 쪽을 돌아보니 그곳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산기슭의 괴상한 바위들만 보일 뿐이었다. 손오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말했다.

"말할 것도 없군. 분명 요괴에게 당한 것이 틀림없어!"

손오공은 급히 길 위에 남은 말발굽 자국을 살피며 서쪽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다.

다섯여섯 리쯤 더 갔을까, 한창 처량한 기분에 젖어 있을 때 북쪽 언덕 너머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살펴보니 한 노인이 있었는데, 털옷을 몸에 걸치고 따뜻한 모자를 머리에 썼으며, 발에는 낡은 듯 새것 같은 기름신을 신고 있었다. 손에는 용머리가 달린 지팡이를 쥐고 있었고, 그 뒤로는 어린 종복 하나가 따르고 있었다. 노인은 납매화 꽃가지 하나를 꺾어 든 채 언덕 앞을 지나가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손오공은 바루를 내려놓고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소승이 문안 올립니다."

노인은 즉시 답례하며 물었다. "스님은 어디서 오셨소?"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희는 동토대당에서 왔습니다.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이지요. 일행은 스승님을 포함해 네 명입니다. 스승님이 배가 고프시다고 하여 제가 따로 공양을 얻으려 간 사이, 나머지 세 사람이 저 언덕 평지에 앉아 기다리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보이지 않아 어느 길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노인은 그 말을 듣더니 허허 웃으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 세 사람에게 입이 크고 귀가 커다란 자가 있소?"

손오공이 대답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또 운수가 나빠 보이는 얼굴에 흰 말을 끌고, 얼굴이 하얀 똥똥한 스님을 데리고 있는 자가 있소?"

손오공이 말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길을 잘못 들었구려. 그들을 찾지 말고 그저 각자 목숨이나 보전하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그 하얀 얼굴을 한 분이 제 스승님이고, 괴상하게 생긴 자는 제 사제입니다. 저희는 함께 정성을 다해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어찌 그들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방금 이곳을 지나올 때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 요괴의 소굴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소."

손오공이 간곡히 부탁했다. "어르신,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떤 요괴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제가 가서 그들을 데려오고 서천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이 산의 이름은 금산이라 하오. 산 앞에 금동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독각시대왕이라는 자가 살고 있지. 그 대왕은 신통력이 광대하고 위세가 대단하오. 그 세 사람은 이번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만약 그들을 찾으러 간다면 그대조차 무사하기 힘들 테니, 차라리 가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오. 나라고 그대를 막거나 붙잡을 수는 없으니, 그저 그대의 마음먹기에 달렸소."

손오공이 다시 절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어르신께서 가르침을 주시니, 어찌 찾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오공은 가져온 공양물을 노인에게 건네주고 빈 발우를 스스로 정리했다. 그러자 노인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발우를 받아 하인에게 건네더니,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며 두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대성, 저희 신들이 감히 숨긴 것이 아닙니다. 저희 둘은 바로 이 산의 산신과 토지신으로, 대성을 맞이하기 위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공양물과 발우는 저희가 거두어 갈 테니, 대성께서는 몸을 가볍게 하여 법력을 펼치십시오. 나중에 당승을 위기에서 구하신 뒤에 이 공양물을 당승께 다시 바쳐야만 대성의 지극한 공경과 효성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이 요망한 귀신 녀석들, 매를 벌려 하는 구나! 내가 온 것을 알면서도 왜 진작 마중 나오지 않고 이토록 머리를 숨기고 나타난 것이냐?" 토지가 대답했다. "대성께서는 성격이 급하시니, 저희가 감히 함부로 나섰다가 대성의 존안을 어지럽힐까 두려워 모

숨을 숨긴 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손오공이 화를 가라앉히며 말했다. "너희는 나중에 매를 맞을 줄 알아라. 우선 이 발우를 잘 챙겨두고 있거라. 내가 가서 그 요괴 놈을 잡아 오겠다." 산신과 토지는 명을 받들었다.

손오공은 호랑이 힘줄로 끈 끈을 질끈 묶고 호랑이 가죽 치마를 추슬러 잡은 뒤, 금고봉을 쥐고 곧장 산 앞으로 달려가 요괴의 동굴을 찾아 나섰다. 산등성이를 넘어가니 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푸른 절벽 끝에는 석문 두 개가 나 있었다. 문밖에는 수많은 작은 요괴들이 모여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며 무예를 닦고 있었다. 참으로 다음과 같은 풍경이었다.

안개와 구름은 상서로운 기운을 머금고, 이끼는 푸르게 쌓여 있구나. 기묘한 바위들은 험준하게 늘어서 있고, 굽이굽이 흰 길은 끊임없이 이어지네. 원숭이 울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이 어우러진 풍경은 아름답고, 전설 속 신선이 사는 곳처럼 신비롭구나. 햇별이 드는 곳에는 매화가 막 꽃을 피웠고, 따스한 기운 속에 대나무 숲은 푸르름을 더해가네. 가파른 절벽 아래에는 눈이 가루처럼 쌓여 있고, 깊은 골짜기에는 물이 얼어붙었구나. 천 년 된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빼어나게 자라 있고, 여기저기 핀 동백꽃은 붉게 타오르네.

손오공은 이 풍경을 다 둘러본 뒤, 오솔길을 따라 문 앞까지 걸어가서 매섭게 소리쳤다.

"이놈들, 당장 안으로 들어가서 네 주인에게 전해라! 나는 대당의 성스러운 스승을 모시는 제자이자, 제천대성 손오공이다! 어서 스승님을

내놓으라고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괴 무리가 급히 동굴 안으로 달려 들어가 보고했다. "대왕님, 앞에 텅이 많고 입술이 툭 튀어나온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스로를 제천대성 손오공이라 부르며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괴 왕은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마침 그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궁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뒤로 아직 무예를 제대로 펼쳐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그놈이 오다니 필시 상대할 만한 적수가 되겠구나!"

말을 마친 요괴 왕은 즉시 요괴들에게 무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동굴 안에 있던 크고 작은 요괴들이 저마다 기운을 북돋우며 분주히 움직이더니, 한 장 이(약 3.6미터) 길이의 강철 창을 받들어 요괴 왕에게 바쳤다.

요괴 왕이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모두 대열을 정비하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요, 뒤로 물러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명령을 받은 요괴들은 요괴 왕을 따라 문밖으로 나아가며 소리쳤다. "어떤 놈이 손오공이냐!"

손오공이 곁으로 휩 지나가며 보니, 그 요괴의 생김새가 참으로 흉측했다.

뿔은 하나뿐인데 들쭉날쭉하고, 두 눈은 번뜩이며 빛났다. 정수리에
는 거친 가죽이 툭 튀어나왔고, 귀밑에는 검고 번들거리는 살점이 붙어
있었다. 허는 길어서 때때로 코를 휘저었고, 입은 넓은데 앞니는 누렁
게 변해 있었다. 푸른빛이 도는 털은 마치 쪽빛 같았고, 근육은 강철처
럼 딱딱했다. 코뿔소보다도 물을 비추기 어려울 만큼 거칠고, 발을 갈
지 않는 황소처럼 험악했다. 숨을 몰아쉬며 발을 가는 기색은 전혀 없
이, 도리어 하늘을 속이고 땅을 뒤흔들 만큼 강한 기운만 내뿜고 있었
다. 푸른빛이 도는 두 손은 마른 근육이 꿈틀거렸고, 그 위엄은 창을 쏘
듯하게 받쳐 들 만큼 당당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흉측한 모습이
과연 독각시대왕이라 불릴 만했다.

손오공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네 이놈, 네 손 외조부가 여기 있
다! 어서 우리 스승님을 돌려보내고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마라. 만약
'안 된다'는 소리라도 한 마디 더 했다가는, 네놈을 죽여서 시체조차 찾
지 못하게 만들어 주마!"

요괴가 호통을 쳤다. "이 겁 없는 원숭이 녀석 같으니! 네놈이 대체
무슨 수단이 있길래 감히 이리 큰소리를 치느냐?"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 고약한 놈! 네놈이 아직 내 수단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구나."

요괴가 말했다. "네 스승이 내 옷을 훔쳤기에 내가 붙잡아 둔 것이
다. 지금은 당장 찢어서 잡아먹으려던 참이다. 네놈은 대체 얼마나 대단
한 놈이길래 감히 내 문 앞까지 와서 따지는 것이냐?"

손오공이 외쳤다. "우리 스승님은 충직하고 정직한 승려이신데, 어찌 네놈 같은 요물의 물건을 훔칠 리가 있겠느냐?"

요괴가 말했다. "내가 산길 옆에 신비로운 별장을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 네 스승이 몰래 들어와 욕심을 부리더니 내 비단 조끼 세 벌을 훔쳐 입었던 말이다. 증거가 명백하니 내가 잡은 것이지. 네놈이 정말 수단이 있다면 나와 한번 겨루어 보자. 만약 세 합 안에 나를 이긴다면 네 스승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너 또한 이 길에서 저승길로 가게 될 것이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고얀 놈! 말로 해봐야 입만 아프니, 실력으로 승부를 겨루자꾸나. 내 뜻에도 딱 맞다. 어서 이리 와서 내 몽둥이를 받아라!"

요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창을 곧게 세워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맞서 달려들었다. 그 싸움이 참으로 격렬했다! 자, 보아라.

금고봉을 치켜드니 번개처럼 번쩍이는 금빛 뱀이 솟구치고, 긴 창이 맞서니 검은 바다를 헤치고 나오는 용처럼 눈부시게 빛난다. 문 앞의 작은 요괴들은 북을 치며 진형을 갖춰 기세를 돋우고, 싸움터의 대성(大聖)은 온갖 재주를 부리며 종횡무진 실력을 뽐낸다. 저쪽의 창은 기운이 넘쳐나고, 이쪽의 몽둥이는 무예가 고강하다. 참으로 영웅은 영웅을 만나고, 대적할 만한 자는 대적할 만한 자를 만나는 법이다. 요괴의 입에서는 자줏빛 기운이 안개처럼 뿜어져 나오고, 손오공의 눈에서는 광채가 뿜어져 나와 구름을 이룬다. 오로지 당승이 위기에 처했기에, 두 싸움꾼이 의리 없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벌이고 있구나.

두 사람은 서른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요괴는 손오공의 봉술이 빈틈없이 정교하고 막힘없이 몰아치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며 연신 외쳤다. “종구나, 좋은 원숭이다! 정말 천계에서 소동을 피우던 그 실력이로구나!”

손오공 역시 요괴의 창법이 흐트러짐 없이 좌우를 막아내며 능수능란한 것을 보고는 이렇게 외쳤다. “종구나, 좋은 요괴로다! 과연 금단을 흠쳐 간 마두답구나!”

두 사람이 다시 한 이십여 합을 더 겨루자, 요괴가 창끝으로 땅을 치며 작은 요괴들에게 일제히 달려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요괴들이 너도나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창을 휘두르며 손오공을 가운데 에워쌌다. 손오공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통을 쳤다. “좋다, 아주 좋아! 내 뜻에 딱 맞구나!”

그는 금고봉을 휘둘러 앞을 막고 뒤를 받치며, 동쪽과 서쪽을 가리지 않고 요괴들을 물리쳤다. 요괴 무리가 도무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참다못한 손오공이 금고봉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며 크게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금고봉이 순식간에 수천수백 개의 철봉으로 변하더니, 마치 날아다니는 뱀과 구렁이처럼 허공을 가득 메우며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다. 이 광경을 본 요괴들은 혼비백산하여 목을 움츠린 채 모두 동굴 속으로 도망쳐 목숨을 구걸했다.

요괴 왕은 씩씩거리며 냉소했다. “이 원숭이 녀석, 무례하게 굴지 마라.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요괴는 서둘러 소매 속에서 번쩍이고 하얗게 빛나는 고리 하나를 꺼내더니, 허공으로 던지며 외쳤다. “받아라!”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리가 날아가더니, 금고봉을 한 줄기 몽둥이처럼 움아매어 낚아채 버렸다. 손오공은 맨손이 되어버린 채, 겨우 몸을 날려 목숨만 건져 달아났다. 요괴는 승리를 거두고 동굴로 돌아갔고, 손오공은 정신이 아득해져 어쩔 줄을 몰랐다.

바로 이러했다. 도(道)가 한 자 높아지면 마(魔)는 한 길 높아지는 법, 성품이 어지럽고 정이 혼미하여 (요괴의 거처를) 제 집인 양 잘못 알아보았구나. 한스럽도다, 법신(法身)이 앓을 자리를 잃었으니, 그때의 행동이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도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끝이 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